

연구보고서 2021-28

#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 노인의 사회적 불안

곽윤경  
김세진·황남희·전지현·이현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b>곽윤경</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b>김세진</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b>황남희</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전지현</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b>이현주</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1-28

###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노인의 사회적 불안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정인애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25-9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28>

## 발|간|사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노인이 되면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은 간에 신체적 및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노인이 갖는 불안한 감정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불안한 감정 및 정서를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부적절하며, 이들의 심리·정서적 감정은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노인세대의 보편적인 현상이자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3차 연도 연구로, 노인에게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처 기제는 어떠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원내의 곽윤경 부연구위원의 주관 하에, 김세진 부연구위원, 황남희 연구위원, 이현주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전지현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다. 1년여 간 본 연구를 성심껏 수행한 연구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해 아낌없는 피드백과 귀중한 조언을 주신 원내·외 자문위원 그리고 익명의 평가위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우리 사회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	1
요약 .....	3
<b>제1장 서론 .....</b>	<b>7</b>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9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9
<b>제2장 조사 개요 .....</b>	<b>35</b>
제1절 조사 개요 및 내용 .....	37
제2절 사회적 불안의 측정과 구성 .....	46
제3절 응답자 특성 .....	53
<b>제3장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 .....</b>	<b>57</b>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	59
제2절 노인의 사회적 불안 .....	64
제3절 소결 .....	85
<b>제4장 노인의 소득과 사회적 불안 .....</b>	<b>87</b>
제1절 분석내용과 분석방법 .....	89
제2절 소득분위별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내용 비교 .....	99
제3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소득의 영향 분석 .....	104
제4절 소결 .....	109

---

<b>제5장 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불안</b> .....	<b>113</b>
제1절 논의 배경 .....	115
제2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	118
제3절 사회참여 특성과 불안 .....	122
제4절 대처방식별 불안 비교 .....	140
제5절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47
제6절 소결 .....	161
<b>제6장 결론</b> .....	<b>165</b>
제1절 종합적 분석 .....	167
제2절 연구 결과 요약 .....	174
제3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177
<b>참고문헌</b> .....	<b>187</b>
<b>부록: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설문지</b> .....	<b>197</b>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5년의 설계안 .....	22
〈표 1-2〉 1, 2차 연구의 조사 개요 .....	24
〈표 1-3〉 1, 2차 연구의 주요 내용 .....	28
〈표 2-1〉 설문조사의 조사 설계 .....	37
〈표 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내용 요약 .....	38
〈표 2-3〉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구성 .....	39
〈표 2-4〉 개인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구성 .....	40
〈표 2-5〉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구성 .....	43
〈표 2-6〉 사회적 관계 문항 변경 .....	44
〈표 2-7〉 인터넷 접근성 및 활용 문항 .....	45
〈표 2-8〉 신뢰도 분석 결과 .....	46
〈표 2-9〉 요인분석 결과 .....	48
〈표 2-10〉 사회적 불안 유형별 측정 변수 .....	50
〈표 2-11〉 개인불안 측정 변수 .....	51
〈표 2-12〉 노인의 불안 측정 변수 .....	52
〈표 2-1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5
〈표 3-1〉 활용 변수 정의 .....	63
〈표 3-2〉 사회불안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	64
〈표 3-3〉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 .....	65
〈표 3-4〉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66
〈표 3-5〉 사회적 불안/하위 영역/개인불안/노인 불안의 상관관계 .....	68
〈표 3-6〉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	70
〈표 3-7〉 경제활동과 사회적 불안 .....	72
〈표 3-8〉 은퇴와 사회적 불안 .....	73
〈표 3-9〉 경제상태와 사회적 불안 .....	75
〈표 3-10〉 정부지원과 노인의 사회적 불안 .....	77
〈표 3-11〉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적 불안 .....	78

〈표 3-12〉 사회이동 인식과 사회적 불안 .....	79
〈표 3-13〉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	80
〈표 3-14〉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	82
〈표 3-15〉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불안 .....	83
〈표 3-16〉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	84
〈표 4-1〉 투입변수의 처리 .....	94
〈표 4-2〉 소득분위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95
〈표 4-3〉 소득분위별 경제활동 및 소득과 자산 .....	97
〈표 4-4〉 소득분위별 공적지원 수급자 비율 .....	98
〈표 4-5〉 소득분위별 박탈과 차별 경험 및 차별·불평등 심각도 인식 수준 .....	99
〈표 4-6〉 소득분위별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 .....	100
〈표 4-7〉 소득분위별 사회적 불안과 개인불안 평균 비교 .....	101
〈표 4-8〉 소득 5분위별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	102
〈표 4-9〉 재산구간별 불안 비교 .....	103
〈표 4-10〉 불안과 소득 및 재산의 상관관계 .....	105
〈표 4-11〉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107
〈표 5-1〉 사회적 불안 및 개인불안 변수 .....	120
〈표 5-2〉 사회참여 변수 .....	121
〈표 5-3〉 사회관계 변수 .....	121
〈표 5-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단체·모임활동 .....	124
〈표 5-5〉 단체·모임활동 참여 유무별 불안 수준 .....	125
〈표 5-6〉 사회불안의 상중하 분포 .....	126
〈표 5-7〉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따른 단체·모임활동 참여 .....	128
〈표 5-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전자기기 활용 .....	130
〈표 5-9〉 전자기기 활용수준별 불안 수준 .....	131
〈표 5-10〉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따른 전자기기 활용수준 .....	133
〈표 5-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관계 .....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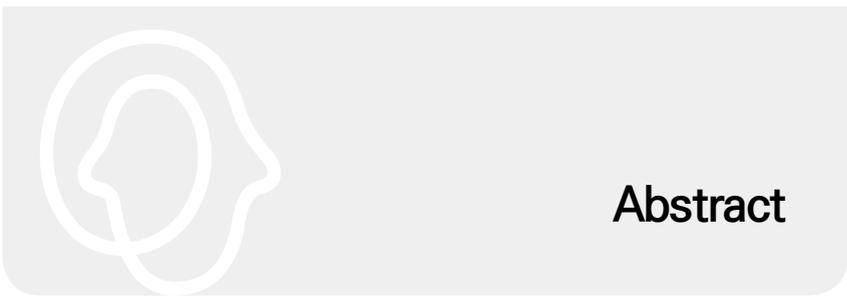


〈표 5-12〉 사회관계망 유무별 불안 수준 .....	137
〈표 5-13〉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따른 사회관계 .....	139
〈표 5-1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 대처방식 .....	142
〈표 5-15〉 불안 대처방식별 불안 수준 .....	143
〈표 5-16〉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따른 대처방식 .....	146
〈표 5-17〉 모형 투입변수의 조작적 정의 .....	148
〈표 5-18〉 사회참여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	149
〈표 5-19〉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	152
〈표 5-20〉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간의 사회관계 조절효과: 사회관계망 유무 .....	156
〈표 5-21〉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간의 사회관계 조절효과 : 사회관계망 크기 .....	160
〈표 5-22〉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사회관계 종합 .....	163
〈표 6-1〉 노인의 사회적 불안 원인 분석 결과 .....	169
〈표 6-2〉 노인 불안의 원인 .....	172
〈표 6-3〉 노인의 사회적 불안 원인 종합 .....	174

# 그림 목차

---

[그림 1-1] 노인의 자살률과 상대빈곤율 국제비교 .....	11
[그림 1-2]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우울증상률 변화 .....	15
[그림 1-3] 사회적 불안 관련 요인의 관계 구조도 .....	20
[그림 1-4] 사회적 불안의 전체적 구조 .....	26
[그림 1-5] 조사표 개발 단계 .....	31
[그림 1-6] 설문 및 분석 내용 구조도 .....	33
[그림 1-7] 연구 과정 .....	33
[그림 3-1]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 .....	65
[그림 3-2]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66
[그림 4-1] 재산구간별 불안 비교 .....	103
[그림 5-1] 단체모임활동 참여 유무별 불안 수준 .....	125
[그림 5-2] 사회불안의 상중하 분포 .....	127
[그림 5-3] 전자기기 접근성 유무별 불안 수준 .....	132
[그림 5-4] 사회관계망 유무별 불안 수준 .....	137
[그림 5-5] 불안 대처방식 .....	140
[그림 5-6] 불안 대처방식별 사회적 불안 수준 .....	144
[그림 6-1] 은퇴 후 경과기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81



## Abstract

### **A study of social unrest in South Korea: focusing on elderly people**

Project Head: Kwak, Yoon Kyu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social unrest amongst elderly people in South Korea and to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The study uses the same index on social unrest from the data set used to examine social unrest in young people in 2020. The questionnaire for collecting these data had age-specific adjust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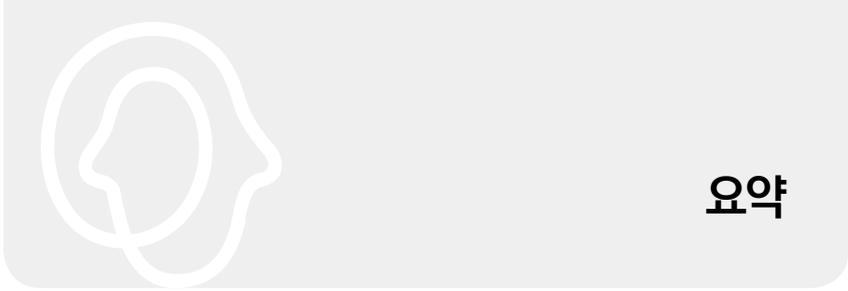
A survey was carried out open to those aged 65 to 74 across the nation; 1,000 individuals responded. The factor analysis method was utilized to identify the elements of the social unrest, and following elements were discerned: a) adaptation/safety, b) injustice/competition, c) distrust/hopelessness, d) inequality. In addition, individual levels of social unrest, social unrest in terms of aging, perception of social unrest were used, as other elements of social unrest.

Chapter 3 covers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the levels of and the differences in the social unres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pter 4 analyzes the relation between social unrest and income, along with the more general

## 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indicator of wealth. When it comes to the 'adaptation/safety' element of social unrest, the levels were higher in the first income quintile than those in the fourth quintile. Chapter 5 examines the way participants respond to a sense of fear and insecurity and identifie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unrest. The final chapter summarizes the findings of the earlier chapters and draws the policy implications.

Keyword : social unrest, elderly people, social policy, South Korea



##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만 65~74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조사표에는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다양한 문항과 개인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대처기제, 개인 및 사회적 사건 경험,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하였다. 참고로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은 요인분석을 거쳐,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감 그리고 불평등 불안으로 세부 분류하였다.

제3장에서는 노인의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노인은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감’ 그리고 ‘불평등’ 불안 영역에서 보통 이상(3점 이상)으로, 불안 수준이 상당하였다. 반면, 개인 차원인 개인불안과 노인 불안(상실 불안과 노화 불안 모두 포함)은 보통 이하(3점 이하)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 수준은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그리고 노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1인 가구인 경우, 농어촌 거주자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우 대부분의 불안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은 세부 요인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적 불안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즉, 이 장에서는 소득이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 경제적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소득이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축적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태가 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도 사회적

#### 4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불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한편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구분하여 소득과 재산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은 소득과 재산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이 사회적 불안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분위별로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1분위의 적응/안전 불안이 4분위의 적응/안전 불안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소득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반면 재산의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의 결과는 유사하였지만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은 다소 상이하였다. 빈곤층에서 박탈 경험이, 비빈곤층에서는 차별 경험과 경제위기 영향 경험이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제5장에서는 65~74세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대처방식을 분석하였다. 노인의 불안 특성별 대처방식을 살펴본 결과,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사회적 교류와 여가·문화·종교 등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를 통해 대처하는 반면,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그냥 참기 또는 유희·과식·폭식·미식을 통해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노인들이 선택한 불안 대처방식은 사회적 교류(1순위 기준 34.2%, 1~3순위 중복 기준 11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사회불안 수준은 영역별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가 달랐다.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의 친목모임 참여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불안 수준을 높이지만, 사회관계는 사회적 불안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종교모임이나 공공 여가문화시설, 온라인활동은 사회적 불안 수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관계가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만, 사회참여가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는 지지하지 않는다.

제6장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불안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주요 원인으로 다수 도출되었으며, 그 외 항목들은 불안의 형태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적응/안전은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였을수록, 차별 인식·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지원망이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현재 근로를 할수록 높았다. 불공정/경쟁은 무배우일수록, 신뢰도가 낮을수록,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높았다. 불신/무망은 차별 경험이 있을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현재 세대의 지위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높았다. 불평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그 외 개인 불안은 차별과 사회적 경험, 개인의 경험이 주요한 영향요인이었으며, 노인 불안은 교육수준과 사회적 사건 경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 심리적 지원망 등이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첫째, 사회적 불안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사회불안이 높은 노인집단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은퇴자 혹은 은퇴예정자의 노후준비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방안으로 기존의 사업들을 보완하고 연계하여 사회관계망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노인의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 6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주요 요인인 정보화기기 활용의 역기능적 측면을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보편적인 관점에서 노인 관련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65~74세 집단의 특이성을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주요 용어 : 노인, 65~74세, 사회적 불안, 사회정책, 노인정책, 정신건강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초점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1차 연도 연구에서 노인의 불안 내용이 청년이나 장년과 비교하여 상이하였다. (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 p. 15). 예를 들어, 불안과 생활 만족 수준에 따른 불안 경험을 유형화한 결과, 생활 만족이 낮고 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한 이들 대부분은 50대 기초생활수급자인 반면, 불안 수준이 높고 생활 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은 대다수가 청년이나 중년 집단에 속하였다(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p. 146). 물론, 소수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연령에 따른 사회적 불안 경험이 상이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020년에 수행된 사회적 불안 연구에서 청·중년을 비교해보면서, 청년과 중년은 집단별로 불안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더불어, 사회경제적 조건의 영향으로 인해 불안이 심한 영역에도 차이를 보이는 점을 확인하였다(이현주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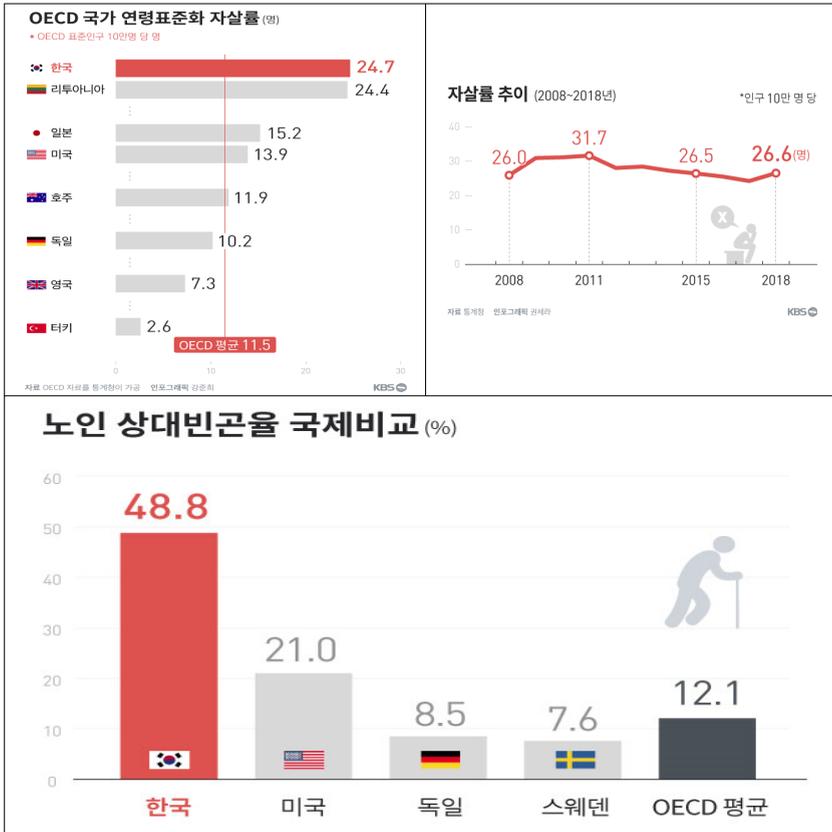
둘째, 한국의 문화 및 가치관의 변화도 노인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며,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한 국가였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충효 사상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나라보다는 자신과 가족을 가장 떠받들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부모 봉양보다는 출세가 효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나은영, 차유리, 2010). 이렇게 가족 중심 문화가 약화하면서, 노인은 성인자녀와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감소하는 등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셋째, 노인의 기대수명과 노인의 삶의 질은 비례하지 않는다(이상우, 2017). 한국 노인의 기대수명은 2000년 76.01세에서 2019년 83.30세로 크게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그렇지만 한국 노인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노인은 길어진 생의 시간 동안 행복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단적인 예로,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매우 높다. [그림 1-1]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OECD 평균치보다 약 2배 높아,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국내 자살률 추이 역시 꾸준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그림 1-1). 노인이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부부·자녀 등과의 갈등 및 단절, 외로움, 가까운 사람의 사망, 배우자와 가족의 건강문제 순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7). 또한, 노인의 자살률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인 빈곤율도 매우 심각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4.8%보다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미, 2021. 2. 17.).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이 73%를 차지하였다(정경희 외, 2017, p.15). 무엇보다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김자영, 2014). 특히, 빈곤 고령층은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문, 2008). 노인 빈곤의 심각성은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1] 노인의 자살률과 상대빈곤율 국제비교

(단위: %)



자료: 박찬형. (2019. 9. 29.). 한국 노인 OECD 최고 자살률...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92513>에서 2021. 5. 28. 인출.

넷째,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증가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WHO, 2017). 노인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지인의 상실로 인한 소외감, 고독감을 겪게 되기 때문에, 고령층의 정신건강 상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한 경향이 있다(김경숙, 문재우, 박재산, 2008; Kessler et al., 1994; Mirowsky & Ross,

1990), 무엇보다 배우자의 죽음은 노년기에 겪는 매우 커다란 충격으로, 남겨진 이의 상실감은 외로움, 우울을 넘어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이금룡, 조은혜, 2013; 원혜진, 송신애, 2019). 특히, 한국에서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충격은 다른 국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Jadhav & Weir(2017)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한 한국인의 우울수준은 미국의 2.6배로 매우 높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adhav & Weir, 2017). 정신적 충격은 신체적 문제로도 이어지는데,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30일 이내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2.14배, 뇌졸중은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bcnews, 2014. 2. 25.).

배우자와의 사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던 노인의 경우, 은퇴 후, 이전 생애주기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삶의 문제에 복합적으로 노출된다(김신열, 김순규, 서효정, 2011; 김범수, 최은영, 2017). 구체적으로, 은퇴 노인은 사회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및 고독감 등 여러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정신건강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아영, 고경표, 2018). 특히, 50~75세의 중고령자는 은퇴 후, 우울증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아영, 고경표, 2018). 특히, 남성 노인은 은퇴 전에 직장 생활이 삶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역할 변화로 인한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엄사랑, 김수경, 김지원, 신혜리, 김영선, 2020; Baltes & Mayer, 1999; Dave, Rashad, & Spasojevic, 2008; Mandal & Roe, 2008).

노년기에는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건강이 악화되는 만큼,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노인들은 노화 과정에서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제한 등의 문제를 겪는다(여연옥, 유은광, 2010; 이민숙, 2005). 이처럼 노년기의 신체기능 상실 및 저하는 사회생활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여,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이현경, 손민성, 최만규, 2012).

마지막으로,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노인 개인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둔 연구나, 정신 병리적인 불안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렇지만 노인이 처한 정신건강 문제는 단지 의학적 그리고 병리적 진단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척도를 통해 계산된 수치가 곧 노인의 정신건강을 대변해주지는 않는다. 또한, 앞선 1차 연도 그리고 2차 연도의 사회적 불안 연구를 통해 개인의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유관성을 확인한 만큼, 노인의 불안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노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노인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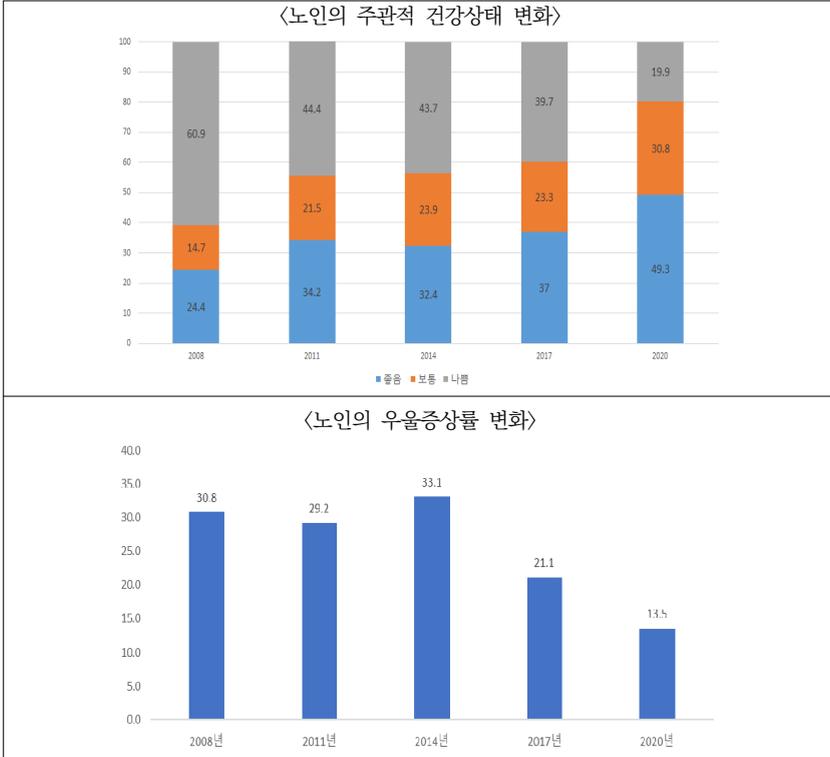
## 2. 65~74세<sup>1)</sup>의 노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본 연구에서는 65~74세의 노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의 건강상태는 과거보다 매우 좋다. 2020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하는

1) Neugarten(1974)은 노인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55~64세를 'the young-old', 65~74세를 'the middle-old', 75세 이상을 'the old-old'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Heisel & Flett(2006)은 75세 미만을 전기 노인, 75세 이상을 후기 노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이 일정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노인의 연령별로 집단을 구분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법을 따르지 않고,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비율이 2008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우울 증상 및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6. 7.). 이처럼 65~74세의 노인은 노년기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강하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서 큰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다(김미령, 2006; 김혜경, 2006; 강상경, 전해숙, 2012). 반면, 75세 이상 노인은 노화로 인해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기능 손상을 경험하고,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김미령, 2006; 강상경, 전해숙, 2012). 향후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신체가 건강한 노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 축의 전환」의 저자인 마우로 기옌은 ‘2030년이 되면 70대의 평균적인 삶은 지금의 50대의 평균적인 삶과 엇비슷해질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Mauro, 2020, p. 85).

[그림 1-2]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우울증상률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2021. 6. 7.).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세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4673&topic=에서> 2021. 9. 29. 인출.

둘째, 이들 집단은 과거 노인과 달리 일정 정도 경제력을 갖춘 집단이다. 미국의 역사가 닐 하우(Neil Howe)는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오늘날 노년층이 누리는 상대적 풍요로움은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Mauro, 2020, p. 70). 일례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는 65세 이상인 침묵의 세대(Silent Generation)는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 재산이 1.3배 많고,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무려 23배 많다고

발표하였다(Mauro, 2020, p. 71). 향후 노인의 경제력은 점차 커져서, 2030년이 되면 60대 이상의 구매력은 무려 2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Mauro, 2020, p. 71). 한국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개인 소득은 2008년 700만 원에서 2020년에는 1,558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6. 7.). 특히,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그리고 사적 연금소득 등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인의 경제활동 증가가 곧 이들의 높은 경제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 6. 7.).

셋째, 이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과거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사람의 삶은 학업, 노동 그리고 은퇴로 이행한다고 보았다(Mauro, 2020, p. 96). 그렇지만 미국 은퇴자 연구소 소장 캐서린 콜린스는 65세 이상인 노인은 은퇴 이후에도 사회에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Mauro, 2020, p. 960). 실제로 카우프만 기업 활동지수(Kauffman Index of Entrepreneurship)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에서 55세 이상 64세 이하 사람이 창업하는 비율은 1996년 14.8%에서 2016년 25.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Kauffman Foundation, 2017, p. 5). 이러한 추세는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0%에서 2020년 36.9%로 증가하였고, 특히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9.9%에서 2020년 55.1%로 대폭 상승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6. 7.). 물론,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 노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반면, 고학력, 고소득 노인은, 재능기부, 사회기여 등 비경제적 사유로 일하는 경향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21. 6. 7.). 정리하자면, 65세 이상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난다는 기존의 공식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들의 사회참여도 역시 활발한 편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0%는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2021. 6. 7.). 특히, 65~69세 노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은 5.7%로 85세 이상인 2.4%보다 2배가량 많았으며, 이들의 스포츠 참여활동도 10.1%로 85세 이상 1.5%보다 약 7배 많았다(보건복지부, 2021. 6. 7.).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65~74세의 노인이 75세 이상 노인보다 더 젊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이다(백지은, 2018). 반면 75세 이상 노인은 신체적 건강의 약화 및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 혹은 지지망이 좁아지는 등 사회참여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성혜연, 2021). 2019년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83.2%가 노후에 사회활동 참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약 절반 정도가 노후에 자원봉사활동과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드러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민희, 2019). 향후 활발한 사회참여는 이들 집단의 주요 특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들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우수한 편이다.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6.4%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65~69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1. 6. 7.). 정보화기기 사용 역량의 경우, 65~69세 노인은 문자 받기, 문자 보내기, 정보검색, 사진 동영상 촬영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기 사용 역량이 75세 이상 노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1. 6. 7.). 따라서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 능력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지만, 앞선 노인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향후 더욱 심화할 수는 있다.

종합해 보면, 이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노인의 이미지, 인식 그리고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기타 노인

연령대와 달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Newman & Newman, 1991). 이들의 특성은 75세 이상 노인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므로, 기존의 노인상을 탈피한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김혜경, 2006). 노인세대 내의 격차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노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 집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특성 및 정책 욕구 등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년층의 내부적 다양성에 주목하여 맞춤형 정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아직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은 65~74세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3.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노인이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는 원인과 관련 요인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불안 대처기제는 무엇인가? 이처럼 크게 3가지 세부 목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고령화 시대에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65~74세에 주목함으로써, 노인 내부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불안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심리적인 편익과 정서를 고려한 정책을 세우는 데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된 만큼, 향후 N데믹 시대에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책임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제2절 선행연구 검토<sup>2)</sup>

### 1.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

이 연구는 1차 연구에서 정의한 사회적 불안 개념을 준용한다. “사회적 불안이란 사회 체계적 요인으로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지속해서 느끼는 (불안정한) 기분이나 경험을 말하며, 따라서 사회적 대응으로 현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이현주 외, 2019, p. 78). 즉, 사회적 불안이란 불안의 원인이 단순히 개인의 기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수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현주 외, 2019, p.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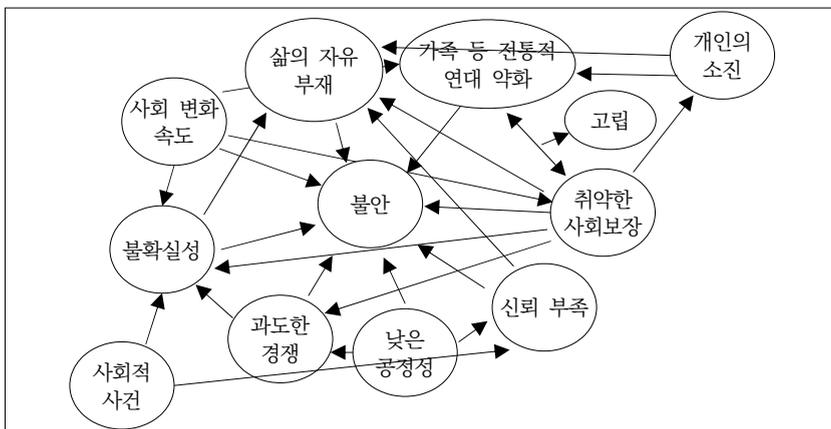
사회적 불안은 용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 사회적 환경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불안과 개인적 불안이 무관한 개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감정은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회 현상들을 만들어 내는 원형적 에너지로, 사람들이 느끼는 지배적 감정을 통해 그 사회를

2) 이 절은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의 1, 2차 연구인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2019)과 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2020)을 토대로 요약하였다.

알 수 있다(EBS 감정 시대 제작팀, 2017, p. 4). 1차 연구에서 개인 차원의 불안과 사회적 환경 차원의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개인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유기적 연관성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요인으로 개인이 인지하고 경험하는 불안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구성원의 왜곡된 행태가 나타나고, 다수의 사회구성원의 왜곡된 행태는 결국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이현주 외, 2020, p. 37). 1차 연구의 질적 조사와 2차/3차 연구의 양적 조사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지하는 사회적 불안과 동시에 개인적 차원의 불안을 함께 파악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사회적 불안은 그 자체로 위협의 원인이자 결과로 기술적,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위협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Jovanović, Renn, & Schröter, 2012, pp. 11-12). 아래의 그림은 1차 연구 결과 사회적 불안과 그의 요인, 그리고 관련 개념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3] 사회적 불안 관련 요인의 관계 구조도



자료: 이현주, 박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59.

우리가 사회적 불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근원이자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은 때로는 환경에 적응하고 개인이나 사회가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표출되면 사회 체계의 불안정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대응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완화될 수도,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탐색과 이해는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기 때문이다(이현주 외, 2019, p. 9).

## 2. 5개년 연구의 개괄

이 연구는 사회적 불안을 주제로 설계된 5년 예정의 일반연구사업 중 3차 연도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단위의 불안에 초점을 두고, 한국 사회의 특이성을 분석하고 정책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에 조사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2차 연도 이후 조사를 3년으로 특화 구분하여 실시하고 5차 연도에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적 불안 대응 기제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귀납적 방식으로 사회적 불안에 대한 단서를 얻고, 이를 기초로 하여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청·중년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3차 연도 연구에서는 2차 연도 설문조사를 활용하되, 조사대상이 청년이 아닌 노인인 만큼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 2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표 1-1〉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5년의 설계안

1차 연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기완료)
2차 연도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기완료)
3차 연도	2021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노인의 사회적 불안 (진행 중)
4차 연도	202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장년의 사회적 불안
5차 연도	2023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적 불안 대응 기제 구축 방안

### 가. 1차/2차 연도의 연구개요

불안 관련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사회적 단위의 불안에 초점을 맞춘다. OECD, ILO 등 국제기구들에서는 사회적 불안 관련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불안에 대해 질적 분석을 하여 사회적 불안이 갖는 특이성을 개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불안 경험과 사회적 불안이 관계가 있다는 점을 논리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불안 경험을 통해 귀납적이고 탐색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질적 조사를 통한 면담 내용은 현상학적 분석과 소프트웨어(NVivo)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사회적 불안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온라인 뉴스,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였다.

2차 연도 연구는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과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구조, 사회적 불안의 요인, 그리고

사회적 불안의 대처기제를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의 질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사표를 개발하고 양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일반화된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계획 단계에서는 전 인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조사 환경의 변화와 1차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의 만 19~44세 청·중년으로 연구대상을 변경하였다. 1차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의 일반적 특징 외에도 연령집단별로 불안의 수준과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청년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더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세대의 불안을 단순히 그 세대가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으로 치부하기에는 미래 우리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2차 연구에서 청년층에 초점을 둔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조사의 수행 가능성과 일정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대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웹조사가 가능한 연령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연령 구분은 생애주기상 일정 수준 이상의 특징을 공유하는 동질성을 고려하여 만 19~44세 청·중년으로 설정하였다.

## 24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표 1-2〉 1, 2차 연구의 조사 개요

조사 연도	1차(2019)	2차(2020)
조사대상	만 19~60세	전국 만 19~44세 청·중년 대상
표본 크기	40명	3,117명
조사방법	질적 조사	웹조사
자료수집 도구	반구조화된 면담지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주된 감정</li> <li>○ 최근 불안 수준 및 이유 등 불안 경험</li> <li>○ 과거 불안 경험 및 개인사</li> <li>○ 불안에 대한 대응</li> <li>○ 사회참여(여가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봉사 등) 경험</li> <li>○ 한국의 사회불안 수준 및 사회불안 요인별 인지</li> <li>○ 생활 만족, 행복</li> <li>○ 가까운 미래 전망</li> <li>○ 가구 일반사항, 응답자 일반 사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영역별 불안 수준 인식</li> <li>- 우리 사회 신뢰 수준 인식</li> <li>- 사회적 이동 인식</li> <li>- 차별 및 불평등 수준 인식 등</li> </ul> </li> <li>○ 응답자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2세 이후 영역별 박탈 경험</li> <li>- 차별 경험</li> <li>- 한국 사회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문제 경험</li> <li>-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영역별 변화 경험 및 사회불안</li> <li>- 개인불안 수준</li> <li>- 불안에 대한 대응방식</li> </ul> </li> <li>○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교류</li> <li>- 사회참여</li> </ul> </li> <li>○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 인식</li> <li>-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li> </ul> </li> <li>○ 응답자의 경제활동 및 소득 관련</li> <li>○ 가구 일반사항, 응답자 일반사항</li> </ul>

자료: 이현주, 박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박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나. 1차/2차 연도의 주요 연구 결과

1차 연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사회적 불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며,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 사회적 불안은 경제적 빈곤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원인과 현상도 사례마다 다르다. 불안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불안은 빈곤, 취업, 사회적 지위, 가족 및 사회 환경 요인, 개인적 가치 추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외, 2019, p. 4). 빈곤층으로 인지한 참여자의 불안이 가장 컸다. 그들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느꼈다. 20~30대 취업 준비 청년층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인생의 방향과 관련한 불안이 가장 크고, 수도권 소득 중간층은 자녀 교육과 소득 확보와 관련한 사회적 지위 불안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 건강 문제, 그리고 삶의 선택 제약 등도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불안은 비전형적 삶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우려,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안정 인식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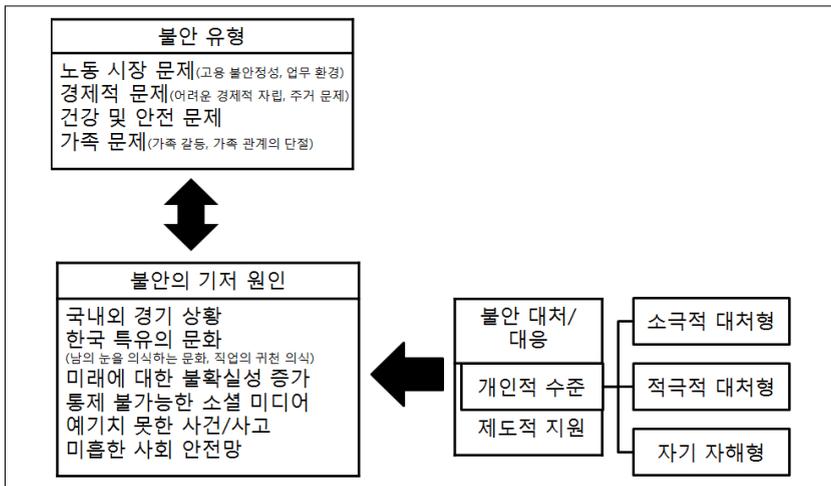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질적 분석 결과를 보면 불안은 중첩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요인을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중 다수는 가족, 건강 그리고 학업 문제가 중첩 및 상호 교차하여 불안을 느꼈으며, 국내외 경기 상황, 한국 특유의 문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통제 불가능한 소셜 미디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미흡한 사회안전망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현주 외, 2019, p. 4).

불안 관련 요소들에서 불확실성, 자기 결정의 상실, 삶의 선택 제약, 낮은 사회보장제도 수준 등이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불확실성은 낮은 공정성과 신뢰, 빠른 사회 변화 등의 작용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불안의 요인뿐만 아니라 불안에 대한 대처기제도 불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공적인 영역의 도움보다 전통적 지지체계에 의존하거나 본인의 힘으로 불안에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 불안은 불안의 표면적 현상이 선행연구들에서와 같이 문제영역으로 구분되어도 그 기저에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이현주

외, 2020, p. 34). 한국 사회는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아직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과도기에 있으며, 이 간극이 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되었다(이현주 외, 2019, p. 5).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문화적 특이성으로 세 가지를 주목한다. ‘치열한 경쟁과 상대적 소득의 평가’, ‘가족주의와 변형된 개인주의’, ‘빠른 속도의 사회 변화와 이동성 저하로의 적응’을 최근의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주요 양상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이현주 외, 2020, p. 38).

[그림 1-4] 사회적 불안의 전체적 구조



자료: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47.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청·중년층에 주목하여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과 영향요인을 양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지를 단문으로 질문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4.14점(5점 척도)으로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전반적 인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불안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척도화된 여러 개의 문항을 이용해 불안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공정성’, ‘경쟁과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과 도태’ 등 총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경쟁/불평등과 공정성에서의 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청·중년층 사회적 불안의 구조 측면에서는 정부 신뢰와 공정성이 매우 핵심적인 하위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과 불안의 하위 영역 및 관련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나 관계망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 신뢰와 공정성은 불안의 중심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불안의 요인으로는 취업, 성, 미래 무망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이 확인되었다(이현주 외, 2020, pp. 234-235).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아동이 있는 여성의 불안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청·중년이 사회적 불안이 높은데, 특히 정부신뢰에서 불안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거 점유 형태가 비자가인 경우 불안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도시 청·중년의 높은 불안은 주거불안정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과 장애 여부도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라는 이유로 건강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청·중년의 취업 여부와 취업한 일자리의 문화, 본인의 소득계층이나 부모의 재산수준 등과 같은 기타 경제적 요인도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특히 청년의 경우에는 미래 무망감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불안의 요인과 관련해 중요한 분석 결과 중 하나는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문제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그러한 경험 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사회적 불안의 외재적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과

네트워크분석 결과, 차별 및 박탈 경험,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경험은 사회적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차별 인식, 기회 공정성 및 경제 불평등에 대한 인식 등 주관적인 요인들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현주 외, 2020, pp. 4-5).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친목모임이 불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자아존중감이 사회참여와 불안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1, 2차 연구의 주요 내용

연차 (연도)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1차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목적: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개방적 탐색과 사회적 불안의 요인 파악</li> <li>-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에 대한 이론적 검토</li> <li>·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li> <li>·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분석 (불안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소프트웨어(NVivo)를 활용한 불안의 요소 분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탐색</li> <li>-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불안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불안이 갖는 특이성을 개방적으로 규명</li> <li>- 표면적인 사회적 불안의 근저에서 작용하는 요인 파악</li> </ul>
2차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목적: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과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li> <li>-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론적 검토</li> <li>·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li> <li>·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양적 분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과 집단 비교</li> <li>-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설명요인 분석</li> <li>-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차이 분석</li> <li>-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처기제 분석</li> </ul>

자료: 이현주, 박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박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그리고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왜 노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지, 이에 대한 의미에 대해 짚어보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사회적 불안 1차 연도와 2차 연도 연구개요 및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만 65~74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설문조사를 개발하는 과정과 더불어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지속 문항 및 신규 문항을 소개하였다. 사회적 불안의 척도화된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의 활용 변수를 소개하고,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 제4장 그리고 제5장은 본 연구의 핵심으로, 여기서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 소득과 사회적 불안,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와 불안에 대한 노인의 대처기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참여 등에 대해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이런 요소가 제일 자주 언급되며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즉, 노인의 소득, 재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현주 외, 2020). 또한, 사회참여 및 사회관계는, 65~74세 노인의 사회참여가 다른 연령대의 노인보다 매우 활발하며,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참여와 사회관계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해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Kearney & Silverman, 1990; Clark & Wells, 1995; Ginsburg et al., 1998; 곽윤경 외, 2021).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참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노인이 느끼는 불안 수준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즉,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선행연구에서 거론된 주요 요인별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과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적 불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불안 수준과 내용이 다른지 분석하고, 소득이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노인의 재산이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빈곤층과 비빈곤층에서 소득과 재산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노인들의 대처방식을 분석하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관계의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6장 결론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불안을 설명하는 요인들 간에 일관된 패턴이 존재하는지, 어떤 요인이 어떤 방향으로 사회적 불안 척도 문항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면서 마무리한다.

##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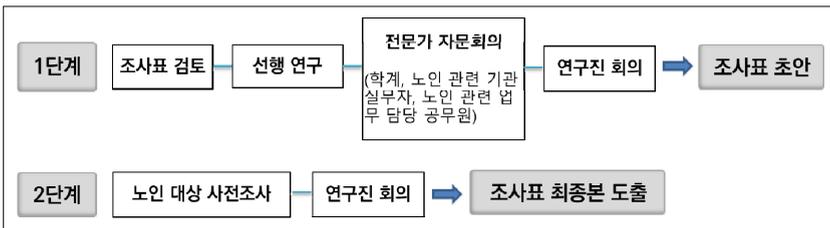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특히 사회적 불안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사회적 불안 관련 보고서를 주로 참고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000명을 목표 표집인원으로 설정하고,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을 이용하여, 노인의 연령(65~69세/ 70~74세),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성(남자/ 여자)을 기준으로 인구비례로 할당하였다. 이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소득 분포를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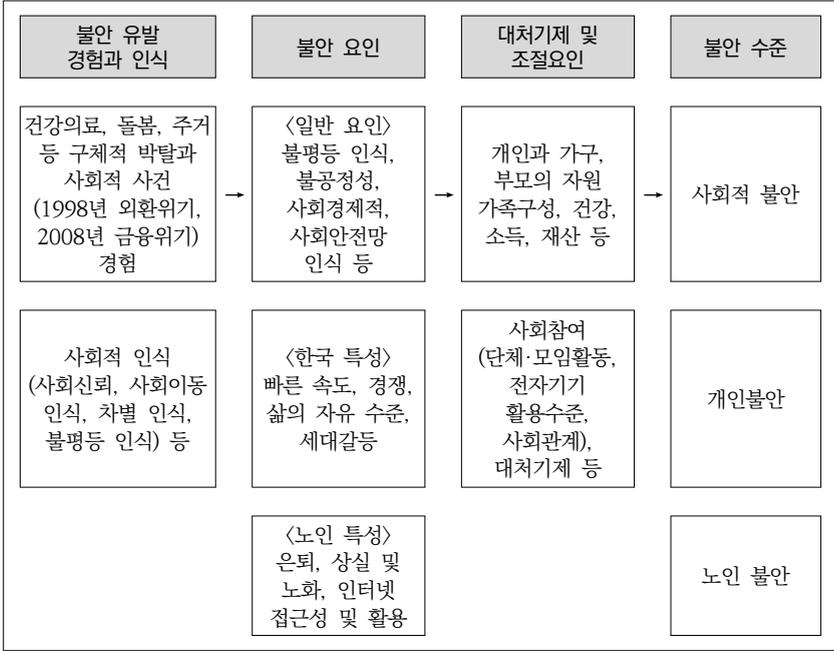
조사표 개발 단계는 [그림 1-5]와 같다. 2차 연도 사회적 불안 과제에서 활용한 설문조사를 활용하되, 본 연도 연구대상은 노인이므로, 노인이라는 특성에 맞게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조사표 개발 단계에서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노인 관련 학계 전문가, 노인 관련 기관의 실무자, 노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진 간의 회의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표 초안을 만들었다. 이를 조사 대상자인 노인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흡한 문항이나 응답자가 이해하기 힘든 문항 등을 파악하고, 조사표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후, 최종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그림 1-5] 조사표 개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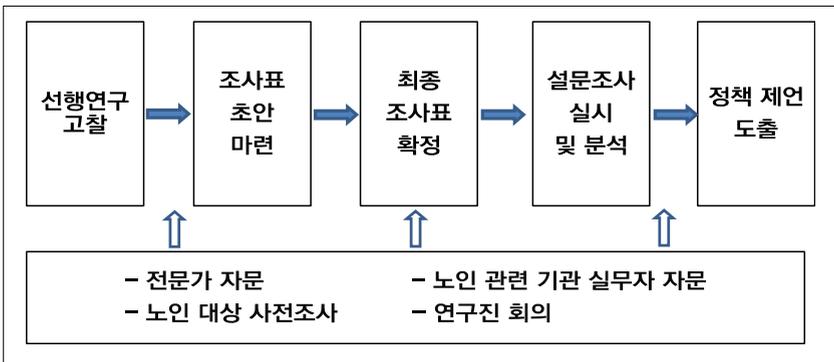
조사표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인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개인불안에 대한 인지, 개인불안, 불안에 대한 대처능력과 사회참여 및 사회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특이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자유(삶의 자유)를 초점으로 한 인식과 경험,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 중대한 사회적 사고와 그 영향, 박탈 경험, 사회신뢰, 사회이동 인식, 차별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불안의 원인, 특히, 사회경제적 원인군의 유형별 인식과 경험, 사회안전망 인지 수준과 경험, 건강과 돌봄의 부담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변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상실과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인터넷 접근성 및 활용 등을 포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도 포함하였고, 응답자 중 다수가 공적지원을 받는 연령층에 포진되어 있는바, 기초연금,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묻는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그림 1-6] 설문 및 분석 내용 구조도



종합해 보면, 전반적인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7] 연구 과정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조사 개요

제1절 조사 개요 및 내용

제2절 사회적 불안의 측정과 구성

제3절 응답자 특성



## 제 2 장 조사 개요

### 제1절 조사 개요 및 내용

#### 1. 조사 개요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를 거쳐, 2021년 5월 31일에 IRB 승인(제2021-022호)을 받았다. 이후,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전국의 만 65~74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1,00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2-1〉 설문조사의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의 만 65세 이상 ~ 만 74세 이하 남녀
표본크기	1,000명
표본설계	지역별, 성별, 연령에 따른 인구비례할당(통계청, 「인구총조사」(2019)) 가구소득 분포 추가 할당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최대허용오차 $\pm 3.10\%p$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21년 6월 29일 ~ 7월 23일
조사내용	불안과 관련한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경험, 사회적 관계,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경제활동, 가구 일반사항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2. 주요 내용

조사표는 2020년에 수행된 연구인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서 활용된 설문조사를 활용하되, 일부 문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표 2-2>는 본 조사 문항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표는 구체적으로, 가구 일반사항, 응답자 일반사항, 응답자의 경제활동,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개인 및 사회적 사건 경험,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 구성하였다.

<표 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가구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 수 및 가구 구성</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li> <li>-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li> <li>- 월평균 가구소득</li> </ul>
응답자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주와의 관계</li> <li>-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거주지역</li> <li>- 돌봄 필요 유부, 종교 유무</li> <li>- 정부지원 수혜 여부</li> </ul>
응답자의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 여부 및 시기</li> <li>- 현재 경제활동</li> </ul>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 인식</li> <li>- 영역별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 인식</li> <li>-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 인식</li> <li>- 사회적 이동 인식</li> <li>- 우리 사회의 차별 및 불평등 수준 인식</li> <li>-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li> </ul>
개인 및 사회적 사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0년간 영역별 박탈 경험</li> <li>- 한국 사회 주요 사건(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으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문제 경험</li> <li>-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영역별 문제상황 경험</li> <li>-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불안한 점</li> <li>- 개인불안 수준</li> <li>- 노화 및 상실 불안</li> <li>- 불안에 대한 대응방식</li> </ul>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 인식</li> <li>-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li> </ul>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교류, 사회참여</li> <li>- 인터넷 접근성 및 활용</li> </ul>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가. 지속 문항

본 조사표는 2020년 연구와 조응성을 갖추기 위해, 사회적 불안과 개인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을 동일하게 활용하였다.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은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2004)의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0문항의 사회적 불안 척도를 발표하였는데, 이 척도는 개인불안, 경제 불안, 공정성 불안, 미래 불안, 불신 불안, 안전 불안, 사회문제 불안, 정치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그 외 문항으로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라는 소속과 관련된 문항을 새로 추가하였다. 또한, 한승현, 임다혜, 강민아(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미래의 무망감 혹은 무희망과 관련한 문항도 포함하였다.

〈표 2-3〉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구성

문항	출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되어질 것이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4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문항	출처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신규 추가 문항)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자료: 이현주 외.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p. 56.

개인적 불안은 Zung의 자기평가불안척도(Self-Rating Anxiety Scale: SAS)를 활용하였다(이현주 외, 2020, p. 55). 이 척도는 국내 연구인 이중훈, 박병탁, 정성덕, 강복수, 정종학(1984)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어 이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다만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이현주 외, 2020, p. 55).

<표 2-4> 개인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구성

문항	출처	
나는 요즘 전보다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다.	Zung의 자기평가불안척도(Self-Rating Anxiety Scale: SAS)	
나는 공연히 두려워진다.		
나는 사소한 일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른다.		
나는 신경이 극도로 약해져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나는 만사가 순조로를 것 같다.		
나는 손발이 떨리고 안절부절못한다.		
나는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혹은 허리가 아프다.		
나는 쉽게 무기력하고 피곤해진다.		이중훈, 박병탁, 정성덕, 강복수, 정종학(1984)
나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는 어지러워서 고생한다.		

문항	출처
나는 졸도하거나 졸도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나는 무리 없이 숨 쉴 수 있다.	
나는 손에 쥐가 나가거나 저려서 고생을 한다.	
나는 소화가 안 되어 고생을 한다.	
나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내 손은 평소 심하게 땀이 나지도 않고 차지 않게 유지된다.	
나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화끈거린다.	
나는 쉽게 잠이 들고 깊이 잔다.	
나는 꿈자리가 사납다.	

자료: 이현주 외.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 나. 신규 문항

본 조사가 만 65~74세의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만큼, 이에 적합한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였다.

첫째, 본 조사에서는 상실 불안과 노화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노인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노인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임주영(2014)이 개발한 한국 노인의 불안 척도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 임주영(2014, p. 191)은 이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노인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하고, 노인의 불안 특성과 개념 구조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에게는 STAI<sup>3)</sup> (Spielberger, 1983), BAI<sup>4)</sup>(Beck, Epstein, Brown, & Steer, 1988), AMAS-E<sup>5)</sup>(Lowe & Reynolds, 2000), AAS<sup>6)</sup>(Lasher & Faulkender,

3) STAI-X(State-Trait Anxiety Inventory)는 Spielberger(1983)가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 척도

4) BAI(Beck Anxiety Inventory)는 Beck, Epstein, Brown, & Steer(1988)에 의해 개발된 불안검사

5) Lowe와 Reynolds(2000)가 개발한 AMASE(Adult Manifest Anxiety Scale-Elderly) 척도는 노인의 불안을 측정

1993), DAS(Templer, 1970) 등과 같은 이미 개발된 불안 척도를 참고하였다(임주영, 2014, p. 192). 또한, 60세 이상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노년기와 관련된 불안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다(임주영, 2014). 이를 바탕으로, 총 35개의 문항을 확정하고, 이후 문항 적합 여부 검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총 19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임주영, 2014). 본 척도는 과잉 불안, 신체적 불안, 사회적 지지체계 상실 불안, 노화 불안 그리고 죽음 불안으로 사회적 불안의 영역을 구성하였다(임주영, 2014).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상실 불안과 노화 불안만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발된 척도에서 상실 불안은 5개의 문항으로, 그리고 노화 불안은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모든 문항을 포함하였지만, 후자의 8개 문항 중 7개 문항만을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I worry about becoming senile'이라는 문장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연구진 간에 'senile'를 어떻게 번역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옥스퍼드 영한사전에 따르면, 'senile'은 '망령난, 노망든'으로 번역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면 연구 참여자인 노인분께서 곡해하시거나 언짢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연구진은 오래 고심하였다. 또한, 번역한 문장 자체가 이미 다른 문항과 일부 중복이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해당 척도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만큼, 연구진 간의 거듭된 회의를 통해,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

6) AAS(Anxiety about Aging Scale)는 Lasher & Faulkender(1993)가 개발한 노화불안 척도

〈표 2-5〉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구성

	문항	출처
상실 불안	(1) 나는 친구들이 모두 먼저 죽을까 봐 두렵다.	임주영 (2014)
	(2) 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걱정된다.	
	(3) 나는 자주 나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한다.	
	(4) 나는 돈이 다 떨어질까 봐 두렵다.	
	(5) 나는 노년기에 할 일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화 불안	(6) 나는 치매에 걸릴까 봐 걱정된다.	
	(7) 나는 기억을 잃을까 봐 걱정된다.	
	(8)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 더 걱정한다.	
	(9) 나는 내 노후 생활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10) 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봐 두렵다.	
	(11) 나는 나이가 들어도 나 스스로에 대해 좋게 생각할 것이다.	
	(12) 나는 거울을 볼 때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싫다.	

둘째, 본 조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항을 수정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는 어려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와 그 수가 몇 명인지를 물어보았다(표 2-6). 2021년 조사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 영역별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인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표 2-6).



〈표 2-7〉 인터넷 접근성 및 활용 문항

문항
문20. 귀댁에서는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전자기기(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하나라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1. 귀댁에서 인터넷(무선인터넷 포함) 접속이 가능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2. 귀하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다음의 각 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까? (1) 메신저(카카오톡, 네이버라인 등)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인스타그램 등)를 이용한다. ..... (2) 정보 및 뉴스를 검색하거나 미디어콘텐츠(영화, 음악, 유튜브 등)를 본다. ..... (3)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예약, 예매를 한다. ..... (4)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송금, 공과금 납부, 주식거래 등)를 한다. ..... (5)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무인주문기계(키오스크)를 이용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넷째, 본 조사에서 응답자의 경제활동 문항은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가져본 경험 그리고 조사 당시 현재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대해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렇지만 본 조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만큼, 위에 언급한 문항을 포함해 일부 문항을 유지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응답자에게 과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현재 은퇴하였는지, 은퇴한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과거 생애 주된 일자리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묻는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다섯째, 응답자 일반사항에는 돌봄 필요 유무, 종교 유무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 연령층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재정지원일자리아업, 장기요양 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제2절 사회적 불안의 측정과 구성

### 1. 사회적 불안의 측정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참고로 본 문항은 작년에 활용된 사회적 불안 문항과 동일하다.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는 .889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신뢰도가 낮은 3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총 24개 문항들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는 .891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신뢰도 분석 결과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75.91	126.536	.430	.888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76.16	124.420	.485	.887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75.86	125.391	.485	.887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75.39	128.338	.340	.890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75.29	128.380	.352	.890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출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75.55	125.122	.521	.886
직장, 학교 등 소속된 조직이나 모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76.15	124.472	.457	.888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75.75	123.207	.563	.885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75.89	124.626	.501	.886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75.81	124.713	.526	.886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75.83	122.779	.632	.883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76.01	124.056	.548	.885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76.26	127.770	.386	.889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76.31	125.781	.430	.888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76.27	122.719	.533	.886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76.28	127.535	.322	.891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 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75.83	127.450	.385	.889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75.46	126.449	.413	.889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75.90	124.291	.528	.886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	75.96	125.138	.490	.887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75.84	124.238	.547	.885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75.96	123.992	.544	.885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5.93	125.733	.484	.887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76.13	124.256	.531	.88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음으로 영역별 사회적 불안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베리맥스 회전을 활용하였다. KMO 측도는 .919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5 미만으로, 구성된 4개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9>와 같다. 구성된 항목은 크게 4개 항목이다. 각 항목의 명칭은, 연구진 간의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48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명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적응/안전, 두 번째 요인은 불공정/경쟁, 세 번째 요인은 불신/무망감,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은 불평등이다.

〈표 2-9〉 요인분석 결과

영역	문항	1	2	3	4
적응/ 안전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689	.065	.320	.052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655	-.056	.281	.051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649	.247	-.095	.274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583	.402	.121	.036
	직장, 학교 등 소속된 조직이나 모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551	.301	.140	-.028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516	.005	.217	-.060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432	.077	.307	.400
불공정 /경쟁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125	.640	.342	.001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126	.604	.310	.185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293	.593	.315	.127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002	.566	.489	.009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111	.526	.179	.373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203	.483	.088	.323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411	.463	-.139	.222
불신/ 무망감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220	.168	.682	.111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198	.088	.645	-.125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183	.179	.611	.245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093	.247	.586	.158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60	.178	.472	.155

영역	문항	1	2	3	4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	.352	.086	.381	.291
불평등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027	.134	.298	.673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286	-.006	.088	.617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092	.469	-.065	.610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056	.418	-.022	.53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2. 관련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변수는, 제3장, 제4장, 제5장에 걸쳐 동일하게 사용될 것이다.

### 가. 사회불안

사회적 불안은 우리 사회에 대한 불안에 관해 묻는 단문을 활용하였고, 사회적 불안의 주요 영역별 문항으로 구성된 지수화된 측정 문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통해 4가지 영역으로 구체화하였다(〈표 2-10〉). 구체적으로,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감, 그리고 불평등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4가지 사회적 불안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적응/안전 불안은 생활 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소속된 지역사회 및 조직에서 도태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 불공정/경쟁 불안은 우리 사회에서 법과 규칙 등이

5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한 경쟁 속에서 느끼는 불안을 지칭한다. 불신/무망감 불안은 정부 및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과 나와 가족의 삶 그리고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말한다. 불평등 불안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불안이다.

〈표 2-10〉 사회적 불안 유형별 측정 변수

유형	문항
사회적 불안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응/안전	법적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직장, 학교 등 소속된 조직이나 모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불안하다.
불공정/경쟁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불신/무망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정부의 위험/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불평등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나. 개인불안

여기서 개인불안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개인의 불안을 측정하는 변수는 아래 <표 2-11>과 같다. 개인이 불안을 느끼는지를 물어보는 단문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Zung의 자기평가불안 척도의 번역본을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불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하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이중훈, 박병탁, 1992).

<표 2-11> 개인불안 측정 변수

유형	문항
개인불안 인지	귀하는 현재 얼마나 불안을 느끼십니까?
	나는 요즘 전보다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다.
	나는 공연히 두려워진다.
	나는 사소한 일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른다.
	나는 신경이 극도로 약해져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나는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다.
	나는 손발이 떨리고 안절부절못한다.
	나는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혹은 허리가 아프다.
	나는 쉽게 무기력하고 피곤해진다.
	나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개인불안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는 어지러워서 고생한다.
	나는 졸도하거나 졸도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나는 무리 없이 숨 쉴 수 있다.
	나는 손에 쥐가 나가거나 저려서 고생을 한다.
	나는 소화가 안 되어 고생을 한다.
	나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내 손은 평소 심하게 땀이 나지도 않고 차지 않게 유지된다.
	나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화끈거린다.
	나는 쉽게 잠이 들고 깊이 잔다.
나는 꿈자리가 사납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다. 노인 불안

노인 불안을 측정하는 변수는 <표 2-12>와 같다. 상실 불안과 노화 불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주영(2014)이 개발한 한국 노인의 불안 척도 중 일부를 차용한 것으로, 총 13개의 세부 문항 중, 한 개의 문항을 제외한, 총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노인 불안 유형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상실 불안은 나이가 들에 따라 가족, 친구 및 지인 등을 떠나보낸 상실감과 사회 및 가족 내에서의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한 불안이다. 노화 불안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기능이 쇠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김재희, 김옥, 2015, p. 191).

<표 2-12> 노인의 불안 측정 변수

유형	문항
상실 불안	나는 친구들이 모두 먼저 죽을까 봐 두렵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걱정된다.
	나는 자주 나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한다.
	나는 돈이 다 떨어질까 봐 두렵다.
	나는 노년기에 할 일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화 불안	나는 치매에 걸릴까 봐 걱정된다.
	나는 기억을 잃을까 봐 걱정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 더 걱정한다.
	나는 내 노후 생활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봐 두렵다.
	나는 나이가 들어도 나 스스로에 대해 좋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거울을 볼 때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싫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제3절 응답자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2-13>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52.9%, 남성이 47.1%로 여성이 약간 더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 비율이 84.8%로 무배우자인 15.2%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71~74세에서 무배우자의 비율이 22.5%로 65~70세의 10.8%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68.92세로, 세부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0세 비율이 62.3%로 71~74세의 37.7%보다 2배가량 더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50.4%로 약 절반을 차지하였고, 중졸 이하는 38.9%, 그리고 대졸 이상은 10.7%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71~74세의 경우, 중졸 이하가 52%로 절반을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은퇴 여부의 경우, 은퇴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0.7%,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였지만 현재 일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9%,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였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20.4%, 그리고 평생 일을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9.9%를 차지하였다. 세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70세의 20.5%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였고 현재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한 반면, 71~74세는 그 비율이 20.2%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65~70세는 은퇴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5.9%로 많았다. 또한, 응답자에게 과거 생애 주된 일자리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6.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본 조사의 특징은 자영업자가 10.6%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는 점이다. 또 65~70세와 71~74세 각각 연령대별로 비슷한 비중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다음으로,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 본인이 56.3% 그리고 배우자인 경우는 41.3% 그리고 부모인 경우는 2.4%로 나왔다. 가족 수는 2인인 경

우가 58.6%로 가장 많았고, 3인이 17.1%, 1인이 12.6%로 나타났다. 71~74세가 1인 가구인 경우는 19.4%로 65~70세의 8.5%보다 2배가량 높았다. 그리고 2인 가족이라는 응답도 71~74세가 61%로 65~70세의 57.1%보다 많았다. 가족유형은 부부가구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다. 자녀동거가구는 65~70세가 33.4%로 71~74세의 21%보다 10%가량 더 많았다.

응답자의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01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0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328만 원인 데 반해, 71~74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246만 원으로 나타났다. 세부 연령별로는 65~70세는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1.2%로 가장 많은 데 반해, 71~74세 노인은 월평균 근로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1.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평균은 약 297만 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서도 65~70세의 평균은 약 323만 원 수준으로 71~74세의 약 253만 원 수준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45.1%, 중소도시가 44.2% 그리고 농어촌이 10.7%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좋다는 응답이 44.6%, 보통이 44.4% 그리고 나쁨이 11%였다. 연령대별로는 65~70세는 좋다는 응답이 51.4%로 절반을 넘었으나, 71~74세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8.3%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표 2-1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65~70세		71~74세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성별	남성	471	47.1	289	46.4	182	48.3
	여성	529	52.9	334	53.6	195	51.7
혼인상태	유배우자	848	84.8	556	89.2	292	77.5
	무배우자	152	15.2	67	10.8	85	22.5
연령대	65~70세	623	62.3	-	-	-	-
	71~74세	377	37.7	-	-	-	-
	평균 연령	68.92		66.97		72.13	
교육수준	중졸 이하	389	38.9	193	31.0	196	52.0
	고졸	504	50.4	335	53.8	169	44.8
	대졸 이상	107	10.7	95	15.2	12	3.2
은퇴 여부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음	99	9.9	59	9.5	40	10.6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였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음	290	29.0	150	24.1	140	37.1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음	204	20.4	128	20.5	76	20.2
	아니오	407	40.7	286	45.9	121	32.1
과거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6	26.6	155	24.9	111	29.4
	임시직 임금근로자	55	5.5	27	4.3	28	7.4
	일용직 임금근로자	33	3.3	8	1.3	25	6.6
	고용주	23	2.3	16	2.6	7	1.9
	자영업자	106	10.6	67	10.8	39	10.3
	무급가족종사자	11	1.1	5	.8	6	1.6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563	56.3	330	53.0	233	61.8
	배우자	413	41.3	282	45.3	131	34.7
	부모	24	2.4	11	1.8	13	3.4
가족 수	1인	126	12.6	53	8.5	73	19.4
	2인	586	58.6	356	57.1	230	61.0
	3인	171	17.1	129	20.7	42	11.1
	4인	93	9.3	71	11.4	22	5.8
	5인 이상	24	2.4	14	2.2	10	2.7
	평균 가족 수	2.31		2.43		2.12	

56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구분		전체		65~70세		71~74세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가족 유형	1인 가구	126	12.6	53	8.5	73	19.4
	부부가구 (응답자 부부 2인만)	567	56.7	343	55.1	224	59.4
	(응답자의) 자녀동거가구	287	28.7	208	33.4	79	21.0
	(응답자의) 부모동거가구 (부모+응답자)	12	1.2	12	1.9	-	-
	(응답자의) 부모와 자녀 동거가 구(부모+응답자+자녀)	8	.8	7	1.1	1	.3
지난 3개월 월평균 근로소득	소득 없음	9	.9	7	1.1	2	.5
	150만 원 미만(0원 제외)	198	19.8	118	18.9	80	21.2
	150~300만 원 미만	194	19.4	132	21.2	62	16.4
	300~450만 원 미만	82	8.2	57	9.1	25	6.6
	450만 원 이상	117	11.7	93	14.9	24	6.4
	근로소득 평균	301.25		327.64		245.61	
지난 3개월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 원 미만	288	28.8	147	23.6	141	37.4
	150~300만 원 미만	320	32.0	192	30.8	128	34.0
	300~450만 원 미만	188	18.8	125	20.1	63	16.7
	450만 원 이상	204	20.4	159	25.5	45	11.9
	가구소득 평균	297.28		323.60		253.78	
지역	대도시	451	45.1	283	45.4	168	44.6
	중소도시	442	44.2	279	44.8	163	43.2
	농어촌	107	10.7	61	9.8	46	12.2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110	11.0	41	6.6	69	18.3
	보통	444	44.4	262	42.1	182	48.3
	좋음	446	44.6	320	51.4	126	33.4
합계		1,000	100	1,000	100	1,000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3장

##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제2절 노인의 사회적 불안

제3절 소결



# 제 3 장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

##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 1. 분석의 배경

사회적 불안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나 불신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서 유발되는 불안으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불안이다(박수애, 송관재, 2005, p. 4).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실존에 대한 불확실한 위협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위협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수애, 송관재, 2005, p. 4).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인간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유발하며, 신체 장애나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위축된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박수애, 송관재, 2005; 이종택, 김범준, 최인철, 박수애, 2008, p. 24).

즉 사회적 불안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도 유기적 관계가 있으며, 이들 간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인들은 급격한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 등과 같은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급변을 최일선에서 경험한 집단이다. 앞선 연구들(박수애, 송관재, 2005; 이종택 외, 200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사건과 관련이 높음을 고려할 때, 한국 노인의

사회적 불안은 타 세대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해진, 이재창(2006)의 연구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사회적 불안이 6.96(1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이 6.22로 가장 낮았다. 즉, 많은 사회적 사건과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사회적 불안이 타 세대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사회적 불안에 대해 노인집단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노년기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경향성은 ‘선택, 최적화, 보상(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Baltes & Baltes(1990)의 ‘선택, 최적화, 보상 이론’에 따르면 노인은 인생에 발달과정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해 노화에 따른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는다. 노인은 노년기에 필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노화로 인한 기능손상 및 감퇴에도 이러한 상실을 보상하고, 주어진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Selection)하여 보유한 능력을 최적화(Optimization)함으로써 자신에게 보상(Compensation)하는 성공적 노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Baltes & Baltes, 1990). 이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서도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이러한 ‘적응’기제가 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불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노년기 사회적 불안의 특수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노인들은 65세 이상이라는 넓은 연령스펙트럼 안에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특히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65~74세의 노인은 과거의 노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활동 비율이 높으며, 주관적 건강수준도 좋게 나타나는 등 새로운 특성을 보인다. 즉, 노인집단 내에서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이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불안이라면, 노인이 겪는 노화의 과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불안을 느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노인 불안(통상 ‘노화 불안’이라 통칭)은 노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실에 대한 불안과 근심, 신체적 건강과 경제 상태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사회심리적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불안을 정의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Lasher & Faulkender, 1993; 임정숙, 2018에서 재인용). 노인들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한 ‘불안’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불안 외에도 노년기에 노인들에게 중요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화에 대한 불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 수준, 사회적 불안의 세부 요인별 불안 수준, 개인불안 수준, 노화 과정에서 느끼는 노인 불안 수준에 대한 비교를 통해 노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안들의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분석의 목적

이 장은 한국 노인이 느끼는 불안의 수준을 ‘사회불안 인지’, ‘사회적 불안’, ‘개인불안’, ‘노인 불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적 불안 유형은 앞의 제2장에서 요인분석으로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① 적응/안전, ② 불공정/경쟁, ③ 불신/무망, ④ 불평등으로 구분하였다.

## 3. 분석의 방법

이 장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의 전반적 분포를 살펴보고, 사회적 불안 인식,

사회적 불안, 개인불안, 노인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검토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교, 거주 지역, 주관적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은 경제활동, 경제상태, 정부지원 수준에 따라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 현재 경제활동 참여 상태, 일자리 만족도,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는지 여부, 은퇴 후 경과 기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경제상태는 개인의 근로소득 수준, 가구의 균등화 소득 수준, 가구 재산 수준, 주관적 소득 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정부지원 수준은 기초 연금, 국민·지역 연금, 재정지원일자리, 장기요양·노인돌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넷째, 노인의 사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에 대한 신뢰도 수준, 사회이동(현세대 및 미래 세대) 가능성에 대한 인식,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과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노인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불안 수준은 노인의 박탈 경험, 차별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경험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수준은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삶의 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불안 수준과 함께 각 특성의 사회 불안 인지, 개인불안, 노인 불안의 수준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렇게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 비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1) 활용 변수 정의

영역	변수명	변수설명	변수값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성별	1=남 / 0=여
	연령	연령	연속변수
	교육수준	교육수준	1=중졸 이하 / 2=고졸 / 3=대졸 이상
	혼인상태		1=유배우 / 0=무배우
	가구규모	가구원 수	연속변수
	거주지역	거주지역	1=대도시 / 0=그 외 지역
개인의 경험	박탈 경험 여부	문9. 7개 종류 중 1개라도 경험 시	1=유 / 0=무
	차별 경험 여부	문10. 8개 종류 중 1개라도 경험 시	1=유 / 0=무
	사회적 사건 경험 여부	문11. 2개 종류 중 1개라도 경험 시	1=유 / 0=무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상황 경험 여부	문15. 6개 종류 중 1개라도 경험 시	1=유 / 0=무
사회적 인식	사회신뢰도	문3.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믿을 수 없다~ 5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
	지위 상승 가능성	문4. 일생 동안 노력한다면 지위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1 전혀 없다~ 5 매우 높다
	미래 사회이동성	문5. 다음 세대의 지위 상승 가능성	1 매우 낮아질 것이다~ 5. 매우 높아질 것이다
	차별 인식	문6. 성, 연령, 장애, 외모, 학력으로 인한 차별 인식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5. 매우 심각하다.
	불평등 인식	문6.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 소득, 자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5. 매우 심각하다.
사회적 관계망	심리적 지원망 수	문17.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인원수
개인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문23. 자신에 대한 생각 중 (1), (6)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회복탄력성	문23. 자신에 대한 생각 중 (2)~(6)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삶의 만족도	문24.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 매우 만족한다
개인 건강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1=나쁨 / 0=보통+ 좋음
개인 경제적 요인	재산	재산수준	범주별 중간값 환산
	소득	소득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연속변수
	주거형태	주거소유형태	1=자가 / 0=그 외
	은퇴 후 경과기간	은퇴 후 경과기간	2021-은퇴 연도
	현재 근로 여부	현재 근로 여부	1=근로 / 0=미근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제2절 노인의 사회적 불안

이 절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과 노인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노인의 특성별 사회적 불안 수준은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노인의 사회에 대한 인식, 노인의 개인적 경험,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사회적 불안은 최소 1점에서 최대 4.6~5점이며, 평균은 사회적 불안 수준의 불평등 영역이 3.71점으로 가장 높아서 불안 수준이 가장 높다. 반면에 적응/안전 영역의 평균이 3.05로 가장 낮다.

〈표 3-2〉 사회적 불안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단위: 점)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사회 불안	사회불안 인지	1	5	3.49(0.916)
	사회불안	1	4.6	3.30(0.486)
	(영역1) 적응/안전	1	4.6	3.05(0.628)
	(영역2) 불공정/경쟁	1	5	3.41(0.594)
	(영역3) 불신/무망	1	4.8	3.19(0.592)
	(영역4) 불평등	1	5	3.71(0.611)

주: 사회불안은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인지 혹은 불안 수준이 높다는 의미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2. 연령별 사회적 불안

노인의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가 3.49로 가장 높았다. 표준편차는 .92로 타 척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정도의 차이가 타 항목들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불안은 3.30으로 노인들은 보통 수준 이상의 사회적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노인 불안과 개인불안은 각각 2.94와 2.15로 노인들은 보통 이하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불안 및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정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불안의 세부 요인들별 수준을 살펴보면, 불평등에 대한 불안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불공정/경쟁 3.41, 불신/무망 3.19, 적응/안전 3.05 순으로 불안 수준이 높았다.

〈표 3-3〉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사회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		
평균	3.49	3.30	3.05	3.41	3.19	3.71	2.15	2.94
표준편차	.92	.49	.63	.59	.59	.61	.48	.61

주: 1) 사회불안 인지, 사회불안, 노인 불안 척도는 1(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 등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불안 원척도는 1(그렇지 않다)~4점(항상 그렇다) 등 4점 척도로 구성되어 5점 척도로 변환하였음.

3) 노인 불안은 상실 불안과 노화 불안을 포괄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3-1〉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이러한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는 71~74세 3.54, 65~70세 3.45로 71~74세가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사회적 불안 지수는 두 연령집단 모두 3.30으로 연령집단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불안 요인별 분포에서도 불공정/경쟁과 불신/무망은 65~70세가 높고, 적응/안전과 불평등은 71~74세가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매우 적었다. 개인불안은 71~71세는 2.19. 65~70세는 2.13으로 71~74세가 개인불안을 더 느끼고 있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노인 불안은 71~74세는 3.00, 65~70세는 2.89로 71~74세가 노인 불안을 더 느끼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령별 노인 불안 수준은 71~74세가 65~70세에 비해 높았다.

〈표 3-4〉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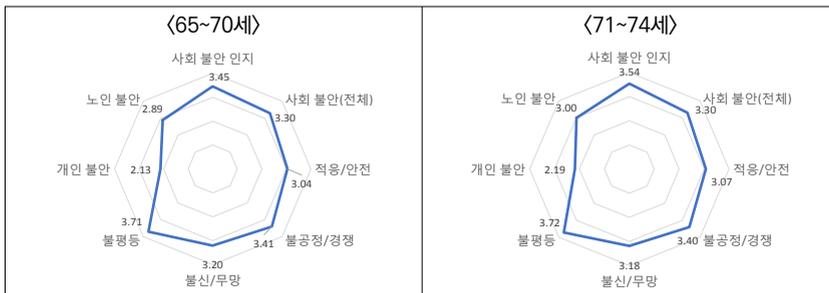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사회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			
전체	3.49	3.30	3.05	3.41	3.19	3.71	2.15	2.94	
연령	65~70세	3.45	3.30	3.04	3.41	3.20	3.71	2.13	2.89
	71~74세	3.54	3.30	3.07	3.40	3.18	3.72	2.19	3.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3-2〉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3. 사회적 불안 인지·사회적 불안의 하위 영역·개인불안·노인 불안의 관계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전체의 상관관계는 .280으로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세부 요인과의 관계에서는 불공정/경쟁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인 불안과의 상관관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은 세부 요인들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으며, 불평등의 경우 타 요인들에 비해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과 노인 불안의 상관관계도 중간수준 정도를 보였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세부 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불공정/경쟁과 불신/무망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개인불안의 경우 타 사회적 불안들과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 불안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세부 요인들 중 적응/안전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노인의 사회에 대한 적응과 노화에 대한 불안과의 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3-5〉 사회적 불안/하위 영역/개인불안/노인 불안의 상관관계

구분	사회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사회불안 인지	1							
사 회 불 안	전체	.280**	1					
	적응/안전	.167**	.818**	1				
	불공정/경쟁	.291**	.865**	.545**	1			
	불신/무망	.196**	.825**	.602**	.615**	1		
	불평등	.253**	.626**	.301**	.549**	.350**	1	
개인불안	.059	.183**	.291**	.125**	.216**	-.178**	1	
노인 불안	.155**	.464**	.489**	.362**	.332**	.234**	.225**	1

주: \*\*p<0.01,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다음으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교육수준, 가구형태, 혼인상태, 거주지역, 주관적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개인불안, 노인 불안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반면,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은 남성이 더 높았다. 세부 영역별로는 남성은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에서 여성보다 더 높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여성은 적응/안전에서 남성보다 더 높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개인불안, 노인 불안은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더 높은 불안을 느끼며,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불안 수준이 높았다. 반면,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은 고졸 학력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부 영역별로는 적응/안전은 중졸 이하가 더 불안을 느끼고 학력이 낮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반면, 불공정/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영역은 고졸의 불안이 높고, 중졸 이하의 불안이 낮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개인불안, 노인 불안은 1인 가구(독거노인)의 불안 수준이 타 가구형태에 비해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은 부부가구에서 높은 특성을 보인다. 세부 영역별로는 불공정/경쟁, 불평등은 1인 가구에서 불안 수준이 높은 반면, 적응/안전, 불신/무망은 부부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무배우인 경우 대부분의 불안에서 유배우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응/안전 영역에서는 유배우인 경우에 불안이 더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불안 정도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만,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개인불안의 경우 중소도시가 더 높았으나, 그 차이가 매우 적었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에서는 모든 요인들에서 농어촌의 불안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불평등 요인을 제외한 모든 불안에서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지할수록 불안 수준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개인불안, 노인 불안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은 요인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특히나 적응/안전의 경우 그 외 세 가지 요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여성, 부부가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배우인 경우 적응/안전에서의 불안이 높았다.

7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표 3-6〉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전체		3.49	3.30	3.05	3.41	3.19	3.71	2.15	2.94
성별	남성	3.44	3.31	3.04	3.42	3.21	3.73	2.11	2.92
	여성	3.53	3.29	3.06	3.39	3.18	3.69	2.19	2.9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54	3.29	3.12	3.39	3.16	3.64	2.26	3.01
	고졸	3.48	3.31	3.01	3.42	3.22	3.77	2.10	2.91
	대졸 이상	3.27	3.29	3.00	3.42	3.20	3.69	2.00	2.79
가구 형태	1인 가구	3.65	3.32	3.01	3.51	3.15	3.76	2.19	2.98
	부부가구	3.47	3.34	3.11	3.44	3.23	3.73	2.17	2.95
	자녀동거가구	3.45	3.21	2.94	3.30	3.14	3.66	2.10	2.87
	기타 가구1)	3.40	3.33	3.04	3.49	3.33	3.58	2.30	3.11
혼인 상태	유배우	3.45	3.29	3.06	3.39	3.19	3.70	2.15	2.92
	무배우	3.70	3.34	3.03	3.52	3.19	3.77	2.19	3.03
거주 지역	대도시	3.42	3.28	3.04	3.37	3.14	3.72	2.06	2.90
	중소도시	3.54	3.29	3.01	3.43	3.23	3.66	2.23	2.95
	농어촌	3.53	3.43	3.27	3.49	3.25	3.87	2.22	3.00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쁘다	3.67	3.42	3.18	3.53	3.36	3.71	2.39	3.10
	보통	3.55	3.30	3.04	3.41	3.19	3.73	2.21	2.94
	좋다	3.38	3.27	3.03	3.37	3.15	3.70	2.03	2.89

주: 1) 기타 가구는 부모동거가구, 부모자녀동거가구, 그 외 기타 가구를 포함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5. 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노인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은 경제활동(현재의 경제 활동과 은퇴), 경제상태, 정부지원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가. 경제활동과 사회적 불안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검토하였다.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와 개인불안, 노인 불안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에서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경우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요인별로는 적응/안전과 불평등 불안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현재 근로 노인의 취업상태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61.1%가 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중 32.9%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 중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상용직의 비율은 14.4%로 매우 낮았다. 즉, 노인에게 경제활동은 자발적 경제활동이 아닐 수도 있으며, 타 연령군에서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제활동과는 다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따른 불안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평균, 노인 불안은 일용직에서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다. 다만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하위영역별로는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영역에서의 불안 수준이 일용직에서 가장 높았으며, 불평등 불안은 임시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인불안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불안 수준이 낮은 경제활동 참여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는 고용주가 가장 낮은 불안 수준을 보였으며,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평균, 적응/안전 불안, 불신/무망 불안, 개인불안은 무급가족종사자, 불공정/경쟁 불안, 불평등 불안은 비경제활동인구, 노인 불안은 자영업자가 가장 낮은 불안 수준을 보였다. 즉, 무급가족종사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 참여자의 일자리 만족 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은 일자리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표 3-7〉 경제활동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전체	3.49	3.30	3.05	3.41	3.19	3.71	2.15	2.94	
경제 활동 여부	미취업	3.56	3.29	3.02	3.41	3.20	3.67	2.17	2.94
	취업 중	3.44	3.31	3.07	3.40	3.19	3.74	2.15	2.93
현재 경제 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3.34	3.30	3.15	3.36	3.22	3.60	2.27	2.98
	임시직	3.61	3.38	3.07	3.59	3.16	3.90	2.07	3.06
	일용직	3.83	3.50	3.34	3.60	3.34	3.82	2.15	3.21
	고용주	3.21	3.31	3.18	3.38	3.21	3.59	2.23	2.95
	자영업자	3.42	3.28	3.01	3.37	3.17	3.78	2.11	2.85
	무급가족종사자	3.44	3.21	2.97	3.30	3.14	3.59	1.99	3.02
	실업자	-	-	-	-	-	-	-	-
	비경제활동인구	3.36	3.23	3.35	3.17	3.17	3.20	2.60	3.03
일자리 만족도	불만족	3.74	3.44	3.11	3.59	3.38	3.85	2.38	3.02
	보통	3.61	3.30	3.01	3.44	3.19	3.74	2.15	2.94
	만족	3.25	3.29	3.10	3.35	3.14	3.74	2.08	2.9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현재 근로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와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평등을 제외하고 은퇴하지 않은 집단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은퇴한 집단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전체, 적응/안전 불안, 불공정/경쟁 불안, 불평등 불안, 노인 불안의 수준이 높았으며, 평생 일한 적이 없는 경우는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불신/무망 불안, 개인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은퇴라는 생애 사건은 노인의 사회적 불안과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은퇴 이후의 경과 기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과 노인 불안의 경우 5~10년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인 반면,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와 개인불안은 10~15년 미만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5년 이상의 경우 불신/무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은퇴 직후보다는 5~10년쯤에 전체적인 사회적 불안이 가장 높으며,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안 수준이 낮아짐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3-8〉 은퇴와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전체	3.49	3.30	3.05	3.41	3.19	3.71	2.15	2.94	
은퇴 여부	은퇴 안 함	3.39	3.24	2.99	3.32	3.12	3.69	2.13	2.88
	평생 일한 적 없음	3.62	3.31	3.04	3.39	3.28	3.67	2.19	2.91
	은퇴함	3.54	3.35	3.11	3.48	3.24	3.74	2.16	2.99
은퇴 후 경과 기간	5년 미만	3.43	3.28	3.08	3.40	3.15	3.64	2.12	2.90
	5~10년 미만	3.57	3.42	3.17	3.58	3.30	3.80	2.16	3.06
	10~15년 미만	3.67	3.36	3.12	3.48	3.26	3.75	2.27	3.05
	15년 이상	3.42	3.26	2.98	3.35	3.18	3.71	2.09	2.8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나. 경제상태와 사회적 불안

노인의 경제상태와 사회적 불안 수준은 개인의 근로 소득, 가구 균등화 소득, 가구 재산, 주관적 소득 계층에 따라 살펴보았다.

개인의 근로소득은 소득이 없는 집단을 제외하면,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전체, 적응/안전 불안, 불평등 불안, 개인불안, 노인 불안은 소득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불안이 감소하지만, 45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에서는 300~450만 원 미만 집단보다 불안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안에서도 450만 원 이상 집단이 그 전 집단에 비해 불안 수준이 높으며, 불공정/경쟁 불안의 경우 150~300만 원 집단의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사회적 불안의 요인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가구의 균등화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개인불안과 노인 불안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는 1,000만 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하지만, 1,000만 원 이상의 경우 가장 높은 불안 수준을 보여, 고소득 가구 집단에서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이 높다고 인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의 재산수준에 따라서는 가구의 재산수준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이 낮다고 인지하여, 가구 균등화 소득과는 상이한 분포를 보인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경우 전체 값에서는 가구의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10억 원 이상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는 적응/안전과 불공정/경쟁 불안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불신/무망 불안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5억 원 이상에서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불평등 불안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개인불안과 노인 불안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이 상층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전체,

불공정/경쟁 불안, 불신/무망 불안, 불평등 불안, 개인불안, 노인 불안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적응/안전 불안은 하층이라고 생각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득 또는 재산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이 낮은 경향이 있으나, 고소득의 경우 사회적 불안 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 3-9〉 경제상태와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전체	3.49	3.30	3.05	3.41	3.19	3.71	2.15	2.94	
개인 근로 소득 수준	없음	3.56	3.29	3.03	3.40	3.21	3.66	2.17	2.95
	150만 원 미만	3.67	3.33	3.12	3.43	3.12	3.82	2.19	3.03
	150~300만 원 미만	3.44	3.33	3.08	3.45	3.20	3.78	2.15	2.97
	300~450만 원 미만	3.24	3.28	3.07	3.34	3.19	3.69	2.15	2.93
	450만 원 이상	3.31	3.27	2.98	3.38	3.22	3.68	2.07	2.73
가구 균등화 소득 수준	150만 원 미만	3.64	3.33	3.11	3.44	3.19	3.73	2.26	3.05
	150~300만 원 미만	3.56	3.31	3.05	3.44	3.20	3.74	2.16	2.93
	300~500만 원 미만	3.33	3.25	2.98	3.34	3.18	3.66	2.11	2.90
	500~1,000만 원 미만	3.27	3.30	3.08	3.37	3.22	3.71	2.04	2.83
	1,000만 원 이상	3.75	3.25	2.75	3.64	3.17	3.56	1.70	2.63
가구 재산 수준	5천만 원 미만	3.85	3.47	3.23	3.65	3.31	3.81	2.36	3.09
	5천만 원~1억 원 미만	3.67	3.36	3.10	3.52	3.26	3.71	2.24	2.93
	1억 원~2억 원 미만	3.55	3.35	3.04	3.52	3.20	3.80	2.12	2.99
	2억 원~5억 원 미만	3.42	3.22	2.95	3.30	3.10	3.71	2.14	2.92
	5억 원~10억 원 미만	3.36	3.21	3.02	3.27	3.14	3.57	2.18	2.86
	10억 원 이상	3.33	3.38	3.19	3.41	3.32	3.73	2.03	2.93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3.60	3.32	3.02	3.46	3.20	3.76	2.19	2.99
	중층	3.37	3.29	3.08	3.36	3.20	3.65	2.12	2.89
	상층	3.34	3.27	3.09	3.31	3.15	3.68	2.10	2.8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다. 정부지원과 사회적 불안

정부지원과 노인의 사회적 불안은 기초연금, 국민·지역 연금, 재정지원 일자리(노인일자리사업 등), 장기요양 또는 노인돌봄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기초연금은 모든 불안요소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불안 수준이 미수급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불안 수준이 높다는 앞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국민·지역 연금의 경우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내 불평등 요인의 경우 연금을 받는 집단에서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반면,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내 불신/무망과 개인불안, 노인 불안은 연금을 받지 않는 집단에서의 불안이 높았다.

재정지원일자리리의 경우 국민·지역 연금과 유사하게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내 불평등 요인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에서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반면, 그 외 불안들(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전체,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개인불안, 노인 불안)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에서의 불안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장기요양 또는 노인돌봄서비스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나 장기요양 또는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와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4.50과 4.25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미수급자에 비해 적응/안전 불안과 노인 불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와 불평등 불안 수준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집단에서 높았던 반면, 개인불안, 노인 불안은 기초 연금을 제외하고 그 외 제도들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불안 수준이 더 낮았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은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정부 차원의 소득지원을 받는 집단에서 더 높았다. 이 두 제도는 개인의 소득과 관련성이 높은 제도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서비스 이용 대상자이며,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다는 앞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두 제도와 달리 재정지원일자리와 장기요양 또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원을 받지 않는 집단에서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표 3-10〉 정부지원과 노인의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전체	3.49	3.30	3.05	3.41	3.19	3.71	2.15	2.94	
기초 연금	유	3.57	3.32	3.08	3.43	3.21	3.72	2.21	3.00
	무	3.41	3.28	3.02	3.38	3.18	3.70	2.10	2.88
국민·지역 연금	유	3.53	3.30	3.05	3.41	3.15	3.79	2.03	2.91
	무	3.46	3.30	3.05	3.40	3.22	3.67	2.22	2.95
재정지원 일자리	유	3.72	3.15	2.88	3.26	2.89	3.83	1.83	2.94
	무	3.48	3.30	3.06	3.41	3.20	3.71	2.16	2.94
장기요양 노인돌봄	유	4.50	2.75	2.00	2.79	2.58	4.25	1.63	2.55
	무	3.48	3.30	3.05	3.41	3.19	3.71	2.15	2.94
국민기초 생활보장	유	3.85	3.45	2.95	3.82	3.43	3.73	2.17	2.90
	무	3.46	3.29	3.06	3.37	3.17	3.71	2.15	2.9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6. 사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노인의 사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은 사회에 대한 신뢰도 인식,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 가. 사회신뢰도와 사회적 불안

노인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적 불안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부정적일수록 모든 사회적 불안과 개인불안, 노인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긍정적일수록 불안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3-11〉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용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전체	3.49	3.30	3.05	3.41	3.19	3.71	2.15	2.94	
신뢰도 인식	부정	3.83	3.52	3.20	3.69	3.50	3.83	2.26	2.98
	보통	3.45	3.29	3.02	3.40	3.19	3.71	2.15	2.92
	긍정	3.35	3.20	3.01	3.27	3.04	3.66	2.10	2.93

주: 부정은 '전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보통은 '보통이다', 긍정은 '믿을 수 있다',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나.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노인의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수준은 현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과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이 낮다(부정적 인식)고 인식할 경우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적응/안전 불안과 불평등 불안, 노인 불안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낮은 불안 수준을 보였다.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과 사회적 불안 수준도 현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이 낮다(부정적 인식)고 인식할 경우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식과 불평등 불안, 노인 불안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낮은 불안 수준을 보였다.

〈표 3-12〉 사회이동 인식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전체	3.49	3.30	3.05	3.41	3.19	3.71	2.15	2.94	
현세대의 상승 가능성	부정	3.87	3.54	3.23	3.69	3.55	3.81	2.21	3.02
	보통	3.45	3.28	3.02	3.39	3.20	3.68	2.19	2.89
	긍정	3.34	3.20	3.02	3.27	2.99	3.72	2.05	2.97
다음 세대의 상승 가능성	부정	3.83	3.59	3.32	3.73	3.52	3.91	2.26	3.12
	보통	3.38	3.26	3.00	3.37	3.19	3.60	2.23	2.86
	긍정	3.45	3.21	2.98	3.28	3.01	3.78	1.97	2.95

주: 부정은 '전혀 없다', '매우 낮다', 보통은 '약간 낮다', 긍정은 '약간 높다', '매우 높다'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다.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노인의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이 심각(부정적 인식)하다고 인식한 집단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불안의 경우 차별 인식을 긍정적(전혀 심각하지 않다~보통이다)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개인불안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불평등 인식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개인불안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개인 불안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아 결과의 유의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3〉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전체	3.49	3.30	3.05	3.41	3.19	3.71	2.15	2.94	
차별 인식	부정	3.64	3.43	3.22	3.54	3.32	3.80	2.12	3.08
	보통	3.48	3.27	3.03	3.33	3.15	3.76	2.17	2.92
	긍정	3.27	3.13	2.84	3.25	3.03	3.58	2.17	2.74
불평등 인식	부정	3.56	3.40	3.15	3.52	3.29	3.80	2.17	3.03
	보통	3.40	3.12	2.89	3.17	2.99	3.62	2.19	2.73
	긍정	3.23	3.00	2.74	3.09	2.93	3.41	2.14	2.66

주: 부정은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보통은 '보통이다', 긍정은 '심각하지 않다', '전혀심각하지 않다'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라.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노인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수준은 ‘고집이 세고 폐쇄적’,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음’, ‘적응적, 생산적’, ‘신선한 발상 등 배울 점 많음’의 네 가지 인식수준에 따라 살펴 보았다.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경우 젊은 세대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두 가지 항목인 ‘고집이 세고 폐쇄적’,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음’의 항목에서 젊은 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개인 불안과 노인 불안의 경우 일부 다른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위 두 문항과 관련하여 젊은 세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젊은 세대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두 가지 항목인 ‘적응적, 생산적’과 ‘신선한 발상 등 배울 점 많음’의 항목에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와 불공정/경쟁 불안, 불평등 불안의 경우 젊은 세대를 ‘적응적, 생산적’으로 보는 집단의 불안 수준이 높았다. ‘신선한 발상 등 배울 점이 많음’으로 젊은 세대를 인식하는 경우 불신/무망 불안과 개인불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안 수준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는 젊은 세대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항목(‘고집이 세고 폐쇄적’,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음’)과 긍정적으로 표현한 항목(‘적응적, 생산적’, ‘신선한 발상 등 배울 점 많음’)의 불안 수준이 상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14〉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전체	3.49	3.30	3.05	3.41	3.19	3.71	2.15	2.94	
고집이 세고 폐쇄적	비동의	3.46	3.20	2.97	3.27	3.10	3.65	2.12	2.88
	보통	3.42	3.32	3.10	3.42	3.18	3.73	2.20	3.00
	동의	3.61	3.48	3.17	3.67	3.40	3.81	2.17	2.97
타인을 배려 못 하거나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음	비동의	3.42	3.13	2.93	3.17	3.02	3.59	2.09	2.87
	보통	3.50	3.30	3.08	3.37	3.22	3.68	2.26	2.94
	동의	3.53	3.44	3.13	3.63	3.31	3.84	2.12	2.99
적응적, 생산적	비동의	3.47	3.24	2.98	3.33	3.22	3.56	2.30	2.88
	보통	3.46	3.32	3.09	3.40	3.23	3.71	2.17	2.96
	동의	3.51	3.31	3.05	3.44	3.16	3.77	2.09	2.94
신선한 발상 등 배울 점 많음	비동의	3.57	3.24	2.90	3.41	3.27	3.48	2.26	2.79
	보통	3.36	3.29	3.04	3.39	3.18	3.69	2.23	2.94
	동의	3.57	3.34	3.12	3.42	3.17	3.81	2.05	2.9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7.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불안

노인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불안 수준의 관계는 박탈 경험, 차별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박탈, 차별, 사회적 사건,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등을 경험한 집단에서 모든 유형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특성을 살펴보면, 박탈 경험 여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가 0.33 차이를 보여, 여타의 개인적 경험 여부에 따른 불안 수준보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내에서는 박탈 경험 여부에 따라 불평등 불안의 차이가 컸다.

차별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에서 적응/안전과

불신/무망의 불안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불안과 노인 불안은 다른 개인적 경험 여부에 비해 차별 경험 여부에 따라 불안 수준이 높았다.

사회적 사건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따른 인지의 차이가 모든 경험 중 가장 적었다. 또한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요인 중 적응/안전의 불안이 사회적 사건 경험에 따른 차이가 가장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요인 중 불평등 불안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15〉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전체	3.49	3.30	3.05	3.41	3.19	3.71	2.15	2.94	
박탈 경험	없음(A)	3.36	3.25	3.01	3.35	3.15	3.64	2.08	2.89
	있음(B)	3.69	3.38	3.11	3.49	3.27	3.83	2.27	3.01
	=B-A	0.33	0.13	0.10	0.14	0.12	0.19	0.19	0.12
차별 경험	없음(A)	3.32	3.21	2.95	3.31	3.09	3.64	2.02	2.81
	있음(B)	3.63	3.38	3.14	3.49	3.28	3.77	2.27	3.05
	=B-A	0.31	0.17	0.19	0.18	0.19	0.13	0.25	0.24
사회적 사건 경험	없음(A)	3.43	3.21	2.94	3.32	3.12	3.61	2.05	2.80
	있음(B)	3.53	3.36	3.13	3.47	3.24	3.78	2.22	3.03
	=B-A	0.10	0.15	0.19	0.15	0.12	0.17	0.17	0.23
코로나19로 인한 경험	없음(A)	3.28	3.19	3.01	3.25	3.12	3.52	2.15	2.85
	있음(B)	3.59	3.35	3.07	3.48	3.23	3.81	2.15	2.98
	=B-A	0.31	0.16	0.06	0.23	0.11	0.29	0.00	0.13

주: 1) 박탈 경험: 건강, 돌봄, 주거에서의 박탈 경험 여부.

2) 차별 경험: 성별, 연령, 장애, 외모,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 소득 및 재산, 지역에 의한 차별 경험 여부.

3) 사회적 사건 경험: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가족이 있는지 여부.

4) 코로나19로 인한 경험: 건강악화 또는 치료중단, 사회활동 감소 및 고립, 고용, 소득, 돌봄, 가족 간 갈등 문제 경험 여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8. 삶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수준은 노인의 개인적 요소인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삶의 만족도의 세 가지 차원으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사회적 불안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으나,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중 불평등 불안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에서 낮았다. 또한 개인불안의 경우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불안 수준의 차이가 매우 컸으며, 적응/안전 불안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차이가 컸다.

회복탄력성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요인 중 불공정/경쟁과 불평등에서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삶의 만족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6〉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전체	3.49	3.30	3.05	3.41	3.19	3.71	2.15	2.94	
자아존중감	낮음(A)	3.54	3.42	3.27	3.50	3.34	3.67	2.42	3.04
	높음(B)	3.46	3.24	2.93	3.36	3.12	3.73	2.01	2.88
	=A-B	0.08	0.18	0.34	0.14	0.22	-0.06	0.41	0.16
회복탄력성	낮음(A)	3.47	3.30	3.13	3.36	3.23	3.59	2.37	2.98
	높음(B)	3.50	3.30	2.98	3.45	3.16	3.82	1.96	2.89
	=A-B	-0.03	0.00	0.15	-0.09	0.07	-0.23	0.41	0.09
삶의 만족도	부정(A)	3.71	3.58	3.37	3.69	3.50	3.86	2.43	3.20
	보통	3.62	3.29	2.99	3.42	3.19	3.73	2.19	2.95
	긍정(B)	3.32	3.25	3.03	3.34	3.12	3.67	2.06	2.87
	=A-B	0.39	0.33	0.34	0.35	0.38	0.19	0.37	0.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 노인이 느끼는 불안의 수준을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사회적 불안’, ‘개인불안’, ‘노인 불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노인이 느끼는 불안의 수준을 검토한 결과 노인들은 사회적 불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통 이상(3점 이상)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반면, 개인적 차원인 개인불안과 노인 불안은 보통 이하(3점 이하)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에서는 적응/안전 불안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었으며, 불평등 불안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불안 수준은 노인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1인 가구인 경우, 농어촌 거주자인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우 대부분의 불안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은 타 불안 변인들과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남성, 고졸 학력 이상, 부부가구에서 높은 특성을 보였다. 세부 요인별로는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영역은 남성, 고졸 학력 이상인 경우 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적응/안전은 여성, 부부가구, 저학력, 유배우인 경우 불안 수준이 높았다.

둘째,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이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 그러나 은퇴한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은퇴 후 5~10년이 지난 노인은 사회적 불안과 노인 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15년 이상은 낮게 나타나 노인의 경우 은퇴 직후 5~10년의 불안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의 경제활동은 청중년의 경제활동과 다른 의미로 접근해야 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 노인의 삶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가구소득과 재산소득에서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이 U형을 보인다. 가구소득의 경우 1,000만 원을 기준으로 U형을 보이며, 가구의 재산수준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U형을 보였다. 반면,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지만, 재산은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정부지원 정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은 소득지원(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을 받는 경우 불안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초고소득 집단의 경우 불안 수준이 높았다.

셋째, 노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우,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차별과 불평등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 젊은 세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는 차별, 박탈, 사회적 사건, 코로나 19로 인한 문제 등을 경험한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불안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개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보편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부 요인에서 저학력, 저소득이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그 반대인 경우도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 제4장

### 노인의 소득과 사회적 불안

제1절 분석내용과 분석방법

제2절 소득분위별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내용 비교

제3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소득의 영향 분석

제4절 소결



## 제4장 노인의 소득과 사회적 불안

### 제1절 분석내용과 분석방법

#### 1. 분석의 개요

이 장에서는 소득분위별로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내용이 상이한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소득이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불안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경험하는 불안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요인이 유사한 집단의 사회적 불안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경제적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소득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통상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하여 불안의 수준이 더 높은 것이라 예상된다. OECD나 ILO와 같은 국제기구도 고용불안,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회적 불안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은 “높은 수준의 불평등은 높은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며,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전망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다”고 경고했다(OECD, 2015, pp. 12-13, 이현주 외 2020. p. 31에서 재인용).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단위로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가 분석되기도 하였다.

소득을 비롯한 경제적 요인이 사회적 불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하는 기타 선행연구도 적지 않다. 생애과정 불평등 분야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위험이 보편화되었지만, 위험의 영향은 계층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Elman & O’Rand, 2004; Lui, Chung,

Wallace, & Aneshensel, 2014. 이현주 외, 2020, p. 140에서 재인용). 사회적 불안에 대한 국내 연구 중에서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개인의 불안이나 우울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소득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가구빈곤이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거나(조혜정, 염동문, 권혁창, 2020; 이현주 외, 2020, p. 141에서 재인용) 청년의 계층이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거나(이희정, 2018; 이현주 외 2020, p. 141에서 재인용), 또는 청년의 불평등 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히는 연구(김진현, 2021) 등이 그 예이다. 이 밖에도 성인 여성의 소득 수준이 불안-우울에 영향을 주었음을 규명한 연구(김진동, 정민영, 김경범, 노진원, 2016)도 시사점을 제공하는 국내 연구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불안, 우울이 서로 상이한 점이 없지 않으나 앞의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회적 불안을 포함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경제적 요인, 특히 소득 수준에 주목하는 이유는 해당 요인이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소득 빈곤층은 사회적 위협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지만 사회적 위협에 대응할 자원은 더 적게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이 점은 앞에서 인용한 외국의 주요 연구들이 지적한 바이기도 하다.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는 경제적 자원으로서 소득 외 재산이 갖는 의미도 작지 않다. 노인의 경우 현재의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한 소득의 결과인 재산의 영향이 매우 클 것이므로 이하 소득과 함께 재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산은 소득이 중단되는 노인기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재산 불평등에 민감한 상황에서 재산의 수준이 불안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

소득을 비롯한 경제적 자원은 노인의 사회적 불안의 수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의 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적응/안전 불안, 공정/경쟁 불안, 신뢰 불안, 불평등 불안이라는 하위 영역의 불안으로 나누었다. 소득분위별로 사회적 불안의 내용도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전제하고 소득분위별로 사회적 불안의 하위 영역들의 불안 수준을 분석한다.

사회적 불안도 사회구성원이 경험하는 정서의 일종이다. 따라서 사회적 불안도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으로 영향을 받는 인식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때에도 사회경제적 계층은 경험과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분석에서 소득 외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의 관련 경험, 심리·정서적 요인도 투입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고 소득 및 재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소득과 재산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도 빈곤층과 비빈곤층이 상이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빈곤층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불안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은 이러한 소득과 재산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이 사회적 불안과 연결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소득의 상승과 재산의 축적을 지향하는 행태와 더불어 축적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태가 모두 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앞에서 노인의 불안 중 노화 불안과 더불어 상실 불안이 존재한다는 점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소득과 재산의 영향을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 장의 연구 문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소득분위별 불안의 수준은 상이한가?

가-1 소득분위별 불안의 내용은 상이한가? 상이하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나. 소득이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1 (근로연령기 소득 축적의 결과라는 의미를 지니는) 재산이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2 사회적 불안에 대한 소득과 재산의 영향은 빈곤 여부에 따라 상이한가? 즉 빈곤층과 비빈곤층에서 소득과 재산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은 상이한가?

## 2. 분석의 방법

소득분위별 사회적 불안의 차이는 집단별 평균 비교(ANOVA)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불안의 평균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의 영역별 평균 차이를 함께 분석하여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사회적 불안의 내용의 차이를 함께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때 사후검증은 쉐페(Scheffe) 검증을 활용하였다.

소득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은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은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관련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의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른 영향요인을 투입하여 통제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요인들은 성,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학력, 건강수준, 경제활동상태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망과 공적지원의 수급 여부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려한다.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의 대응 능력이 높을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규모가 커서 가구원이 많을수록 사회적 불안이 낮을 수 있다.

한편 노인의 경우 건강이 좋을수록 사회적 불안도 낮을 수 있다. 거주 지역의 경우 인근에 자원이 풍부할수록 사회적 불안이 낮을 수 있으며 치안이나 기타 환경요인도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지역격차가 심화하면서 지역의 여건은 더욱 큰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경제활동상태가 안정적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넓을수록 사회적 불안이 낮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주 검증된 바 있다. 노인의 사회적 불안은 이 밖에도 공적지원을 수급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공적지원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공적지원 수급은 사적 지지망은 아니지만 위험에 대한 대응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불안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공적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때 공적지원을 받는 집단의 사회적 불안이 더 높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원진(2010)의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진입이 오히려 우울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진입을 동반한 수급진입이 스트레스를 높인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박탈, 차별, 경제위기의 부정적 영향,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은 사회적 불안을 더 높은 수준으로 느낄 수 있다. 한편 이런 경험이나 사회경제적 요인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차별이나 사회불평등을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개인수준의 불안을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에 따라 사회적 불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청년의 사회적 불안의 연구에서도 인식과 인식에 영향을 준 경험은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소득과 재산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을 통제하고 소득과 재산의 영향을 확인하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회귀모델은 빈곤층과 비빈곤층에 대한 비교 분석을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 3. 관련 요인의 처리와 기초통계

#### 가. 변수의 처리

분석에서 사용된 사회적 불안은 앞의 요인분석 결과로 구성된 사회적 불안과 그 하위 영역의 불안 점수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소득은 조사된 공적이전을 포함한 세후소득을 활용하되 균등화된 소득이다. 재산은 조사된 구간별 재산액을 기초로 하되 회귀분석과 상관관계분석에서는 구간의 중간값을 부여하여 처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타 변수들은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다.

〈표 4-1〉 투입변수의 처리

변수영역	변수명	변수처리
사회·경제적 요인	성별	더미변수로 처리, 여성이 기준
	연령	만 연령
	교육	교육수준을 교육연수로 변환
	가구규모	응답자 본인 포함 가구원의 수
	거주지역	농어촌 1, 대도시와 중소도시 0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 중 '나쁘다'를 1로, '좋다', '보통이다'는 0으로 처리
	경제활동상태	상용, 임시·일용, 고용·자영·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으로 구분하여 더미처리
	소득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재산	조사된 재산구간의 중간값
	공적지원 수급	기초연금, 공적연금, 재정일자리사업, 장기요양노인돌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수급하는 제도의 수

변수영역	변수명	변수처리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망 관련 3개 문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합산
박탈과 차별의 경험	박탈 경험	박탈 경험을 묻는 문항 7개 문항 중 '경험 있음'을 1로 처리하여 합산
	차별 경험	차별 경험을 묻는 문항 8개 문항 중 '경험 있음'을 1로 처리하여 합산
	경제위기 영향 경험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시 경제적 문제 '경험 있음'을 1로 처리하여 합산
	코로나19 영향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묻는 6개 문항 중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1로 처리하여 합산
인식 및 심리특성	차별 및 사회불평등 심각도 인식	차별불평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10개 문항 중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2, '심각하지 않다'는 -1, '보통이다'는 0, '그렇다'는 1, '매우 그렇다'는 2로 처리한 후 합산
	개인불안	개인불안 점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나. 기초통계

소득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분석에 활용된 관련 요인들이 소득분위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사회경제적 요인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4-2〉 소득분위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성 (%)	여성	57.3	53.6	49.8	56.0	48.0	52.9
	남성	42.7	46.4	50.2	44.0	52.0	47.1
연령 (%, 세)	65~70	49.2	58.9	59.3	66.5	77.5	62.3
	71~74	50.8	41.1	40.7	33.5	22.5	37.7
	평균	69.8	69.2	69.1	68.5	68.0	68.9
혼인상태 (%)	배우자 있음	73.9	77.1	87.1	94.0	91.5	84.8
	배우자 없음	26.1	22.9	12.9	6.0	8.5	15.2
가구규모 (%, 명)	1인	23.1	21.4	8.6	4.0	6.5	12.6
	2인	69.8	69.8	56.0	47.0	51.0	58.6
	3인	5.0	7.3	28.2	17.5	26.5	17.1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4인	1.5	1.0	6.2	22.0	15.5	9.3
	5인 이상	0.5	0.5	1.0	9.5	0.5	2.4
	평균	1.9	1.9	2.4	2.9	2.5	2.3
가구유형 (%)	1인	23.1	21.4	8.6	4.0	6.5	12.6
	부부	66.8	68.2	54.1	46.0	49.0	56.7
	자녀동거	9.0	9.4	34.4	47.0	42.5	28.7
	부모동거	1.0	0.5	1.4	1.5	1.5	1.2
	부모, 자녀 동거	0.0	0.5	1.4	1.5	0.5	.8
	기타	0.0	0.0	0.0	0.0	0.0	0.0
거주지역 (%)	대도시	13.1	25.5	54.1	62.0	69.5	45.1
	중소도시	54.3	53.6	45.0	38.0	30.5	44.2
	농어촌	32.7	20.8	1.0	0.0	0.0	10.7
교육수준 (%)	초졸 이하	33.2	16.1	10.1	5.5	2.0	13.3
	중졸	38.2	29.2	28.2	22.0	10.5	25.6
	고졸	28.1	49.5	55.0	61.0	58.0	50.4
	대졸 이상	0.5	5.2	6.7	11.5	29.5	10.7
사회적지지 (명)	평균	4.2	4.8	5.8	5.9	6.6	5.5
주관적 건강수준 (%)	나쁘다	23.1	15.6	9.1	3.0	4.5	11.0
	보통이다	58.3	39.1	45.9	44.5	34.0	44.4
	좋다	18.6	45.3	45.0	52.5	61.5	44.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대체로 소득 5분위에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양호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 5분위는 1분위와 비교하여 평균 연령이 낮고 유배우 비율도 높으며 가구 규모도 크다. 그리고 자녀동거 비율도 높다. 높은 소득분위에서 대도시 거주비율도 높고 건강상태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사회적 지지망의 규모도 높은 소득분위에서 크다. 예외적인 현상은 배우자 유무, 가구규모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4분위가 5분위보다 다소 양호한 특징을 보이는데 5분위보다 4분위에서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더 높고 평균 가구 규모도 더 크며 자녀동거 비율도 더 높다. 주관적 건강수준에서도 4분위에서 5분위보다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이 더 낮았다.

〈표 4-3〉 소득분위별 경제활동 및 소득과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경제 활동 상태 (%)	상용직	7.0	8.9	10.5	10.5	7.0	8.8
	임시직	14.1	8.9	7.7	3.5	3.0	7.4
	일용직	7.0	5.2	2.9	2.0	0.5	3.5
	고용주	1.5	2.6	1.9	6.0	11.5	4.7
	자영자	29.1	29.2	29.7	30.5	46.0	32.9
	무급가족종사자	3.0	4.2	3.3	1.0	2.0	2.7
	비경활	38.2	41.2	44.0	46.5	30.0	40.0
균등화 소득 (만 원)	최소	30	130	200	297	460	30
	최대	127	198	294	460	1414	1414
	평균	95	162	246	381	598	297
소득 (만 원)	최소	30	130	200	300	500	30
	최대	280	400	600	1000	2000	2000
	평균	129	222	373	641	918	458
자산 (%)	1천5백만 원 미만	2.5	2.1	0.0	0.0	0.0	0.9
	1천5백만 원~5천만 원 미만	14.6	4.7	2.4	0.0	0.0	4.3
	5천만 원~1억 원 미만	36.7	21.9	8.1	8.5	3.0	15.5
	1억 원~2억 원 미만	32.7	31.3	20.6	8.5	7.0	19.9
	2억 원~5억 원 미만	10.6	33.9	42.1	30.5	23.0	28.1
	5억 원~10억 원 미만	2.5	6.3	21.1	34.0	23.5	17.6
	10억 원 이상	0.5	0.0	5.7	18.5	43.5	13.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소득분위별로 소득을 보면 균등화된 소득의 분위별 평균값보다 비균등화된 소득의 분위별 평균값의 차이가 더 크다.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가구의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제활동과 자산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상태 중 상시직과 고용주의 비율도 높고 재산도 많지만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4분위까지는 상용직 비율이 증가하다가 5분위에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추정컨대 가구규모가 큰 가구가 4분위에 많아 균등화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러한 이유로 가구규모, 유배우자 비율,

그리고 경제활동상태 등이 일반적 경향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득분위별 공적지원 수급자의 비율을 보면 기초연금과 일자리사업,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이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적지원의 수급률은 낮은 소득분위에서 높다. 장기요양의 경우는 응답 사례 수가 적으며) 경향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적연금 수급도 소득분위별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소득 1, 2분위에서는 소득분위 3, 4, 5분위와 비교하여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았다.

〈표 4-4〉 소득분위별 공적지원 수급자 비율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기초연금	81.9	58.3	47.4	32.5	20.0	47.9
공적연금	27.1	28.1	41.6	39.0	37.5	34.8
일자리사업	5.0	4.2	1.4	1.5	0.5	2.5
장기요양	0.5	0.0	0.0	0.5	0.0	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12.1	10.9	4.8	5.0	3.0	7.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박탈의 경험은 소득이 낮은 분위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비율도 낮은 소득분위에서 더 높았다. 차별 경험은 소득분위별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2, 3, 4분위에서 1, 5분위보다 경험하였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차별과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비율도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단지 5분위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아서 2분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7)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수급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4-5〉 소득분위별 박탈과 차별 경험 및 차별·불평등 심각도 인식 수준

(단위: 건, 점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차별 경험	1.59	1.74	1.60	1.60	1.54	1.61
박탈 경험	1.25	1.06	0.89	0.92	0.62	0.94
경제위기 영향 경험	0.59	0.60	0.46	0.43	0.51	0.52
코로나19 영향 경험	1.47	1.52	1.23	1.25	1.19	1.33
차별·불평등 심각도 인식 수준	3.09	2.26	1.67	1.97	2.18	2.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제2절 소득분위별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내용 비교

소득분위별로 사회적 불안을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을 분석하였다. 단문으로 조사한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중 4점(약간 불안하다), 5점(매우 불안하다)으로 응답한 비율과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불안과 그 하위 영역의 불안에 대해서는 응답 평균이 3.5 이상<sup>8)</sup>인 응답자의 비율을 표시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사회불안 인지에서는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다. 그러나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구체적 질문에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불안하다는 응답(3.5점 이상)의 비율이 소득 1분위뿐만 아니라 소득 5분위에서 높고 사회적 불안의 하위 영역에 따라 소득분위별 불안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이하였다.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분위가

8)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여러 측면의 불안을 묻는 문항들에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중 평균 3.5점 이상을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때 역점수화가 필요한 문항은 역점수화 처리를 하였다.

높을수록 낮아지지만 5분위에서는 2, 3, 4분위보다 불안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다. 적응/안전 불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소득이 높아질수록 불안 수준이 낮아지지만 소득 4, 5분위에서는 다시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 공정/경쟁 불안과 불평등 불안은 소득이 낮은 분위에서 불안 수준이 오히려 낮다. 2, 3, 4분위에서 불안 수준이 더 높다. 신뢰불안은 소득분위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낮은 소득분위와 높은 소득분위에서 가장 불안이 높았다.

〈표 4-6〉 소득분위별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사회불안 인지	65.9	62.0	61.3	56.5	51.0	59.3
사회불안	41.2	35.9	34.9	34.5	37.5	36.8
적응/안전	32.2	25.5	23.0	24.5	25.0	26.0
공정/경쟁	40.8	53.1	45.9	46.0	43.0	47.7
신뢰	38.2	37.0	37.3	36.0	38.5	37.4
불평등	70.9	77.1	78.5	74.5	75.0	7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소득분위별 사회적 불안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평균을 보아도 사회적 불안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다가 소득 5분위에서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인다. 사회적 불안의 하위 영역별 불안의 평균을 비교하여도 영역별로 소득분위에 따른 불안 평균이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적응/안전 불안에서는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 높은 불안을 보이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불안 평균값이 낮아지다가 5분위에서 다시 높은 불안 평균값을 보인다.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 불안에서는 2분위에서 불안 평균값이 가장 높다. 그리고 적응/안전, 불신/무망 불안은 소득 5분위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인 곳이다. 전체적으로 낮은 소득분위에서 불안의

수준이 높지만 사회적 불안에서는 소득 5분위에서도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불안은 개인의 불안이나 사회적 불안 인지와 달리 소득이 낮을수록 불안이 높아지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4-7〉 소득분위별 사회적 불안과 개인불안 평균 비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사회불안 인지		3.67 (.847)	3.58 (.888)	3.56 (.853)	3.35 (.934)	3.26 (.995)	3.49 (.916)
사회불안		3.35 (.503)	3.33 (.505)	3.28 (.474)	3.24 (.503)	3.30 (.439)	3.30 (.486)
사회불안 하위 영역	적응/안전	3.17 (.628)	3.03 (.652)	3.02 (.615)	2.96 (.632)	3.08 (.600)	3.05 (.628)
	불공정/경쟁	3.44 (.609)	3.47 (.619)	3.41 (.554)	3.34 (.623)	3.37 (.561)	3.41 (.594)
	불신/무망	3.19 (.591)	3.21 (.582)	3.17 (.629)	3.18 (.607)	3.21 (.553)	3.19 (.592)
	불평등	3.72 (.628)	3.80 (.641)	3.70 (.619)	3.66 (.616)	3.69 (.546)	3.71 (.611)
개인불안		1.96 (.345)	1.88 (.327)	1.87 (.381)	1.83 (.374)	1.78 (.361)	1.87 (.362)

주: ()안은 표준편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소득분위별 사회적 불안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불안은 소득분위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위 영역의 사회적 불안도 소득분위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응/안전 불안의 경우에는 소득분위별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쉼페검증 결과 1분위와 4분위의 불안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1분위의 사회적 불안이 4분위의 사회적 불안보다 높았다.

〈표 4-8〉 소득 5분위별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영역	F값/유의확률	사후검증결과
사회불안	1.406/ .230	
적응/안전불안	3.100/ .015	1)4**
불공정/경쟁불안	1.531/ .191	
불신/무망불안	0.146/ .956	
불평등불안	1.359/ .246	

주: \*  $p < 0.1$ , \*\*  $p < 0.05$ , \*\*\*  $p < 0.01$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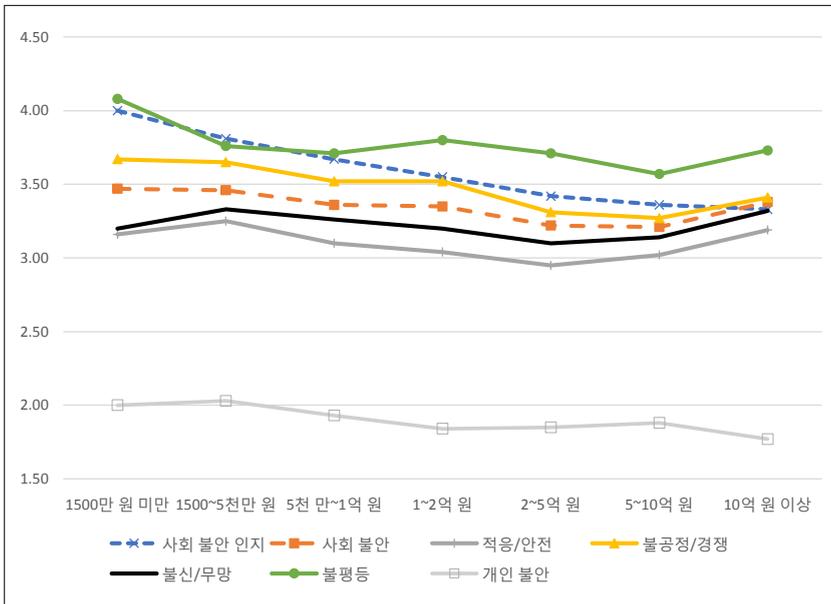
재산의 수준별로 사회적 불안이 상이한지를 살펴보았다. 재산구간별 불안 수준을 비교하면, 우선 사회적 불안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재산이 많은 집단의 평균이 더 낮았다. 그러나 10억 원 이상의 높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집단에서는 사회적 불안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불안의 하위 영역인 적응/안전 불안, 불공정/경쟁 불안, 불신/무망 불안, 불평등 불안에서도 유사하였다. 다만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 즉 사회적 불안의 인지는 재산이 많을수록 불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불안은 경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불안 수준이 낮았다. 높은 수준의 재산액을 보유한 집단의 불안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재산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이 모호하다. 관련 요인을 통제하고 재산의 영향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표 4-9〉 재산구간별 불안 비교

	1500만 원 미만	1500~5천만 원	5천 만 ~1억 원	1~2억 원	2~5억 원	5~10억 원	10억 원 이상	전체	
사회불안 인지	4.00	3.81	3.67	3.55	3.42	3.36	3.33	3.49	
사회불안	3.47	3.46	3.36	3.35	3.22	3.21	3.38	3.30	
사회 불안 하위 영역	적응/안전	3.16	3.25	3.10	3.04	2.95	3.02	3.19	3.05
	불공정/경쟁	3.67	3.65	3.52	3.52	3.31	3.27	3.41	3.41
	불신/무망	3.20	3.33	3.26	3.20	3.10	3.14	3.32	3.19
	불평등	4.08	3.76	3.71	3.80	3.71	3.57	3.73	3.71
개인불안	2.00	2.03	1.93	1.84	1.85	1.88	1.77	1.8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4-1] 재산구간별 불안 비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제3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소득의 영향 분석

사회적 불안에 대한 소득과 재산의 영향을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은 상당 부분 노인이 되기 이전의 근로소득의 축적을 반영한다고 전제한다. 한편 노년기에는 근로활동이 줄고 상대적으로 재산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주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관련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소득, 재산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사회적 불안과 소득, 재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적 불안은 균등화된 소득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비균등소득과는 낮은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인다. 재산도 낮은 유의수준에서 사회적 불안이 상관관계를 보인다. 반면 사회적 불안 인지와 개인불안은 소득, 재산과 높은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 4-10〉 불안과 소득 및 재산의 상관관계

	사회 불안	적응/안전 불안	불공정/경쟁 불안	불신/무망 불안	불평등 불안	사회 불안 인지	개인 불안	균등화 소득	비균등화 소득
사회불안	1								
적응/안전 불안	.818***	1							
불공정/경쟁 불안	.865***	.545***	1						
불신/무망 불안	.825***	.602***	.615***	1					
불평등 불안	.626***	.301***	.549**	.350***	1				
사회불안 인지	.280***	.167***	.291***	.196***	.253***	1			
개인불안	.183***	.291***	.125***	.216***	-.178***	.059*	1		
균등화 소득	-.040	-.043	-.050	.008	-.038	-.144**	-.157***	1	
비균등화 소득	-.061*	-.054*	-.081**	-.002	-.052	-.156***	-.152***	.941***	1
재산	-.019*	.042	-.094***	.030	-.050	-.122***	-.104***	.568***	.614***

주: \*  $p < 0.1$ , \*\*  $p < 0.05$ , \*\*\*  $p < 0.01$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소득과 재산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은 세 가지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델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모델 1: 사회적 불안에 대한 소득, 재산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다.

모델 2: 사회적 불안에 대한 소득, 재산 등 사회경제적 요인, 박탈·차별 경험의 영향을 분석한다.

모델 3: 사회적 불안에 대한 소득, 재산 등 사회경제적 요인, 박탈·차별 경험, 인식/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다.

각 요인군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사회경제적 요인: 성, 연령, 학력, 가구규모, 거주지역, 건강수준, 경제  
활동상태, 소득, 재산, 공적지원수급, 사회적 지지망  
박탈·차별 경험: 박탈 경험, 차별 경험, 경제위기 영향 경험, 코로나  
영향 경험  
인식/심리적 요인: 차별·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인불안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불안에 대한 소득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재산의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재산이 적을수록 사회적 불안이 낮았다. 모델 1의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은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경제활동상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임시·일용직이 고용·자영과 비교하여 사회적 불안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재산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영향의 방향은 재산이 많을수록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 기타 요인으로 가구규모와 거주지역,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크고 유의미하였다.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거주지역이 농촌인 경우 도시보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약할수록 불안이 높았다.

모델 2의 분석 결과를 보면 박탈·차별 경험을 추가 투입하면서 경제활동요인의 영향은 사라졌다. 다른 요인의 영향은 모델 1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소득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재산은 높을수록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타요인으로 가구규모, 거주지역,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모델 1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박탈과 차별 경험은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박탈 경험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영향과 차별 경험의 영향은 유의미하고 컸다. 코로나19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집단과 차별 경험을 한 집단의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

〈표 4-11〉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영역	구분 변수	빈곤층			비빈곤층			전체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사회 경제적 요인	성별	-.037	-.043	-.034	.015	.030	.020	-.001	.007	.007	
	연령	-.033	-.038	-.039	-.017	-.007	.004	-.015	-.013	-.003	
	교육연수	.115**	.121**	.140***	-.027	-.020	-.021	.044	.047	.059*	
	가구규모	-.032	-.055	-.047	-.095**	-.088**	-.092**	-.082**	-.086***	-.085***	
	거주지역	.135***	.129**	.090**	-.037	-.038	-.046	.091***	.087***	.055*	
	건강수준	.025	-.031	-.016	.096**	.094**	.109***	.053	.028	.043	
	경제 활동 상태	상시직	.002	-.054	-.045	-.020	-.032	-.061	-.005	-.028	-.050
		임시·일용	.130**	.062	.046	.022	-.005	-.032	.087**	.046	.015
		고용·자영	-.036	-.062	-.032	기준	.001	기준	기준	기준	기준
		비경활	기준	기준	기준	-.029	기준	-.045	.001	.028	-.003
	소득	.061	.020	.066	-.001	-.013	-.002	.015	-.002	.020	
	재산	-.077	-.037	-.012	.125***	.148***	.108**	.084**	.112***	.087**	
	공적지원수급	.052	.042	.057	.028	.061	.033	.035	.055	.039	
사회적 지지망	-.149***	-.063	-.069	-.193***	-.140***	-.081**	-.179***	-.111***	-.070**		
박탈과 차별 경험	박탈 경험		.075	.147**		-.041	-.029		.005	.033	
	차별 경험		.101	-.050		.129**	.064		.111**	.023	
	경제위기 영향 경험		.017	.009		.077*	.085**		.057*	.061**	
	코로나 영향 경험		.202***	.166***		.149***	.085*		.175***	.124***	
인식/ 심리적 특성	차별/불평등 심각도 인식			.383***			.332***			.338***	
	개인불안			.144***			.123***			.133***	
F(Sig.)		2.560***	4.559***	9.243***	3.304***	4.898***	9.126***	4.896***	8.437***	16.494***	
adjusted R2		.049	.134	.287	.047	.098	.203	.048	.112	.228	

주: \* p < 0.1, \*\* p < 0.05, \*\*\* p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모델 3의 분석 결과도 모델 1, 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소득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재산의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기타 요인 중 가구규모와 거주지역, 사회적 지지망의 영향이 유의미하였고 모델 1, 모델 2의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교육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박탈·차별 경험 중 차별 경험의 영향은 인식/심리적 요인을 투입하면서 사라지고 경제위기 영향 경험과 코로나19 영향의 경험은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추가 투입된 차별·사회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과 개인불안은 모두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하고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개인불안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사회적 불안에 대해서도 소득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재산의 영향은 상이하었는데 빈곤층에서는 재산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비빈곤층에서는 재산의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빈곤층의 경우 사회적 불안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교육, 거주 지역, 경제활동상태,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비경활보다 임시·일용직이, 사회적 지지가 약할수록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 박탈/차별 경험을 추가 투입한 모델 2의 분석 결과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경험한 집단의 사회적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때 경제활동상태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델 3의 분석 결과에서는 인식/심리적 요인을 추가 투입하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의 사회적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탈/불평등 심각도 인식, 개인불안은 모두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비빈곤층의 경우 가구규모와 건강수준이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차별 경험(모델 2의 분석 결과에 한정), 경제위기 영향 경험, 코로나19 영향 경험, 차별·불평등 심각도 인식, 개인 불안이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

관련 요인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진 모델 3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소득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재산은 빈곤층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기타 주목할 만한 결과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기준으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박탈·차별 경험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은 빈곤층, 비빈곤층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과 달리 교육연수와 거주지역, 박탈 경험이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경향을 주었고 비빈곤층의 경우에는 빈곤층과 달리 가구규모, 건강수준, 재산, 경제위기 영향 경험이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소득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은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할 때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산의 영향이 유의미하였고 소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 불안의 수준이나 사회적 불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소득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 제4절 소결

소득과 사회적 불안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분위별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낮은 소득분위뿐만 아니라 5분위의 사회적 불안이 높다. 그러나 소득분위별 사회적 불안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적응/안전은 전체적으로 불안의 수준은 낮아도 소득분위별 유의미한 불안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1분위의 적응/안전 불안이 4분위 적응/안전 불안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재산의 경우에도 재산이 낮을수록 불안이 높지만 높은 재산을 보유한 집단의 사회적 불안이 낮은 재산구간의 집단과 마찬가지로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소득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반면 재산의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사회적 불안은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도 높으나 그 영향은 소득보다 재산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산이 높은 노인집단은 특히 적응/안전, 불신/무망영역

에서 불안이 높았다. 재산이 높은 노인집단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할 것에 대한 불안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불안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득이 낮은 노인은 사회불안 중에서 적응/안전 불안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정보에 뒤처지고 소속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만으로 한정하여 경험이나 인식/심리적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회귀모델 1의 분석 결과 임시·일용직의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소 상이하였다. 빈곤층에서 박탈 경험이, 비빈곤층에서는 차별 경험과 경제위기 영향 경험이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위의 분석 결과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소득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산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재산이 많은 집단은 불신/무망, 적응/안전 불안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의 불평등이나 격차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불평등 대응 정책이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정책지향을 이해하고 정책추진 방향을 예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은 재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민감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재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정책을 보강하면서 재산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적응/안전 불안을 낮추기 위하여 노인들의 사회 적응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타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경제활동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은 일부 유의미하였다. 임시·일용직의 불안은 자영·고용이나 비경제활동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경험이나 인식·심리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이 집단의 불안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 집단의 불안을 줄이는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보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각종 경험 중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사회적 불안을 높였다. 이 영향은 빈곤층과 비빈곤층 모두에게서 유의미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는 시기 이후에도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사후적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했다. 빈곤층의 박탈 경험은 불안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나 비빈곤층의 경우 경제 위기의 영향 경험이 유의미하게 불안에 영향을 주었다. 빈곤층에게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그리고 비빈곤층에게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불안을 줄이는 데 중요할 수 있다.

빈곤층의 경우 농촌의 사회적 불안이 도시와 비교하여 높았다.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불안이 높은 이유를 규명하고 지역정책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서비스 인프라나 문화적 인프라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 대중교통 등의 여건이 취약하다. 이러한 여러 요인 중 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 구상에 반영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은 아니지만 가구규모는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 중에 단독 1인 가구로 분가하는 것을 조장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1인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하여 1인 가구의 불안을 줄이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 제5장

## 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불안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제3절 사회참여 특성과 불안

제4절 대처방식별 불안 비교

제5절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6절 소결



## 제 5 장 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불안

### 제1절 논의 배경

#### 1. 사회적 불안과 사회참여, 사회관계

불안(不安)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 ‘분위기 따위가 슬렁거리어 뒤숭숭함’, ‘몸이 편안하지 아니함’이며, 유어로 공포, 불안전 등이 있다(네이버 사전, 2021. 8. 10.). 불안은 심리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두렵고 무서운 상태인 공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불안을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특히 사회적 불안은 그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경험하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회적 불안에 대해 개인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이현주 외, 2019).

한편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는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Kearney & Silverman, 1990; Clark & Wells, 1995; Ginsburg, La Greca, & Silverman, 1998; 곽윤경 외, 2021). 먼저 사회참여는 사회활동, 사회참여활동, 생산적 활동, 사회통합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며, 여가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주경희, 2010). 그 이유는 아직 학문적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연구자별로 연구 목적에 맞춰 사회참여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문헌들은 “주로 정치활동, 종교 및 친목모임 활동 그리고 기타 모임 활동 등”을 포함하며(이현주 외, 2020, p. 189), 공통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사회참여로 보고 있다. 변루나, 김영숙, 현택수(2011)와 같이 한 사회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인 활동으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나 한경혜, 김주현, 박경숙, Hiroko, 이재인(2011)과 같이 단체활동, 지역사회 조직활동, 취업활동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는 경우 모두 사회적 관계를 유발하는 사회활동을 사회참여로 보고 있다(이현주 외, 2020). 따라서 필연적으로 사회참여는 개인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역할 수행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진다(Webber, 2005; 이현주 외, 2020에서 재인용).

여기서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관계망은 사회 체계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구조를 의미하며(조용하, 2005; 임정숙, 2018에서 재인용), 사회관계망은 일상의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주관적 안녕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Garfein & Herzog, 1995; 임정숙, 2018에서 재인용). 사회관계망 역시 다양하게 정의되며 합의된 개념 없이 네트워크, 사회적 지지, 사회적 연계망, 사회적 관계망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관계의 형성과 확대는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켜,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Webber, 2005; Williams & Galliher, 2006; Webber et al., 2011; 곽윤경 외, 2021에서 재인용).

## 2. 노인과 사회적 불안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는 제1장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생애주기의 특성상 노화나 죽음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임정숙, 2018; 김기태, 송진영,

정종화, 2018). 이들 연구는 노인의 노화나 죽음이라는 한정된 분야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고, 노화 불안과 사회활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거나(임정숙, 2018) 독거노인의 죽음 불안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김기태, 송진영, 정종화, 2018)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특정 생애주기와 특정 노인들의 특화된 분야의 불안을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인식하거나 경험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한편 우리 사회가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은 전통적인 부모부양 의식의 약화로 자녀로부터의 노후부양을 기대할 수 없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부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여유진, 황남희, 어유경, 우선희, 이지완, 2021). 사회보장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가장 압축적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재 청장년층 같이 조세와 보험료 등의 부담 세대와 노년층 같이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세대 사이의 갈등이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은 과거 노인보다 클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비대면 문화의 확산을 초래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의 일상 생활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불안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황남희 외, 2020b; 남궁은하, 2021).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디지털 확산은 지속되며 노년기 전자기기 활용 역량이나 온라인상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 1. 분석의 목적

이 장은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노인들의 대처방식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관계의 조절효과를 파악한다.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는 개인의 심리상태나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가 사회적 불안 수준을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회관계는 사회참여를 통해 형성·확장되어 사회참여와 사회관계의 조절효과를 통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임정숙(2018)은 노년기 불안의 하나인 노화 불안과 사회활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장은 제3절에서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에 대한 기초분석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특성과 사회적 불안의 관련성을 살펴본 후, 제4절에서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관계의 조절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이며, 분석대상은 65~74세이다. 즉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지 않지만, 연구는 편의상 노인으로 칭하고자 한다. 즉 이 장에서 노인은 65~74세를 의미한다.

## 2. 분석의 방법

제3절의 사회참여 특성과 불안은 노인들의 단체·모임활동 참여별, 전자기기 활용수준별, 사회관계 특성별 사회적 불안을 빈도, 비율, 평균 등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이 연구는 노인의 전자기기 활용수준을 사회참여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데, 그 이유는 노인의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활용수준이 곧 사회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대두된 비대면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적응과 온라인을 통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역량으로 전자기기 활용수준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주 외(2020)는 청·중년의 사회참여에 SNS 참여 같은 온라인 내 참여를 포함하였으나,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수준이 약 6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p. 25, p. 102) 온라인 내 참여와 더불어 전자기기 활용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불안은 <표 5-1>과 같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불안, 사회불안 척도로 측정하여 요인분석으로 도출한 사회불안 전체 및 영역별 수준이다. 또한 개인 측면에서의 불안 수준도 함께 살펴보는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개인불안, 노인 불안 척도로 측정하여 요인분석으로 도출한 노인 불안 수준이다.

9) 이는 노년기 진입 이전의 베이비붐세대가 상당수 포함된 결과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노인의 디지털정보격차는 더욱 크다.

〈표 5-1〉 사회적 불안 및 개인불안 변수

구분	주요 문항
사회불안 인지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불안 (수준)	사회적 불안 척도 27개로 측정 후 요인분석
(영역1) 적응/안전	
(영역2) 불공정/경쟁	
(영역3) 불신/무망	
(영역4) 불평등	
개인불안 인지	귀하는 현재 얼마나 불안을 느끼십니까?
개인불안 (수준)	개인적 불안 척도 20개로 측정 후 요인분석
노인 불안 (수준)	노인 불안 척도 12개로 측정 후 요인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4절에서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 그리고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관계의 조절효과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4절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다만 주요변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사회적 불안은 〈표 5-1〉의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 불안, 사회불안 척도로 측정하여 요인분석으로 도출한 사회불안 전체 및 영역별 수준이다. 즉 제4절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인 사회적 불안에 집중하여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 그리고 사회관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개인 차원의 불안 수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사회참여는 2020년에 진행한 제2차 연구(이현주 외, 2020)와 같이 단체 및 모임 활동과 온라인활동으로 정의한다. 〈표 5-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이 연구에서 조사한 4가지 단체·모임활동에 온라인활동을 추가하여 5가지 활동을 사회참여로 본다. 단체·모임활동 참여는 정치·참여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공공 여가문화시설 모임이며, 활동별로 가끔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참여로 본다. 온라인활동 참여는 전자기기 활용수준에서 측정된 변수로, 메신저나 SNS를 이용하는 경우 참여로 본다.

〈표 5-2〉 사회참여 변수

구분		세부 설명 및 주요 문항
단체 모임 활동 참여	정치·사회모임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 조합 등
	종교모임	-
	친목모임	동창회, 향우회, 동호회, 계모임 등
	공공 여가문화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구민회관, 문화회관 등
온라인활동		메신저(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등)를 이용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사회관계는 사회관계망의 유무와 크기의 2개 변수를 활용한다. 사회관계망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에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사회관계망 유무로 조작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총수를 사회관계망의 크기로 조작한다.

〈표 5-3〉 사회관계 변수

구분	주요 문항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및 수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제3절 사회참여 특성과 불안

이 절에서는 사회참여 특성에 따른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참여는 노인들의 단체·모임활동 참여와 전자기기 활용수준, 그리고 이러한 활동 참여와 관련성 있는 사회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노인들의 대처방식으로 사회참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 대처방식의 특성에 따른 불안 수준도 분석하고자 한다.

#### 1. 단체·모임활동 참여별 불안 비교

노인의 단체·모임활동의 참여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88.4%가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이 65~74세의 젊은 노인 계층이라는 점에서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세부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친목모임이 81.1%로 높고, 그 외 종교모임(33.0%), 공공여가문화시설(24.9%), 정치·사회모임(8.6%)은 절반 미만의 노인만 참여하고 있다. 즉 노인의 단체·모임활동은 친목모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참여 실태를 비교 분석하면,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참여율이 높지만 종교활동에 한해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이나, 공공여가문화시설 참여의 경우에는 오히려 71~74세가 27.1%로 65~70세 23.6%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혼인상태별로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인 경우에 비해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높고, 특히 친목모임(82.6%)에서 혼인상태에 따른 참여 격차가 크다.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참여율이 높은 단체·모임활동은 종교모임

(34.2%)과 공공 여가문화시설(29.6%)이지만 혼인상태별 격차는 크지 않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 가구의 단체·모임활동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공공 여가문화시설 참여에 한해서는 1인 가구가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높은 경향성이 있다. 특히 교육수준별 단체·모임활동 참여 격차가 큰 활동은 정치·사회모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여가문화시설 참여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이 고학력보다 높다.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수준이 보통 이상인 경우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높지만, 공공 여가문화시설 참여율은 건강수준이 나쁜 경우가 28.2%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21.3~27.7%보다 높다.

종교 유무에 따라 단체·모임활동 참여 격차가 매우 큰데, 종교가 있는 경우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높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모임 참여율이 75.3%로 높은 것은 예상되지만, 종교가 없는 경우에도 종교모임 참여율이 0%가 아닌 7.8%라는 것이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 거주 노인이 농어촌 거주 노인에 비해 공공 여가문화시설을 제외한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높다. 이는 지역에 따라 노인들의 단체·모임활동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의 건강수준이 낮은 노인 비율이 높은 농어촌 거주 노인은 인프라 기반의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공공 여가문화시설 참여율은 다른 단체·모임활동 참여율과 반대의 경향성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높은 노인의 경우 저연령, 유배우, 부부 및 기타 가구, 고학력의 특성을 보이거나, 공공 여가문화시설 참여율이 높은 노인의 경우 고연령, 저학력, 나쁜 건강상태, 농어촌 거주, 1인 가구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단체·모임활동 참여의 다양성이나 활발함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단체·모임활동

(단위: %)

구분		단체·모임활동 <sup>1)</sup>				계 <sup>2)</sup>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공공 여가문화시설	
전체		8.6	33.0	81.1	24.9	88.4
성별	남성	9.8	25.1	82.2	23.6	87.9
	여성	7.6	40.1	80.2	26.1	88.9
연령	65~70세	10.6	34.4	84.6	23.6	90.7
	71~74세	5.3	30.8	75.3	27.1	84.6
혼인상태	유배우	9.2	32.8	82.6	24.1	89.3
	무배우	5.3	34.2	73.0	29.6	83.6
가구형태	1인가구	4.8	32.5	72.2	30.2	84.1
	부부가구	9.4	29.1	81.7	25.9	89.1
	기타 가구	8.8	40.4	83.7	20.9	88.9
교육수준	중졸 이하	9.5	27.8	77.9	27.8	85.4
	고졸	6.0	34.7	81.4	23.2	89.3
	대졸 이상	17.8	43.9	91.6	22.4	95.3
주관적 건강상태	나쁘다	8.2	30.9	66.4	28.2	78.2
	보통	8.8	33.8	80.9	27.7	89.4
	좋다	8.5	32.7	85.0	21.3	89.9
종교	있음	10.5	75.3	83.7	27.6	94.9
	없음	7.5	7.8	79.6	23.3	84.5
거주지역	대도시	8.0	31.9	80.5	19.1	87.1
	중소도시	10.2	36.4	83.3	28.7	90.1
	농어촌	4.7	23.4	74.8	33.6	86.9

주: 1) 가끔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율의 합산임.

2)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공공 여가문화시설 중 1개 이상 참여하는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단체·모임활동별로 노인들의 불안 특성을 살펴보면, 단체·모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회불안 인지 점수가 높지만 사회불안 수준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인이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하면 사회불안을 낮다고 인지하지만, 더 정밀하게 측정한 사회불안 수준은 오히려 미참여자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노인의 사회불안 인지는 실제 사회불안 수준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표 5-5〉 단체모임활동 참여 유무별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sup>1)</sup>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인지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				
단체모임활동 <sup>2)</sup>	미참여	3.52	3.26	2.97	3.32	3.15	3.83	2.87	1.80	2.78
	참여	3.48	3.31	3.06	3.42	3.20	3.70	3.00	1.87	2.96
정치·사회모임	미참여	3.50	3.29	3.02	3.40	3.18	3.73	2.97	1.83	2.92
	참여	3.36	3.44	3.43	3.48	3.34	3.55	3.20	2.21	3.08
종교모임	미참여	3.43	3.30	3.06	3.39	3.18	3.73	2.91	1.83	2.93
	참여	3.59	3.30	3.03	3.43	3.21	3.69	3.14	1.94	2.95
친목모임	미참여	3.54	3.26	2.97	3.34	3.13	3.82	2.92	1.84	2.82
	참여	3.47	3.31	3.07	3.42	3.21	3.69	3.00	1.87	2.96
공공 여가문화시설	미참여	3.45	3.28	3.04	3.37	3.19	3.69	2.93	1.85	2.90
	참여	3.58	3.35	3.07	3.50	3.21	3.79	3.14	1.91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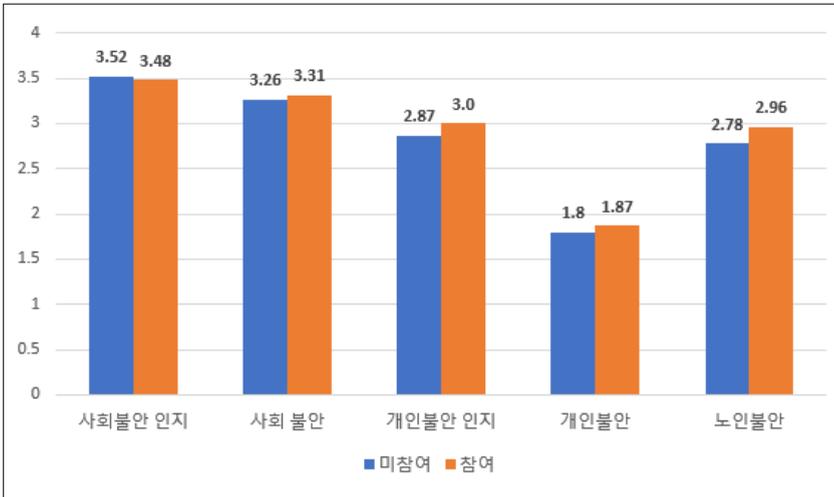
주: 1) 가끔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율, 온라인활동은 예로 응답한 비율임.

2)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공공 여가문화시설 중 1개 이상 참여하는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1〉 단체모임활동 참여 유무별 불안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개인불안 인지 및 수준과 노인 불안은 단체·모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불안 수준이 높다.

한편 단체·모임의 세부활동별로 차이가 있어서, 종교모임과 공공 여가 문화시설의 경우 미참여자의 사회불안 인지 수준이 더 높고 종교모임의 경우 참여 유무에 따른 사회불안 수준의 차이가 없다. 사회불안 영역별로는 세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불안 인지와 수준이 더 높다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서는 단체·모임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사회불안의 방향성이 다른데, 불평등 영역에서는 미참여인 경우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져 본인의 인지와 측정이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 장의 관심 변수인 사회불안 척도에 의해 분류된 영역별 및 전체의 불안 수준을 <표 5-6>과 같이 상(높음), 중(보통), 하(낮음)로 구분하여 사회불안 수준별 단체·모임활동 참여 특성을 비교한다. 사회불안 수준은 분포를 고려하여 3.5점 이상(그렇다+매우 그렇다)은 '상', 3.0~3.5점 미만(보통)은 '중,' 3점 미만(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은 '하'이다.

사회불안은 상 36.8%, 중 39.8%, 하 23.4%이며, 영역별로 분포가 다르다. 불평등 영역은 상의 비율이 75.2%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아서 노인은 상대적으로 불평등 영역에서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적응/안전 영역에서 하의 비율이 41.6%로 다른 영역보다 높아서, 노인은 상대적으로 적응/안전 영역에서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편이다.

<표 5-6> 사회불안의 상중하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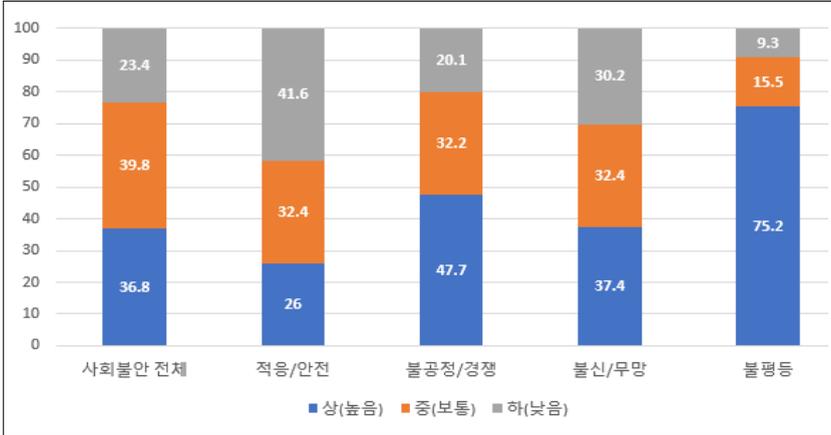
구분	전체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
상(높음)	36.8	26.0	47.7	37.4	75.2
중(보통)	39.8	32.4	32.2	32.4	15.5
하(낮음)	23.4	41.6	20.1	30.2	9.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사회불안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2] 사회불안의 상중하 분포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사회불안 수준별 단체·모임활동의 전반적인 경향은 불안이 높은 경우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높으며, 영역별로도 이러한 경향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불평등 영역의 경우 사회불안이 낮은 경우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단체·모임활동별 불안의 특성을 종합하면, 사회불안 인지는 실제 사회불안 수준이나 개인불안 인지 및 수준, 노인 불안 등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면, 사회불안은 단체·모임활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노인들은 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 단체·모임활동을 통해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노인들의 불안 수준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안 수준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에서 사회참여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긍정적인 관련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정교한 모형을 통해 단체·모임활동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7〉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따른 단체모임활동 참여

(단위: %)

구분	진체			적응/안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단체모임활동	89.4	88.7	86.3	88.9	90.1	86.8	90.2	87.9	85.1	88.8	89.5	86.8	87.5	89.7	93.6
정치사회모임	11.7	8.0	4.7	14.2	11.4	2.9	9.6	9.0	5.5	11.0	9.0	5.3	8.0	12.9	6.5
종교모임	31.3	34.9	32.5	30.0	30.9	36.5	33.1	33.9	31.3	35.3	30.6	32.8	33.5	32.3	30.1
친목모임	82.1	83.4	75.6	82.3	83.6	78.4	82.0	84.2	74.1	82.1	83.3	77.5	80.5	83.2	82.8
공공 여가문화시설	26.1	25.9	21.4	26.5	23.8	24.8	29.1	21.1	20.9	26.2	23.5	24.8	26.9	18.1	20.4

주: 사회불안 수준은 1~5점 척도에서 3.0점 미만 '하', 3.0~3.5점 미만 '중', 3.5점 이상 '상'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2. 전자기기 활용수준별 불안

노인의 전자기기 활용수준을 접근성과 활용 역량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전체 노인의 66.6%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기기는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를 의미한다. 전자기기 활용 역량은 1) 메신저(카카오톡, 네이버라인 등)·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이용, 2) 정보·뉴스 검색 및 미디어콘텐츠 이용, 3) 온라인 쇼핑·예약·예매 이용,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송금, 공과금 납부, 주식거래 등) 이용, 5)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의 무인주문기계(키오스크) 이용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들 전자기기 활용 역량 중 메신저·SNS(83.7%)와 정보검색·미디어콘텐츠(74.2%)의 이용이 높은 편이며, 그 외 인터넷 금융거래(27.1%), 무인주문기계(21.5%), 온라인 쇼핑·예약·예매(18.0%) 이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전자기기 활용수준을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성, 저연령, 유배우자, 가구형태 중 기타 가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거주지역이 도시(특히 대도시)인 경우 전자기기 활용수준이 높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전자기기 활용수준 격차는 주로 연령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에 의하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연령과 깊이 관련 있기 때문이다.

〈표 5-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전자기기 활용

(단위: %)

구분		접근성 <sup>1)</sup>	활용 역량				
			메신저·SNS	정보검색·미디어콘텐츠	온라인쇼핑·예약예매	인터넷 금융거래	무인 주문기계
전체		66.6	83.7	74.2	18.0	27.1	21.5
성별	남성	70.1	88.1	80.3	20.6	31.2	23.4
	여성	63.5	79.8	68.8	15.7	23.4	19.9
연령	65~70세	75.0	90.2	83.8	25.8	37.9	29.4
	71~74세	52.8	72.9	58.4	5.0	9.3	8.5
혼인상태	유배우	70.3	86.3	77.5	19.3	29.0	23.0
	무배우	46.1	69.1	55.9	10.5	16.5	13.2
가구형태	1인가구	42.1	69.8	56.4	11.1	17.5	12.7
	부부가구	61.6	83.3	74.1	15.5	24.5	18.2
	기타 가구	86.0	90.2	81.8	25.4	35.8	31.3
교육수준	중졸 이하	45.5	68.1	53.7	3.3	9.0	11.3
	고졸	77.4	92.3	84.9	20.4	32.1	23.2
	대졸 이상	92.5	100.0	98.1	59.8	69.2	50.5
주관적 건강상태	나쁘다	47.3	66.4	56.4	9.1	11.8	8.2
	보통	60.4	80.0	68.5	11.9	20.7	13.5
	좋다	77.6	91.7	84.3	26.2	37.2	32.7
종교	있음	76.9	85.0	77.8	19.8	29.8	23.9
	없음	60.5	82.9	72.1	16.9	25.5	20.1
거주지역	대도시	77.8	86.9	77.4	21.1	30.4	31.7
	중소도시	62.9	83.7	76.5	17.9	26.0	14.0
	농어촌	34.6	70.1	51.6	5.6	17.8	9.4

주: 1)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무선 인터넷 포함) 접속이 가능한 경우의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전자기기 활용수준별 불안 수준을 분석하면, 전자기기 접근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은 높은 반면 개인불안 수준은 낮다. 그리고 활용 역량이 있는 경우 대체로 사회적 불안 인지 점수는 낮지만 사회적 불안 수준은 높다. 또한 활용 역량이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개인불안 인지와 수준이

낮은 경향성이 확인된다.

활용 역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활용 역량과 달리 무인주문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다른 활용 역량과 달리, 정보검색·미디어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불안 인지와 노인 불안 수준이 높다.

〈표 5-9〉 전자기기 활용수준별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인지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접근성 <sup>1)</sup>	없음	3.47	3.26	3.08	3.33	3.12	3.68	3.02	1.92	2.94	
	있음	3.49	3.32	3.03	3.44	3.23	3.73	2.97	1.84	2.93	
활용 역량	메신저·SNS	미이용	3.64	3.26	3.11	3.35	3.10	3.62	3.11	1.99	2.96
		이용	3.45	3.31	3.04	3.42	3.21	3.73	2.96	1.84	2.93
	정보검색·미디어콘텐츠	미이용	3.59	3.20	2.99	3.26	3.06	3.65	2.93	1.88	2.89
		이용	3.45	3.34	3.07	3.46	3.24	3.73	3.01	1.86	2.95
	온라인쇼핑·예약예매	미이용	3.53	3.30	3.04	3.40	3.19	3.72	3.01	1.88	2.94
		이용	3.29	3.31	3.09	3.43	3.19	3.67	2.87	1.81	2.90
	인터넷 금융거래	미이용	3.54	3.28	3.04	3.39	3.17	3.69	3.02	1.89	2.96
		이용	3.33	3.34	3.08	3.45	3.25	3.76	2.90	1.79	2.87
무인주문기계	미이용	3.52	3.31	3.06	3.42	3.20	3.71	3.03	1.89	2.94	
	이용	3.35	3.28	3.02	3.36	3.17	3.73	2.81	1.78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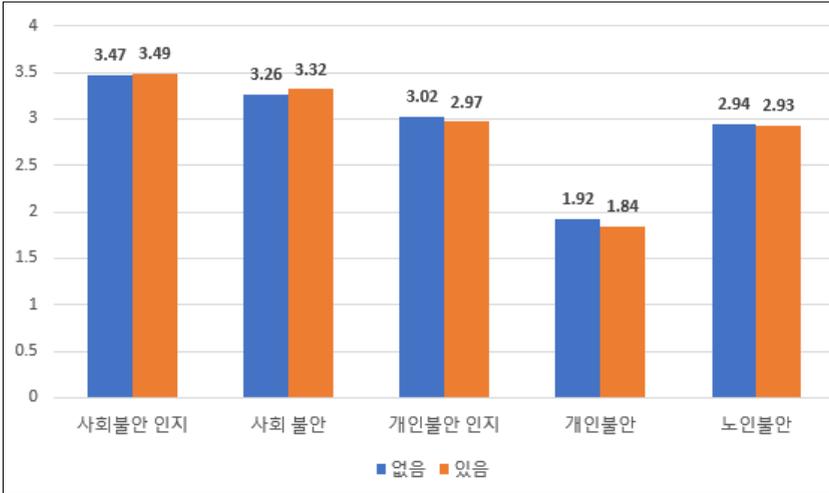
주: 1)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무선 인터넷 포함) 접속이 가능한 경우의 비율임.

2) 불안은 1~5점 척도임. 다만 개인불안은 1~4점 척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3] 전자기기 접근성 유무별 불안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사회불안의 상중하 분포별로 전자기기 활용수준의 전반적인 경향은 불안이 높은 경우 전자기기 이용률이 높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적응/안전 영역은 사회적 불안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고, 불안 수준이 중(보통)인 경우 온라인 쇼핑·예매·예약이나 인터넷 금융거래 이용률은 높은 상이한 특성을 보이지만 그 차이는 작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향성은 사회적 불안과 전자기기 활용수준이 정적인 관계임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이나 활용하면서 알게 되는 다양한 정보로 인해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적 관계는 보다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표 5-10〉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따른 전자기기 활용수준

(단위: %)

구분	전체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집근성 <sup>1)</sup>	65.0	72.4	59.4	63.5	65.7	69.2	68.6	69.9	56.7	70.3	68.5	59.9	68.4	66.5	52.7
메신저SNS	84.0	84.7	81.6	80.8	83.3	85.8	84.5	85.1	79.6	85.6	85.5	79.5	85.9	80.7	71.0
정보검색미디어콘텐츠	77.7	77.4	63.3	74.6	77.2	71.6	79.5	74.5	61.2	78.9	78.1	64.2	76.7	72.3	57.0
온라인쇼핑예약예매	17.9	19.1	16.2	16.9	21.9	15.6	17.6	20.5	14.9	18.5	16.7	18.9	18.0	20.7	14.0
인터넷 금융거래	31.5	24.9	23.9	26.9	30.6	24.5	29.1	25.2	25.4	31.8	24.1	24.5	29.0	23.9	17.2
무인주문기계	20.9	20.1	24.8	18.1	23.5	22.1	20.3	22.4	22.9	22.2	19.4	22.9	22.1	25.2	10.8

활  
용  
영  
역

주: 1)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무선인터넷 포함) 접속이 가능한 경우의 비율임.

2) 사회불안 수준은 1~5점 척도에서 3.0점 미만 '하', 3.0~3.5점 미만 '중', 3.5점 이상 '상'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3. 사회관계별 불안 비교

노인의 사회관계는 이 연구 조사 문항을 검토하여 특정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어려운 일을 당할 경우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공식적인지 여부로 파악한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도구적 도움), 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경제적 도움),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정서적 도움)이다.

노인의 80.6%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전체 노인의 58.1%는 갑자기 큰돈을 빌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또한 노인의 86.2%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정서적 및 도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이 있으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평균 2~3명이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세 가지 상황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55.3%이다. 다시 말해 노인의 약 절반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원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인들은 종교시설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식관계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비율이 11.7%, 가족이나 친지, 친구, 이웃 등 비공식관계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비율은 88.3%로 나타났다.<sup>10)</sup>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관계를 비교 분석하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 및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공식관계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비율도 높다. 연령별로는 65~70세가 71~

10) 1~2순위 응답에서 공식관계가 1회 이상 나온 기준이다.

74세보다 경제적 및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이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 공식관계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낮다.

〈표 5-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관계

(단위: %)

구분	사회관계망 유무 <sup>1)</sup>				도움요청자 <sup>3)</sup>		
	몸 아파 집안일 부탁(A)	큰돈 빌림(B)	이야기 상대 필요(C)	A~C 모두 해당 <sup>2)</sup>	비공식관계	공식관계	
전체	80.6(2.1)	58.1(1.9)	86.2(3.1)	55.3	88.3	11.7	
성별	남성	80.7(2.2)	56.5(2.0)	85.4(3.0)	53.9	91.1	8.9
	여성	80.5(2.0)	59.6(1.9)	87.0(3.1)	56.5	85.8	14.2
연령	65~70세	81.4(2.1)	62.3(2.0)	88.4(3.1)	59.4	90.4	9.6
	71~74세	79.3(2.1)	51.2(1.9)	82.5(2.9)	48.5	84.9	15.1
혼인상태	유배우	82.7(2.1)	59.7(2.0)	87.6(3.1)	57.2	90.7	9.3
	무배우	69.1(1.8)	49.3(1.7)	78.3(2.9)	44.7	75.0	25.0
가구형태	1인가구	65.9(1.8)	46.0(1.7)	77.8(2.9)	41.3	76.2	23.8
	부부가구	78.7(2.0)	54.5(1.9)	84.8(3.0)	51.2	90.8	9.2
	기타 가구	90.2(2.3)	69.7(2.1)	92.2(3.1)	68.7	88.6	11.4
교육수준	중졸 이하	76.4(2.0)	52.7(1.8)	81.2(2.8)	50.6	86.9	13.1
	고졸	84.1(2.1)	61.5(2.0)	89.7(3.2)	58.5	88.3	11.7
	대졸 이상	79.4(2.4)	61.7(1.9)	87.9(3.4)	57.0	93.5	6.5
주관적 건강상태	나쁘다	63.6(1.7)	39.1(1.6)	71.8(2.9)	37.3	75.5	24.5
	보통	79.1(2.0)	53.8(1.9)	87.4(3.0)	51.4	86.9	13.1
	좋다	86.3(2.3)	67.0(2.1)	88.6(3.1)	63.7	92.8	7.2
종교	있음	78.6(2.2)	59.5(2.1)	86.6(3.3)	56.3	79.1	20.9
	없음	81.8(2.1)	57.3(1.8)	86.0(2.9)	54.7	93.8	6.2
거주지역	대도시	90.2(2.3)	66.7(2.1)	90.2(3.3)	65.2	89.6	10.4
	중소도시	73.1(1.9)	51.6(1.8)	82.8(2.8)	47.5	86.7	13.3
	농어촌	71.0(1.9)	48.6(1.8)	83.2(3.1)	45.8	89.7	10.3

주: 1) 다음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는 비율이며, ( )는 해당 사람 유무와 관련 없이 전체 응답자의 상황별 도움 요청 가능한 사람의 평균 수를 의미함.

2) A, B, C 상황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임.

3) 비공식관계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직장동료, 이웃을 의미하며, 공식관계는 종교시설,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구청 등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의미함. 1~2순위 응답에서 공식관계가 있는 경우 공식관계, 그렇지 않은 경우(모두 비공식관계만 응답한 경우) 비공식관계로 계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모든 상황에서 사회관계망 존재 비율이 높고 공식관계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 비율은 낮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 가구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낮고, 공식관계에 도움을 청한다는 응답 비율은 높다. 교육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학력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이 존재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특징적인 점은 대졸 이상 고학력의 경우 공식 관계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서, 비공식관계의 의존도가 높다.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수준이 나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 존재 비율이 낮고, 공식관계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다. 또한 종교별로는 종교가 있는 경우 공식관계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종교시설을 응답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 존재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도움 요청 시 공식관계자 여부는 거주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다.

〈표 5-12〉에 제시한 사회관계 특성별 노인의 불안 특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이 있는 경우 불안 수준이 낮은 경향이 확인된다. 도움 상황별로도 이러한 경향성이 대체로 유지된다.

실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 요청자가 공식관계인 경우 비공식관계인 경우에 비해 불안 수준이 높다. 그러나 사회불안의 적응/안전 영역과 개인 불안은 비공식관계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한 노인이 비공식관계라고 응답한 노인보다 불안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표 5-12〉 사회관계망 유무별 불안 수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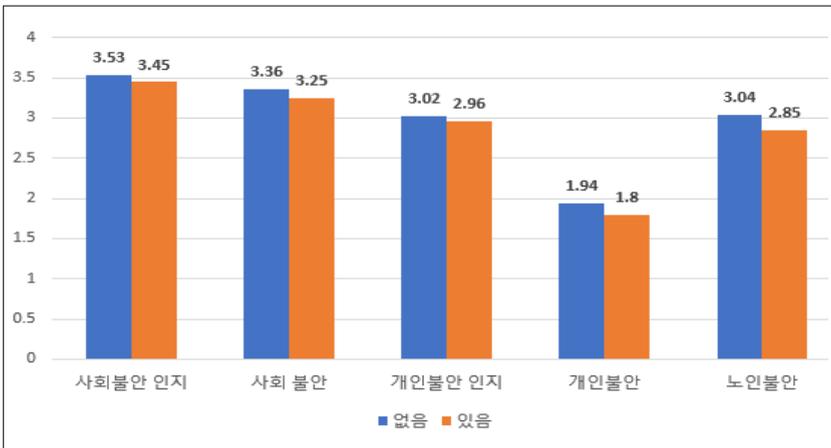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인지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 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 무망	불평등				
사회관계망 <sup>1)</sup>	없음	3.53	3.36	3.12	3.47	3.24	3.74	3.02	1.94	3.04
	있음	3.45	3.25	3.00	3.35	3.15	3.69	2.96	1.80	2.85
몸 아파 집안일 부탁할 사람(A)	없음	3.50	3.40	3.25	3.48	3.30	3.67	3.02	2.05	3.04
	있음	3.40	3.28	3.00	3.39	3.17	3.72	3.00	1.82	2.91
큰돈 빌릴 수 있는 사람(B)	없음	3.45	3.35	3.11	3.47	3.24	3.73	3.02	1.95	3.05
	있음	3.54	3.26	3.01	3.36	3.16	3.70	3.00	1.81	2.85
낙심-우울시 이야기 상대(C)	없음	3.51	3.41	3.30	3.48	3.32	3.63	3.04	2.01	3.12
	있음	3.35	3.28	3.01	3.39	3.17	3.72	2.98	1.83	2.91
도움요청자 <sup>2)</sup>	비공식관계	3.44	3.29	3.01	3.37	3.18	3.69	2.95	1.87	2.92
	공식관계	3.85	3.39	2.98	3.64	3.28	3.84	3.22	1.81	3.05

주: 1) A, B, C 상황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유무로 계산함.

2) 비공식관계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직장동료, 이웃을 의미하며, 공식관계는 종교시설, 주민 센터, 복지관, 보건소, 구청 등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의미함. 1~2순위 응답에서 공식관계가 있는 경우 공식관계, 그렇지 않은 경우(모두 비공식관계만 응답한 경우) 비공식관계로 계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4] 사회관계망 유무별 불안 수준

(단위: 점)



주: 몸 아플때 집안일 부탁할 사람,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우울시 이야기 상대 가 있는 경우 사회관계망 있음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5-13〉에서 사회불안의 상증하 분포별로 사회관계의 특성을 살펴 보면, 사회불안이 낮은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식관계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이처럼 경향성의 차이가 있는데, 불평등 영역의 경우 오히려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관계망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영역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적응/안전 영역의 경우 불안 수준이 낮은 경우 공식관계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표 5-13)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따른 사회관계

구분	진체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단위: %)														
사회관계망1)	50.8	54.0	64.5	45.0	56.8	60.6	52.2	55.3	62.7	54.3	52.2	59.9	54.8	59.4	52.7
몸 아파 집안일 부탁할 사람(A)	77.2	79.4	88.0	72.3	77.8	88.0	80.3	78.6	84.6	79.7	77.8	84.8	81.7	76.8	78.5
큰돈 빌릴 수 있는 사람(B)	53.5	57.8	65.8	47.3	61.7	62.0	54.7	59.3	64.2	56.7	55.6	62.6	58.2	60.7	52.7
낙심우울시 이야기 상대(C)	83.7	85.2	91.9	79.6	83.3	92.6	86.0	84.5	89.6	85.0	84.6	89.4	87.8	81.3	81.7
공식관계 도움요청2)	12.0	14.1	7.3	10.4	9.9	13.9	15.1	7.8	10.0	15.5	8.3	10.6	13.7	5.2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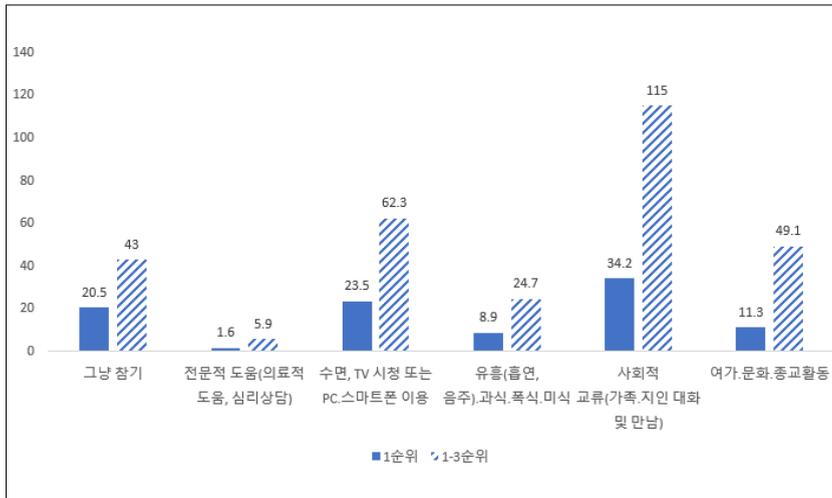
주: 1) A, B, C 상황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유무로 계산함.  
 2) 비공식관계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직장 동료, 이웃을 의미하며, 공식관계는 종교시설,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구청 등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의미함. 1~2순위 응답에서 공식관계가 있는 경우 공식관계, 그렇지 않은 경우(모두 비공식관계만 응답한 경우) 비공식관계로 계산함.  
 3) 사회불안 수준은 1~5점 척도에서 3.0점 미만 '하', 3.0~3.5점 미만 '중', 3.5점 이상 '상'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제4절 대처방식별 불안 비교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주로 사회적 교류, 수면·TV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 여가·문화·종교활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약물 복용 등 의료적 도움이나 심리상담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1순위 기준 1.6%, 1~3순위 중복 기준 5.9%). 또한 불안에 대처하지 않고 그냥 참는 노인들도 상당수 존재한다(1순위 기준 20.5%, 1~3순위 중복 기준 43.0%).<sup>11)</sup>

[그림 5-5] 불안 대처방식

(단위: %)



주: 1)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응답 기준.

2) 1~3순위 기준은 중복 응답을 합산하여 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11) 이 장은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의 우선순위가 아닌 일반적인 경향을 보기 위한 것이므로, 이후 분석은 1~3순위 중복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1순위 기준의 경우 사례수가 충분하여 주위해서 해석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 대처방식을 비교하면, 성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은 유희·과식·폭식·미식(35.1%)으로 불안에 대처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여성은 사회적 교류(121.0%)와 여가·문화·종교활동(51.8%)으로 불안에 대처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65~70세의 경우 여가·문화·종교활동(53.6%), 71~74세의 경우 그냥 참기(46.4%)와 수면, TV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66.3%)을 대처방식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혼인상태별로 유배우자인 경우는 유희·과식·폭식·미식(26.1%)과 여가·문화·종교활동(49.8%), 무배우자인 경우는 그냥 참기(55.3%)로 불안을 대처하는 비율이 높다. 가구형태별로 1인 가구는 그냥 참기(51.6%), 부부 가구는 유희·과식·폭식·미식(28.7%), 기타 가구는 여가·문화·종교활동(54.4%)로 사회불안을 대처한다는 응답이 높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종졸 이하의 저학력에서는 그냥 참기(51.6%), 대졸 이상 고학력에서는 여가·문화·종교활동(78.4%)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는 비율이 높다.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이 보통 이하(보통+나쁘다)인 경우 그냥 참기, 전문적 도움, 여가·문화·종교활동으로 불안에 대처한다는 응답이 높다.

종교별로는 종교가 있는 경우 여가·문화·종교활동(57.9%), 종교가 없는 경우 그냥 참기(45.1%)와 유희·과식·폭식·미식(27.3%)을 통해 불안에 대처한다는 응답이 높다. 거주지역별로 도시(대도시+중소도시)는 그냥 참기와 수면, TV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 농어촌은 사회적 교류와 여가·문화·종교활동을 통해 불안에 대응하는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은 불안 대처방식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종합하면, 그냥 참기와 수면, TV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 등 정적인 대처방식은 고연령, 저학력, 건강수준 나쁨, 도시 거주 노인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사회적 교류는 여성, 건강수준 보통 이상, 농어촌 거주 노인이, 여가·문화·종교활동은 여성, 저연령, 고학력, 유종교, 농어촌 거주 노인이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표 5-1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 대처방식

(단위: %)

구분		그냥 참기	전문적 도움 (의료적 도움, 심리상담)	수면, TV시청 또는 PC·스마트 폰 이용	유희(흡연, 음주)·과식·폭식·미식	사회적 교류 (가족·지인 대화 및 만남)	여가·문화·종교활동
전체		43.0	5.9	62.3	24.7	115.0	49.1
성별	남성	43.0	4.5	63.0	35.1	108.3	46.1
	여성	42.9	7.2	61.6	15.5	121.0	51.8
연령	65~70세	40.9	5.8	59.9	24.9	114.9	53.6
	71~74세	46.4	6.1	66.3	24.4	115.1	41.7
혼인상태	유배우	40.8	6.2	62.3	26.1	114.8	49.8
	무배우	55.3	4.6	62.4	16.5	115.9	45.3
가구형태	1인가구	51.6	4.0	61.0	17.5	116.6	49.3
	부부가구	43.5	6.0	63.5	28.7	112.1	46.2
	기타 가구	38.4	6.6	60.6	20.2	119.8	54.4
교육수준	중졸 이하	51.6	7.0	63.5	23.4	116.2	38.3
	고졸	40.3	5.0	63.3	25.3	114.9	51.2
	대졸 이상	24.3	6.5	53.3	26.2	111.3	78.4
주관적 건강상태	나쁘다	46.4	9.0	64.5	23.7	102.7	53.7
	보통	47.8	7.0	58.1	21.1	114.9	51.1
	좋다	37.5	4.0	65.9	28.5	118.2	45.9
종교	있음	39.4	5.9	60.7	20.3	115.8	57.9
	없음	45.1	5.8	63.3	27.3	114.6	43.9
거주지역	대도시	45.0	7.2	64.5	23.5	114.2	45.6
	중소도시	42.3	4.1	62.6	27.4	112.9	50.7
	농어촌	37.4	8.4	51.4	18.6	127.2	57.0

주: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의 1~3순위 중복 응답을 합산하여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이러한 대처방식별 노인들의 불안 수준을 비교 분석하면, 대처방식 간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전문적 도움(3.55점)이나 사회적 교류(3.52점)로 불안에 대처하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 인지가 조금 높다. 또한 전문적 도움(3.27점)이나 유희·과식·폭식·미식(3.26점)으로 대처하는 경우 적응/안전 영역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조금 높다.

〈표 5-15〉 불안 대처방식별 불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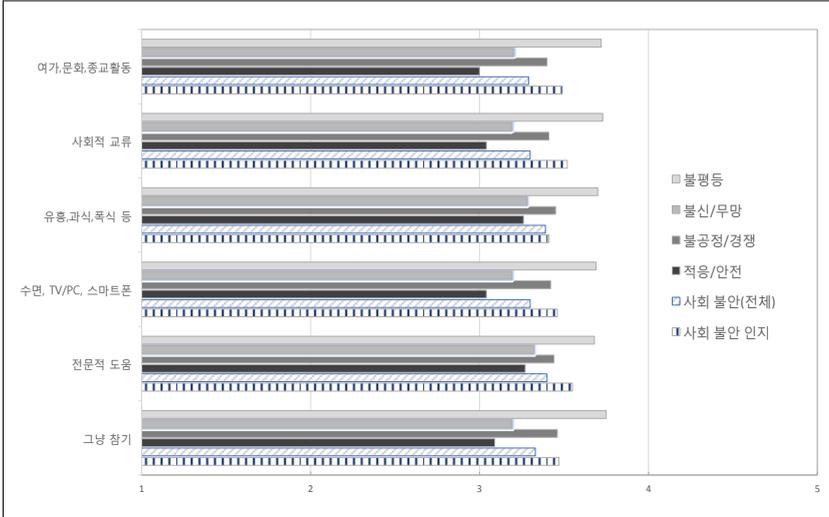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 불안 인지	개인 불안	노인 불안
		전체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			
그냥 참기	3.47	3.33	3.09	3.46	3.19	3.75	3.02	1.93	3.03
전문적 도움 (의료적 도움, 심리상담)	3.55	3.40	3.27	3.44	3.32	3.68	3.05	2.05	3.08
수면, TV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	3.46	3.30	3.04	3.42	3.19	3.69	2.99	1.88	2.93
유희(흡연, 음주) ·과식·폭식·미식 등	3.41	3.39	3.26	3.45	3.28	3.70	3.01	1.93	3.01
사회적 교류 (가족지인 대화 및 만남)	3.52	3.30	3.04	3.41	3.19	3.73	3.01	1.83	2.93
여가문화·종교활동	3.49	3.29	3.00	3.40	3.20	3.72	2.97	1.86	2.88

주: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의 1~3순위 중복 응답 기준이며 1~5점 중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함. 다만 개인불안은 1~4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6] 불안 대처방식별 사회적 불안 수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사회적 불안의 상중하 분포별 대처방식의 전반적인 경향은 불안이 높은 경우 그냥 참기와 유희·과식·폭식·미식, 불안이 낮은 경우 사회적 교류와 여가·문화·종교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높다.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경우 유희·과식·폭식·미식(30.1%)으로 대처하는 반면, 사회적 불안이 낮은 경우 사회적 교류(118.8%)와 여가·문화·종교활동(55.6%)으로 대처하는 비율이 높다(전체 기준).

그러나 사회적 불안 영역별로는 차이가 있으며, 먼저 영역별 불안이 낮은 경우 불평등 영역을 제외하고 불안 수준이 낮은 경우 공통적으로 사회적 교류와 여가·문화·종교활동으로 대처한다는 비율이 높다. 불평등 영역은 불안의 상중하 분포에 따른 대처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다. 영역별 불안이 높은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적응/안전의 불안이 높은 경우 그냥 참기(47.0%), 유희·과식·폭식·미식(38.5%)과 함께 전문적 도움(8.0%)을

받는다는 응답도 높으며, 불공정/경쟁의 불안이 높은 경우 그냥 참기(46.0%)를 통해 대처한다는 응답이 높다. 불신/불망 영역의 불안이 높은 경우에는 여가·문화·종교활동(51.8%)과 유흥·과식·폭식·미식(27.3%)으로 대처하는 비율이 높다.

이상에서 노인의 대처방식별 불안 특성을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사회적 교류와 여가·문화·종교활동 등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를 통해 대처하는 반면,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그냥 참기 또는 유흥·과식·폭식·미식을 통해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회적 교류나 여가·문화·종교활동이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사회적 불안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불안에 대해 그냥 참거나 유흥·과식·폭식·미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분석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선택한 불안 대처방법은 사회적 교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노인의 단체·모임활동으로 대표되는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회관계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교류의 역할도 조명하고자 한다.

〈표 5-16〉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따른 대처방식

(단위: %)

구분	진체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그냥 참기	44.3	45.3	37.2	47.0	43.5	40.1	46.0	42.2	36.8	40.1	47.9	41.4	43.6	41.3	40.9
전문적 도움(의료적 도움, 심리상담)	8.5	3.3	6.3	8.0	7.4	3.4	6.3	5.2	6.0	8.1	5.6	3.7	5.7	5.8	7.5
수면, TV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	61.6	62.8	62.4	61.5	60.2	64.4	63.6	62.4	59.2	59.9	68.3	59.0	61.2	68.3	61.3
유흥(흡연, 음주)과식폭삭미식 등	30.1	22.6	19.7	38.5	25.0	15.8	26.8	23.3	22.0	27.3	26.2	19.8	24.4	24.6	26.8
사회적 교류(가족지인 대화 및 만남)	108.2	119.1	118.8	103.1	118.3	120.0	108.6	120.2	121.8	112.8	108.9	124.2	115.9	112.9	111.9
여가문화-종교활동	47.3	46.9	55.6	41.9	45.6	56.3	48.7	46.7	54.2	51.8	43.1	51.9	49.2	47.1	51.6

주: 1)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의 1~3순위 중복 응답 기준임.

2) 사회불안 수준은 1~5점 척도에서 3.0점 미만 '하', 3.0~3.5점 미만 '중', 3.5점 이상 '상'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제5절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기초통계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기 위해 투입한 변수와 조작적 정의는 <표 5-17>과 같다. 종속변수는 사회적 불안 인지와 사회적 불안 수준이 있다. 사회적 불안 인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 5점 리커트 척도 결과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을 높게 인지한다. 사회적 불안 수준은 제2장에서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된 24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다. 사회적 불안 수준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이다.

독립변수인 사회참여는 단체·모임활동에 해당하는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공공 여가문화시설 참여와 메신저 SNS 등 온라인활동이 해당한다. 사회참여 변수는 더미처리하여 참여인 경우 1이 된다.

사회관계는 사회관계망 유무와 사회관계망의 크기의 2가지로 변수를 투입한다. 먼저 이 장의 제3절에서 설명한 세 가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관계망 유무로 보고 ‘있음=1’, ‘없음=0’의 더미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도구적 도움), 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경제적 도움),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정서적 도움)에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사회관계가 두텁게 마련되어 있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세 가지 상황에서 각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를 합산하였다.

그 외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며 자세한 설명은 <표 5-17>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5-17> 모형 투입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영역	변수명	변수처리
사회불안 (종속 변수)	사회불안 인지	노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의 불안 수준을 1개 문항으로 조사한 것이며, 분포는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을 높게 인지함.
	사회불안 (영역1) 적응/안전 (영역2) 불공정/경쟁 (영역3) 불신/무망 (영역4) 불평등	사회불안 측정척도 24개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임. 1~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음.
	정치사회모임	해당 모임이나 활동에 '가끔 활동한다'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로 응답한 경우 참여로 계산하여 더미변수, 0=미참여, 1=참여
	종교모임	
친목모임		
공공 여가문화시설 온라인활동		
사회관계	사회관계망 유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사회관계망 크기	위의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더미변수, 0=여성, 1=남성
	연령	만 연령
	교육수준	졸업학력 기준으로 교육연수 변환. 값은 0~16년(무학~대학원 이상)으로 분포
	혼인상태	더미변수, 0=무배우, 1=유배우
	지역	더미변수, 0=대도시 및 중소도시, 1=농어촌
	가구원 수	응답자 본인 포함 가구원 수
	주관적 건강상태	더미변수, 0=보통 이상, 1=나쁨
경제적 요인	가구소득	가구소득을 로그화
	가구재산	조사된 재산 구간의 중앙값을 로그화
	경제활동	더미변수, 0=미취업, 1=취업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조사한 6개 문항 중 부정적 영향 '있음'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1로 합산, 값은 0~6 개 분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사회참여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공공 여가문화시설은 최소 1점에서 최대 3점이며, 평균은 친목모임이 2.0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사회모임은 1.09로 가장 낮다. 반면에, 온라인 활동은 최소 0점에서 최대 1점이며, 평균은 0.84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변수의 경우, 사회관계망 유무는 최소 0, 최대 1이며 평균 0.55로 사회관계망이 있는 비율이 없는 비율보다 조금 더 높다. 사회관계망 크기는 최소 0명, 최대 33명이며 평균 5.46명이다.

〈표 5-18〉 사회참여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단위: %, 명, 만 원)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사회 참여	정치·사회모임	1	3	1.09(0.305)
	종교모임	1	3	1.42(0.643)
	친목모임	1	3	2.0(0.615)
	공공 여가문화시설	1	3	1.27(0.476)
	온라인활동	0	1	0.84(0.370)
사회 관계	사회관계망 유무	0	1	0.55(0.497)
	사회관계망 크기	0	33	5.46(3.764)

주: 1) 사회불안은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인지 혹은 불안 수준이 높다는 의미임.

2) 사회참여에서 1은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2는 가끔 활동한다, 3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이며, 다만 온라인활동은 0 미참여, 1 참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2.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모형 1), 정치·사회모임 참여는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반면 종교모임은 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친목모임, 공공 여가문화시설, 온라인 활동은 사회적 불안 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제변수 중 지역, 가구소득, 경제활동,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유의미하다. 거주지역이 농어촌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지를 낮춘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 사회적 불안 인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수준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2),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참여는 정치·사회모임(-관계)과 종교모임(+관계)이라는 것과 차이가 있다. 통제변수 중 가구원 수, 지역,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불안 수준을 낮춘다. 반면 도시 대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 수준의 영역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적응/안전 영역(모형 3)의 경우 정치·사회모임이나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적응/안전의 불안이 높아지는 반면, 종교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적응/안전 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수 중 가구원 수, 지역, 가구재산,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은 적응/안전의 불안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적응/안전 불안 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도시 대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재산이 많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한 경우 적응/안전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공정/경쟁 영역(모형 4)에서는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있는 경우 불공정/경쟁에서 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재산이 많을수록 불공정/경쟁에서 불안 수준이

낮아진다.

불신/무망 영역(모형 5)에서는 친목모임이나 온라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구원 수가 많을 수록 불신/무망 영역의 불안 수준이 감소하는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있는 경우 불신/무망의 불안 수준이 증가한다.

불평등 영역(모형 6)은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사회참여와 사회불안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모임이나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이 감소하는 반면, 공공 여가문화 시설이나 온라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이 증가하였다. 통제변수 중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있는 경우 불평등의 불안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례수: 1,000명)		사회불안 인지 (모형1)		사회불안									
					전체(모형2)		적응/안전(모형3)		불공정/경쟁(모형4)		불신/무명(모형5)		불평등(모형6)	
	Coef.	S. E.	Coef.	S. E.	Coef.	S. E.	Coef.	S. E.	Coef.	S. E.	Coef.	S. E.	Coef.	S. E.
사회 참여 (0= 미참여)	정치·사회포임	0.107	0.056	0.074	0.056	0.367***	0.072	-0.039	0.068	0.087	0.070	-0.263***	0.071	
	종교포임	0.153*	0.033	-0.033	0.033	-0.088*	0.043	0.001	0.040	-0.007	0.041	-0.033	0.042	
	친목포임	0.017	0.074	0.076†	0.039	0.154***	0.050	0.102*	0.047	0.097**	0.049	-0.137***	0.049	
	공공 여가문화시설 온라인활동	0.060	0.067	0.004	0.035	-0.065	0.046	0.059	0.043	-0.044	0.044	0.102*	0.045	
		-0.110	0.085	0.055	0.045	-0.051	0.058	0.075	0.055	0.096†	0.056	0.144*	0.057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0=여성)	0.034	0.064	0.010	0.034	0.047	0.043	-0.015	0.041	-0.009	0.042	0.015	0.042	
	연령	0.003	0.011	0.004	0.006	0.007	0.007	-0.001	0.007	0.002	0.007	0.009	0.007	
	교육수준	0.024	0.013	0.007	0.007	-0.013	0.009	0.019*	0.008	0.008	0.008	0.021*	0.009	
	혼인상태(0=무배우)	0.074	0.091	-0.032	0.048	-0.108†	0.062	0.027	0.058	-0.048	0.060	0.018	0.061	
	가구원 수	0.018	0.039	-0.052**	0.021	-0.054*	0.026	-0.060*	0.025	-0.052*	0.026	-0.035	0.026	
경제적 요인	지역(0=도시)	-0.168†	0.101	0.131***	0.053	0.268***	0.068	0.014	0.064	0.096	0.066	0.152*	0.067	
	주관적 건강상태 (0=보통 이상)	0.015	0.095	0.088†	0.050	0.101	0.065	0.069	0.061	0.188**	0.062	-0.053	0.063	
	가구소득	-0.189**	0.059	0.004	0.031	-0.030	0.040	0.018	0.038	0.035	0.039	-0.008	0.039	
	가구재산	-0.032	0.037	0.005	0.020	0.077**	0.025	-0.060*	0.024	0.002	0.024	-0.005	0.025	
	경제활동(0=미취업)	-0.111†	0.063	-0.009	0.033	0.030	0.043	-0.046	0.040	-0.050	0.041	0.051	0.042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		0.143***	0.023	0.098***	0.012	0.085***	0.016	0.122	0.015	0.086***	0.015	0.099***	0.016	
	상수	4.302***	0.877	2.766***	0.462	2.004	0.596	3.626***	0.560	2.608***	0.575	2.826***	0.584	
사례수						1,000								
R <sup>2</sup>		0.0889		0.0993		0.1049		0.1168		0.0637		0.0917		

주: † <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3. 사회적 불안과 사회참여 간의 사회관계 조절효과

#### 가. 사회관계의 조절효과 : 사회관계망 유무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인지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항, 사회관계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모형 7)  $R^2$ 가 증가하여 모형 설명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모형 1  $R^2$ : 0.0889→모형 7  $R^2$ : 0.0909). 사회관계,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정치·사회모임의 사회적 불안 인지와의 음(-)의 관계는 유지되는데, 종교모임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 대신 온라인활동이 사회적 불안 인지와 새롭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온라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지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수준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항, 사회관계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모형 8) 모형 설명력이 높아졌다( $R^2$ : 0.0993→0.1121). 친목모임과 사회적 불안 수준의 양(+)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미성과 계수값이 커졌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불안 수준이 낮아진다. 그리고 정치·사회모임 및 온라인활동과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관계, 종교모임과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사회관계는 사회참여와 상호작용하며, 사회참여가 사회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관계가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참여와 적응/안전의 불안 수준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항, 사회관계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모형 9) 모형 설명력이 높아졌다( $R^2$ : 0.1049→0.1235). 정치·사회모임과 사회적 불안 수준의 양(+)의 관계, 친목모임과 사회적 불안 수준의 양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미성과

계수값이 작아졌으며, 종교모임은 더 이상 적응/안전의 불안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대신 공공 여가문화시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적응/안전의 불안과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사회관계는 적응/안전의 불안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 상호작용항의 양의 관계, 종교모임과 사회관계 상호작용항의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조절 효과 모형을 통해 정치·사회모임의 계수값 감소와 종교모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진 것과 관련 있다. 즉 이들 단체모임활동은 사회관계를 통해 적응/안전의 불안 수준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활동과 사회관계 상호작용은 조절효과 모형에서 새롭게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사회참여와 불공정/경쟁의 불안 수준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항, 사회관계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모형 10) 모형 설명력이 높아졌다( $R^2: 0.1168 \rightarrow 0.1273$ ). 친목모임과 사회적 불안 수준의 양의 관계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계수값이 커졌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과 사회관계 상호작용항은 불공정/경쟁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와 불신/무망의 불안 수준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항, 사회관계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모형 11) 모형 설명력이 높아졌다( $R^2: 0.0637 \rightarrow 0.0734$ ). 친목모임과 불신/무망 불안의 양(+)의 관계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온라인활동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절효과에서는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 상호작용항의 양의 관계, 종교모임과 사회관계 상호작용항의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참여와 불평등의 불안 수준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항, 사회관계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모형 12) 모형 설명력이

높아졌다( $R^2$ : 0.0917→0.0967). 그리고 친목모임, 공공 여가문화시설, 온라인활동은 더 이상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모임 참여만 불평등의 불안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참여와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은 다른 사회불안 수준 영역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20〉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간의 사회관계 조절효과: 사회관계망 유무

구분	사회불안 인지 (모형7)		전체(모형8)		적응/인지(모형9)		사회불안 불공정/경쟁(모형10)		불신/무임(모형11)		불평등(모형12)		
	Coef.	S. E.	Coef.	S. E.	Coef.	S. E.	Coef.	S. E.	Coef.	S. E.	Coef.	S. E.	
사회 참여 참여 (0=미참여)	정치사회모임	-0.308*	0.144	-0.019	0.076	0.232*	0.097	-0.092	0.092	-0.028	0.094	-0.318**	0.096
	종교모임	0.152	0.094	0.032	0.049	0.032	0.063	0.051	0.060	0.085	0.061	-0.080	0.062
	친목모임	0.054	0.099	0.108*	0.052	0.121†	0.067	0.181**	0.063	0.132*	0.065	-0.081	0.066
	공공 여가문화시설	0.079	0.098	-0.031	0.052	-0.109†	0.066	0.025	0.062	-0.091	0.064	0.097	0.065
	온라인활동	-0.192†	0.107	0.005	0.056	-0.110	0.072	-0.003	0.068	0.097	0.070	0.083	0.071
	성별(0=여성)	0.040	0.064	0.012	0.034	0.048	0.043	-0.009	0.041	-0.010	0.042	0.022	0.043
	연령	0.003	0.011	0.004	0.006	0.007	0.007	-0.001	0.007	0.003	0.007	0.009	0.007
	교육수준	0.025†	0.013	0.007	0.007	-0.015†	0.009	0.018*	0.008	0.008	0.008	0.022*	0.009
	혼인상태(0=무배우)	0.062	0.092	-0.044	0.048	-0.128*	0.062	0.017	0.059	-0.055	0.060	0.014	0.061
	가구원 수	0.013	0.039	-0.049*	0.021	-0.047†	0.027	-0.058*	0.025	-0.047†	0.026	-0.039	0.026
경제적 요인	지역(0=도시)	-0.165	0.101	0.134*	0.053	0.274***	0.068	0.016	0.064	0.095	0.066	0.153*	0.067
	주관적 건강상태(0=보통 이상)	0.021	0.096	0.082	0.050	0.093	0.064	0.065	0.061	0.178**	0.062	-0.053	0.064
	가구소득	-0.188**	0.059	0.005	0.031	-0.031	0.040	0.023	0.038	0.034	0.039	-0.006	0.040
	가구재산	-0.035	0.038	0.006	0.020	0.083***	0.025	-0.063**	0.024	0.006	0.025	-0.005	0.025
	경제활동(0=미취업)	-0.110†	0.063	-0.006	0.033	0.031	0.042	-0.042	0.040	-0.048	0.041	0.054	0.042
	사회관계(0=없음)	-0.081	0.180	-0.161†	0.094	-0.331***	0.121	-0.136	0.114	-0.039	0.118	-0.091	0.120
	정치사회모임 × 사회관계	0.089	0.212	0.198†	0.111	0.296*	0.143	0.112	0.134	0.230†	0.138	0.128	0.141
	종교모임 × 사회관계	-0.005	0.124	-0.122†	0.065	-0.227**	0.084	-0.093	0.079	-0.167*	0.081	0.079	0.082
	친목모임 × 사회관계	-0.086	0.152	-0.034	0.080	0.132	0.102	-0.144	0.096	-0.044	0.099	-0.118	0.101
	공공 여가문화시설 × 사회관계	-0.049	0.134	0.048	0.070	0.060	0.090	0.043	0.085	0.072	0.087	0.000	0.089
온라인활동 × 사회관계	0.208	0.162	0.155†	0.085	0.197†	0.109	0.224*	0.103	0.025	0.106	0.156	0.108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	0.144***	0.023	0.097***	0.012	0.083***	0.016	0.122***	0.015	0.084***	0.015	0.099***	0.016	
상수	4.332***	0.884	2.764***	0.463	2.032**	0.595	3.629***	0.561	2.537***	0.577	2.868***	0.588	
사례수	1,000												
R <sup>2</sup>	0.0909		0.1121		0.1235		0.1273		0.0734		0.0967		

주: †(0.1), \*(0.05), \*\*\*(0.01),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나. 사회관계의 조절효과 : 사회관계망의 크기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인지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 크기의 상호작용항, 사회관계망 크기를 모형(모형 13)에 투입한 결과  $R^2$ 가 증가하여 모형 설명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0.0889→0.0953). 사회관계는 사회적 불안 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사회참여와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리고 정치·사회모임은 사회불안 인지와 음(-)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종교모임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 대신 온라인활동이 사회불안 인지와 새롭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온라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불안 인지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사회관계망 유무로 살펴본 조절효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항, 사회관계망의 크기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모형 14) 모형 설명력이 높아졌다( $R^2$ : 0.0993→0.1244). 친목모임과 사회적 불안 수준의 양(+)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미성과 계수값이 커졌으며,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낮아진다. 그리고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관계, 종교모임과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사회참여와 상호작용하며, 사회참여가 사회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참여와 적응/안전의 불안 수준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 크기의 상호작용항, 사회관계망 크기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모형 15) 모형 설명력이 높아졌다( $R^2$ : 0.1049→0.1469). 정치·사회모임과 사회적 불안 수준의 양(+)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미성과 계수값이 작아졌지만, 친목모임과 사회적 불안 수준의 양의 관계는 오히려 커졌다. 종교모임은 더

이상 적응/안전의 불안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적응/안전의 불안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 상호작용항의 양의 관계, 종교모임과 사회관계 상호작용항의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조절효과 모형을 통해 정치·사회모임의 계수값 감소와 종교모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진 것과 관련 있다. 즉 이들 단체모임활동은 사회관계를 통해 적응/안전의 불안 수준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참여와 불공정/경쟁의 불안 수준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 크기의 상호작용항, 사회관계망 크기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모형 16) 모형 설명력이 높아졌다( $R^2$ : 0.1168→0.1308). 친목모임과 사회적 불안 수준의 양의 관계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계수값이 커졌다. 조절변수에서 사회관계망 크기는 불공정/경쟁 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친목모임 참여와 사회관계 상호작용은 불공정/경쟁 불안을 낮추는 반면, 온라인활동 참여와 사회관계 상호작용은 불공정/경쟁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와 불신/무망의 불안 수준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 크기의 상호작용항, 사회관계망 크기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모형 17) 모형 설명력이 높아졌다( $R^2$ : 0.0637→0.0797). 친목모임과 불신/무망 불안의 양의 관계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온라인활동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절효과에서는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 상호작용항의 양의 관계, 종교모임과 사회관계 상호작용항의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참여와 불평등의 불안 수준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 크기의 상호작용항, 사회관계망 크기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모형 18) 모형 설명력이 높아졌다( $R^2$ : 0.0917→0.0976). 그리고 정치·사회모임 참여만

불평등의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으나, 친목모임, 공공여가문화시설, 온라인활동은 더 이상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와 사회관계의 상호작용은 불평등의 불안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21〉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간의 사회관계 조절효과 : 사회관계망 크기

구분	사회불안 인지 (모형13)			사회불안			사회불안			사회불안					
	Coef.	S. E.		Coef.	S. E.		Coef.	S. E.		Coef.	S. E.				
사회 참여 참여 (0=미참여)	정치사회모임	-0.273†	0.145	-0.055	0.076	0.165†	0.096	-0.117	0.092	-0.056	0.094	-0.332**	0.096		
	종교모임	0.150	0.093	0.047	0.049	0.062	0.062	0.062	0.059	0.092	0.061	-0.072	0.062		
	친목모임	0.069	0.095	0.132**	0.049	0.171**	0.063	0.202**	0.060	0.137*	0.062	-0.067	0.063		
	공공 여가문화시설	0.078	0.098	-0.018	0.051	-0.083	0.065	0.035	0.062	-0.085	0.064	0.103	0.065		
	온라인활동	-0.175†	0.101	-0.035	0.053	-0.047	0.067	0.022	0.064	0.103	0.066	0.101	0.067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0=여성)	0.040	0.064	0.009	0.033	0.042	0.043	-0.012	0.041	-0.012	0.042	0.021	0.043		
	연령	0.003	0.011	0.004	0.006	0.008	0.007	0.000	0.007	0.003	0.007	0.009	0.007		
	교육수준	0.025*	0.013	0.007	0.007	-0.014	0.009	0.019*	0.017	0.008	0.008	0.022*	0.009		
	혼인상태(0=무배우)	0.069	0.092	-0.045	0.048	-0.129*	0.061	0.017	0.058	-0.058	0.060	0.014	0.061		
	가구원 수	0.011	0.039	-0.049*	0.021	-0.047†	0.026	-0.058*	0.025	-0.047†	0.026	-0.039	0.026		
경제적 요인	지역(0=도시)	-0.181†	0.101	0.145**	0.053	0.294***	0.067	0.023	0.064	0.106	0.066	0.157*	0.067		
	주관적 건강상태(0=보통 이상)	0.028	0.095	0.075	0.050	0.082	0.064	0.060	0.061	0.173**	0.062	-0.055	0.064		
	가구소득	-0.197**	0.059	0.012	0.031	-0.018	0.040	0.028	0.038	0.040	0.039	-0.003	0.040		
	가구재산	-0.039	0.038	0.010	0.020	0.089***	0.025	-0.061*	0.024	0.009	0.025	-0.004	0.025		
	경제활동(0=미취업)	-0.102	0.063	-0.013	0.033	0.019	0.042	-0.047	0.040	-0.054	0.041	0.051	0.042		
조절 효과	사회관계(0=없음)	0.022*	0.010	-0.021***	0.005	-0.039***	0.007	-0.015*	0.006	-0.017**	0.007	-0.008	0.007		
	정치사회모임 × 사회관계	0.077	0.211	0.202†	0.110	0.303*	0.141	0.115	0.134	0.236†	0.138	0.129	0.141		
	종교모임 × 사회관계	-0.016	0.123	-0.130*	0.064	-0.244**	0.082	-0.100	0.078	-0.166*	0.080	0.074	0.082		
	친목모임 × 사회관계	-0.184	0.131	-0.048	0.069	0.091	0.088	-0.164†	0.084	-0.015	0.086	-0.136	0.088		
	공공 여가문화시설 × 사회관계	-0.035	0.133	0.011	0.069	-0.011	0.088	0.015	0.084	0.051	0.087	-0.017	0.088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	온라인활동 × 사회관계	0.115	0.128	0.109	0.067	0.093	0.085	0.178*	0.081	0.039	0.083	0.123	0.085		
	상수	0.151***	0.024	0.091***	0.012	0.072***	0.016	0.117***	0.015	0.079***	0.015	0.097***	0.016		
총수	4.315***	0.878	2.677***	0.458	1.858**	0.585	3.558***	0.558	2.506***	0.573	2.823***	0.585			
R <sup>2</sup>	0.0953			0.1244			0.1469			0.1308			0.0797		

주: † (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 사회적 관계 경험과 인식 조사.

## 제6절 소결

이 장은 65~74세 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며,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노인들의 대처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관계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단체·모임활동 참여별 사회적 불안의 특성을 살펴보면, 단체·모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회불안 인지 점수가 높지만 사회불안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사회불안이 낮다고 인지하지만, 더 정밀하게 측정한 사회불안 수준은 오히려 미참여자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노인의 사회불안 인지는 실제 사회불안 수준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단체·모임활동과 사회불안의 관계는 좀 더 정교한 모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기기 활용수준별 사회불안 분석 결과에서 사회불안과 전자기기 활용수준의 관계는 대체로 정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이나 활용하면서 알게 되는 다양한 정보로 인해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적 관계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회관계별 사회불안 분석에서는 사회불안이 낮은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식관계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이처럼 경향성의 차이가 있는데, 불평등 영역의 경우 오히려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관계망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영역과 차이를 보였다.

노인의 대처방식별 불안 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사회적 교류와 여가문화·종교 활동 등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를 통해 대처하는 반면,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그냥 참기 또는 유희·과식·폭식·미식을 통해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회적 교류나 여가·문화·종교 활동이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사회적 불안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불안에 대해 그냥 참기나 유희·과식·폭식·미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분석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선택한 불안 대처방법은 사회적 교류(1순위 기준 34.2%, 1~3순위 중복 기준 115%)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단체·모임활동으로 대표되는 사회참여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회관계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교류의 역할도 조명하였다.

노인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는 모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를 요약하면 <표 5-22>와 같다.

모형 설명력이 가장 높았던,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를 기준으로 이 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노인의 친목모임 참여는 사회적 불안 수준을 높이지만 사회관계는 사회적 불안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외 종교모임이나 공공 여가 문화시설, 온라인활동은 사회적 불안 수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관계가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만, 사회참여가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표 5-22〉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사회관계 종합

구분	사회불안 인지	사회불안				
		전체	적응/안전	불공정/ 경쟁	불신/무망	불평등
정치·사회모임	(-)		(+)			- (-)
종교모임	(+)		(-)			
친목모임		+	+ (+)	+ (+)	+ (+)	(-)
공공 여가문화시설						(+)
온라인활동						(+)
사회관계	+	-	-	-	-	
정치·사회모임×사회관계			+			
종교모임×사회관계		-	-		-	
친목모임×사회관계						
공공 여가문화시설×사회관계						
온라인활동×사회관계				-		

주: 1) 통계적 유의미 수준 5% 이내(\* p<0.05, \*\* p<0.01, \*\*\* p<0.001)를 기준으로 작성함.

2) 사회관계망 크기 기준의 사회관계 조절효과 모형 결과이며, ( )는 사회관계 조절효과를 투입하지 않은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시점에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집단인 65~74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모든 분석모형에서 일관되게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이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을 관찰하고,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크게 위축된 시기에 수행된 조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로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단정 짓기는 다소 어렵다는 것을 밝힌다. 그 이유는 종교모임과 공공 여가문화시설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교회, 여가시설 등의 이용 중단과 폐쇄 등으로 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여하기가 어려웠으며, 정치·사회모임은 노인의 8.6%가 참여하는 등 아직 노인의 사회참여 영역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대다수(81.1%)가 친목모임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노인들이 감염 위험과 그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수하고 소규모 단위의 대면 친목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안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감수하고 친목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임 구성원들과의 끈끈한 사회관계가 정신적인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6장

## 결론

제1절 종합적 분석

제2절 연구 결과 요약

제3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제 6 장    결론

이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65~74세의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의 일반성과 특수성 등을 규명하고, 정책적 대응지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해 대면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선행연구 검토와 더불어, 2차 연도에 개발한 설문조사 문항을 3차 연도의 연구 대상인 노인에 맞춰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모집단은 지역,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표본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이 겪는 사회적 불안 경험과 수준, 소득과 사회적 불안,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간의 관계와 사회불안 경험에 따른 노인의 대처기제 그리고 사회불안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 제1절 종합적 분석

본 절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한 노인의 다양한 특성 변인들을 활용하여 ‘노인의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개인불안’, ‘노인 불안’의 원인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의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는 우리 사회에 대한 노인의 사회적 인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현재 세대의 지위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우리 사회의 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을 높게 인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 불안은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원인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전체와 5가지 요인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전체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사건을 경험할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우리 사회의 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지원망 수가 적을수록, 현재 근로를 하고 있을수록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불안의 영역별 원인을 살펴보면, 적응/안전 불안은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였을수록, 우리 사회의 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지원망 수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현재 근로를 하고 있을수록 높았다. 불공정/경쟁 불안은 무배우자일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높았다. 불신/무망 불안은 차별 경험이 있을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우리 사회의 지위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높았다. 불평등 불안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개인불안은 차별 경험이 있을수록,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였을수록, 미래 세대의 지위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노인의 사회적 불안 원인 분석 결과

영역	구분		사회불안																	
	사회불안 인지		전체				적응/인전				불공정/경쟁				불평등				개인불안	
	β	Sig.	β	Sig.	β	Sig.	β	Sig.	β	Sig.	β	Sig.	β	Sig.	β	Sig.	β	Sig.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성별(1=남)	.668	.023	-.055	.244	-.102	.037	-.047	.345	.045	.384	-.059	.236	-.064	.167					
	연령	.162	.073	.022	.637	-.008	.858	.066	.168	-.032	.521	.051	.285	-.073	.103					
	교육수준	.692	.024	.006	.916	-.138	.013	.099	.081	-.004	.943	.118	.038	-.099	.063					
개인적 경험	혼인상태(1=유배우)	.056	-.102	-.043	.356	.045	.351	-.106	.030	-.043	.404	-.046	.352	.026	.579					
	가구규모(가구원 수)	.874	.009	.026	.603	-.018	.732	.060	.253	.042	.451	-.004	.935	-.046	.356					
	거주지역 (1=대도시, 0=그 외 지역)	.292	.058	.077	.108	.081	.102	.076	.130	-.021	.698	.117	.021	-.005	.921					
	박탈 경험 여부	.338	.054	.010	.839	.053	.298	-.031	.553	-.025	.656	.036	.488	.043	.379					
사회적 인지	차별 경험 여부	.513	.037	.074	.139	.023	.659	.060	.250	.129	.019	.024	.653	.191	.000					
	사회적 사건 경험 여부	.222	.067	.097	.045	.119	.018	.079	.120	.016	.767	.086	.093	.112	.019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경험 여부	.553	.031	.021	.656	-.038	.425	.062	.202	-.017	.737	.086	.078	-.074	.108					
	사회신뢰도	.004	-.175	-.116	.028	-.080	.140	-.118	.033	-.135	.020	-.010	.859	-.053	.303					
사회적 인지	지위 상승 가능성	.047	-.131	-.085	.144	-.012	.840	-.110	.070	-.133	.038	-.005	.936	.100	.081					
	미래 사회이동성	.325	.061	-.012	.826	-.015	.782	.031	.582	-.065	.274	.012	.838	-.124	.021					
	차별 인식	.000	.222	.109	.030	.231	.000	-.016	.759	.061	.266	.030	.572	.001	.984					
불평등 인식	.270	.062	.379	.000	.195	.000	.418	.000	.221	.000	.406	.000	-.025	.607						

영역	구분	변수	사회불안 인지		사회불안						개인불안					
			β	Sig.	전체		적응/안전		불공정/경쟁		불신/무망		불평등			
					β	Sig.										
사회적 관계망	개인	심리적 지원망 수	-.007	.895	-.088	.043	-.125	.005	-.045	.319	-.056	.245	-.031	.503	-.055	.203
		자아존중감	.053	.293	-.074	.096	-.143	.002	-.069	.138	-.034	.486	.075	.109	-.260	.000
		심리적 요인	.026	.617	-.003	.946	-.021	.653	.012	.799	-.063	.215	.091	.059	-.249	.000
개인 진강적 요인	개인	삶의 만족도	-.103	.050	-.077	.095	-.040	.394	-.084	.079	-.007	.893	-.136	.005	.004	.936
		주관적 진강상태 (1=나쁨, 0=보통 이상)	.038	.435	.050	.243	.060	.174	.028	.533	.050	.296	.010	.831	.058	.168
		재신(중간값 환산)	-.001	.984	.028	.635	.121	.043	-.101	.096	.067	.293	-.016	.789	.054	.341
개인 경제적 요인	개인	소득(균등화소득)	-.039	.490	-.007	.893	.016	.746	-.007	.887	.048	.380	-.115	.027	-.023	.643
		주거형태 (1=자가, 0=그 외)	.039	.459	-.029	.533	.008	.869	-.036	.453	-.095	.064	.044	.364	-.008	.864
		은퇴 후 경과기간	-.081	.106	-.064	.146	-.087	.055	-.087	.058	.004	.926	-.002	.961	-.018	.674
F(Sig.)	adjusted R2	현재 근로 여부 (1=근로)	-.013	.796	.116	.010	.156	.001	.280	.050	.071	.147	.074	.115	-.040	.357
			4.064***		9.862***		8.609***		7.860***		5.352***		7.564***		10.658***	
			.154		.345		.312		.290		.206		.281		.36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한편, 신규 문항인 노인 불안은 상실 불안과 노화 불안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는 상실 불안, 노화 불안 각각을, 그리고 둘을 종합한 노인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상실 불안과 노화 불안을 모두 포괄하는 노인 불안의 원인을 검토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였을수록, 우리 사회의 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지원망 수가 적을수록, 은퇴 후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노인 불안이 높았다.

다음으로, 상실 불안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차별 경험이 있을수록,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였을수록, 우리 사회의 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지원망 수가 적을수록 상실 불안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노화 불안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였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상황을 경험하였을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였을수록 노화 불안이 높았다.

〈표 6-2〉 노인 불안의 원인

구분		노인 불안					
영역	변수	노인 불안		상실 불안		노화 불안	
		β	Sig.	β	Sig.	β	Sig.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1=남)	-.022	.665	-.006	.909	-.040	.455
	연령	.060	.227	.041	.400	.070	.172
	교육수준	-.161	.006	-.159	.007	-.122	.045
	혼인상태(1=유배우)	-.019	.708	.037	.459	-.094	.073
	가구규모(가구원 수)	-.011	.838	-.024	.657	.010	.856
	거주지역 (1=대도시, 0=그 외 지역)	.104	.045	.143	.006	.022	.688
개인의 경험	박탈 경험 여부	-.012	.825	-.011	.839	-.010	.854
	차별 경험 여부	.036	.503	.112	.037	-.082	.144
	사회적 사건 경험 여부	.165	.002	.130	.013	.170	.002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경험 여부	.037	.468	-.025	.621	.114	.029
사회적 인식	사회신뢰도	-.062	.273	-.020	.723	-.106	.071
	지위 상승 가능성	.117	.062	.098	.115	.113	.083
	미래 사회이동성	.055	.351	.067	.250	.022	.712
	차별 인식	.173	.001	.202	.000	.085	.129
	불평등 인식	.252	.000	.184	.001	.280	.000
사회적 관계망	심리적 지원망 수	-.123	.009	-.149	.002	-.054	.268
개인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004	.937	-.051	.285	.081	.104
	회복탄력	-.017	.729	-.044	.372	.026	.616
	삶의 만족도	-.052	.300	-.029	.558	-.070	.174
개인 건강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1=나쁨, 0=보통 이상)	.034	.466	.034	.456	.024	.618
개인 경제적 요인	재산(중간값 환산)	.100	.112	.084	.178	.096	.141
	소득(균등화소득)	-.080	.137	-.056	.289	-.091	.099
	주거형태(1=자가, 0=그 외)	.038	.453	-.012	.816	.098	.060
	은퇴 후 경과기간	-.096	.043	-.086	.067	-.085	.086
	현재 근로 여부(1=근로)	-.002	.967	.020	.670	-.033	.503
F(Sig.)		6.17 5***		6.514***		4.751***	
adjusted R <sup>2</sup>		.235		.247		.1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이를 종합해 사회적 불안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6-3>과 같다. 사회적 불안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다수 도출되었으며, 그 외 항목들은 불안의 형태별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적응/안전의 경우 개인적 요인들이 주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심리적 변인도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였을수록 적응/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적응기제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불신/무망은 차별을 경험한 경우 불안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불평등은 고학력일수록, 대도시 거주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불평등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고학력 대도시 거주자 이면서 저소득 노인집단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불안은 차별과 사회적 사건의 경험, 그리고 개인의 심리사회적 상태가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개인의 경험이 개인의 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화 과정에서 겪는 노인 불안은 학력과 사회적 사건 경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 심리적 지원망 등이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6-3〉 노인의 사회적 불안 원인 종합

불안		원인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 인지		신뢰도 ↓, 현세대 지위 상승 가능성 ↓, 차별 인식 ↑
사회 불안	전체	사회적 사건 경험, 신뢰도 ↓, 차별 인식 ↑, 불평등 인식 ↑, 심리사회적 지원망 ↓, 현재 근로 중
	적응/안전	여성, 학력 ↓, 사회적 사건 경험, 차별 인식 ↑, 불평등 인식 ↑, 심리사회적 지원망 ↓, 자아존중감 ↓, 재산 ↑, 현재 근로 중
	불공정/경쟁	무배우, 신뢰도 ↓, 불평등 인식 ↑
	불신/무망	차별 경험, 신뢰도 ↓, 현재 지위 상승 가능성 ↓, 불평등 인식 ↑
	불평등	학력 ↑, 대도시 거주, 불평등 인식 ↑, 삶의 만족도 ↓, 소득수준 ↓
개인불안		차별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 미래 세대 지위 상승 가능성 ↓, 자아존중감 ↓, 회복탄력성 ↓
노인 불안	노인 불안	학력 ↓, 대도시 거주, 사회적 사건 경험, 차별 인식 ↑, 불평등 인식 ↑, 심리적 지원망 ↓, 은퇴 후 경과기간 짧을수록
	상실 불안	학력 ↓, 대도시 거주, 차별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 차별 인식 ↑, 불평등 인식 ↑, 심리적 지원망 ↓
	노화 불안	학력 ↓, 사회적 사건 경험, 차별 인식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 제2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65~74세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원인, 소득과 사회적 불안, 그리고 사회적 불안의 대처기제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불안의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다(제3장). 구체적으로,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한 문항의 평균이 3.49로, 노인들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에서도 전체 평균은 3.30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왔고, 특히, 불평등 불안과 불공정/경쟁 불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노인 자신에게 현재 얼마나 불안을 느끼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평균은 2.15로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실 불안과 노화 불안으로 구성된 노인 불안의 전체 평균은 2.94로 나타나 보통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불안과 소득 및 재산의 영향을 살펴보았다(제4장). 소득분위별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지하는 경우는 1분위가 5분위보다 높았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적응/안전 불안을 제외하고는 기타 유형에서 5분위의 불안 수준이 낮은 분위보다 높았다.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요인을 전체 응답자, 빈곤층 그리고 비빈곤층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의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났는데, 비빈곤층은 가구규모, 건강수준, 재산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 경제위기 영향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빈곤층은, 박탈 경험, 경제활동상태 등이 비빈곤층과 달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 및 재산별로 차별화된 정책 개입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불안 대처방식과 더불어,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그리고 둘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제5장). 노인의 단체·모임활동 참여별 사회불안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단체·모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회불안 인지 점수가 높지만,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일부 영역에서는 참여 유무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이 달랐다. 다음으로, 전자기기 보유 및 활용수준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전자기기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집단이,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의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이, 촘촘한 사회관계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평등 영역의 사회적 불안이 높은 집단 역시 사회관계망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사회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회적 교류, 수면·TV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 여가·문화·종교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인지의 관계에서 사회관계의 조절효과를 투입한 결과, 사회관계는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노인의 사회적 불안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살펴보았다(제6장).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지하는 원인은 사회신뢰도, 세대 내 사회이동성, 차별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영역에서는 사회적 사건 경험 여부, 사회신뢰도, 차별 인식, 불평등 인식,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현재 근로 여부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인 불안의 원인으로는 교육수준, 거주지역, 사회적 사건 경험 여부, 차별 인식, 불평등 인식,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은퇴 후 경과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불안의 원인으로는 차별 경험 여부, 사회적 사건 경험 여부, 세대 간 사회이동성,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공통적인 점만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지하는 정도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사회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불안 인지와 노인 불안 같이 개인적 차원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사건 경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차별 경험과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노인 전체 집단이 아닌 65~74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후기 노인에 대해 다루지 못하여, 이번 연구 결과를 전체 노인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기 노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기 노인과는 다른 사회적 불안 수준과 내용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후기 노인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해 노인이 느끼는 불안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조사 문항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후기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제3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1. 함의점

첫째, 노인들의 사회불안 평균은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불평등, 불공정/경쟁 영역의 사회적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평등과 불공정/경쟁 영역의 사회적 불안 모두 불평등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불평등 인식은 실제 불평등 경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 조사 결과 불평등 인식이 높은 사람이, 놀랍게도, 불평등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조혜정, 2018. 10. 18.). 집단의 특성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저학력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불평등 인식은 낮지만, 실제로 이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적 요소는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정, 2018. 10. 18.). 이는 불평등 인식과 경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김영주, 나진경, 2018). 불평등을 경험하는 일이 누적되면,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둔감해진다(김영주, 나진경, 2018).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노인이 불평등을 체감하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했다. 빈곤층에서는 박탈 경험이 불안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나 비빈곤층의 경우

경제위기의 영향 경험이 유의미하게 불안에 영향을 주었다. 빈곤층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그리고 비빈곤층에게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불안을 줄이는 데 중요할 수 있다.

셋째, 사회신뢰는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사회신뢰는 사회불안 인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전체와 일부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 사회신뢰가 저하될수록, 사회불안 인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불공정/경쟁, 그리고 불신/무망 영역의 사회불안은 높아졌다. 이는 사회신뢰가 사회불안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사실, 한국 사회의 신뢰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데, 이는 급격한 산업화 및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때문으로 여겨진다(곽윤경, 2021). 이와 관련해, Lord(2019. 1. 31.)는 사회적 신뢰를 강화 및 회복하기 위해서 ㄱ) 사회적/법적 제도 및 행정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익에 대해 홍보함, ㄴ) 공공의 선을 위해 활동하는 미래의 리더 육성, ㄷ)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 ㄹ) 지역사회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시민을 동참하게 함, ㄹ) 사회적 포용 강화, ㅂ) 실질적인 의지(commitment)를 확립함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창용, 이태준(2017, pp. 14-15)은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책임성, 그리고 대응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갈등의 사전 예방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적/법적 제도 및 행정 및 기관이 투명성, 공정성, 청렴도를 높이려고 노력할 때,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가 강화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적응/안전 사회불안과 노인 불안은 상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분석 결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제3장 참조). 적응/안전 불안을 낮추려는 정책은 곧 개인 차원인 노인 불안(노화 불안 + 상실 불안)을 줄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응/안전 불안이 높은 집단 특성을 파악하고, 이 집단의 불안이 노인 불안과 관여되는 정도를 완화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적응/안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의 제5장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정치·사회모임 등의 단체모임활동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의 특성상, 노인들은 가족 및 주변인들의 상실로 인해 심리적 지원망 수가 장년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역할 상실, 소외감 등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모임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노인의 적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노인의 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노인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신뢰도, 차별 인식, 불평등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 등)이 사회적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즉, 차별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 같은 개인의 경험요인들이 사회적 불안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홍영오 외(2006)에서 제시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향후 이 둘의 관계에 따른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차별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워주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만큼(윤원섭, 2020. 10. 8.),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와 문제들을 지속해서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부 요인에서는

저학력, 저소득이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그 반대인 경우도 나타났다. 또한, 재산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는데, 재산이 많은 집단은 불신/무방 그리고 적응/안전 불안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개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 계층에서 즉,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정책 제언

### 가. 정기적인 사회적 불안의 모니터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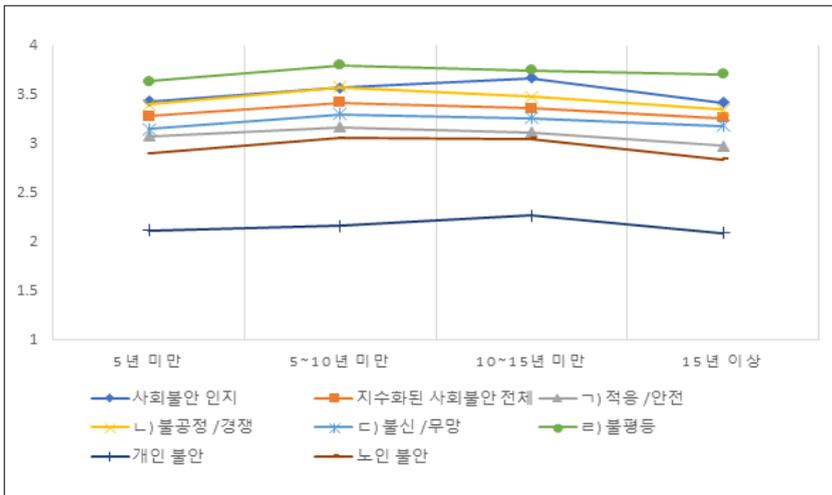
노인의 사회적 불안은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만큼,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사전에 예견하고, 관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본 연구 결과 노인의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사건 경험과 경제위기 영향 경험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의 영향도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 사회 노인에게 어떻게 작동하는 중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일부 현상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였으며, 이미 만성화 혹은 내재화된 사회적 문제가 코로나 19를 계기로 표면에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Barrett & Chen, 2021). 혹은, 청년, 장년 시기에 누적된 불평등 혹은 문제들이 노년기로 이행함에 따라 표출된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생애주기상 노인이기 때문에 촉발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 불안이 적시에 관리되지 못한다면, 사회적 차원에서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거나, 저성장으로 이어지거나, 재정 긴축으로 인한 불안과 저성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악영향으로 귀결될

수 있다(Barrett & Chen, 2021).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년기 전반의 삶의 질과 웰다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 세대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 및 감지하는 체계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 나. 은퇴자 혹은 은퇴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

본 조사에서 노인 불안은 은퇴 후 5년 미만, 5~10년 미만 시기에 계속 상승하다가, 10~15년 미만 시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1). 이후, 노인 불안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로써 은퇴 자체가 노인의 삶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정택, 2017).

[그림 6-1] 은퇴 후 경과기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이러한 측면에서 「노후준비지원법」<sup>12)</sup>을 강화하여, 은퇴 후 그리고 노후 생활에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관련 사업은 예산의 부족으로 시행되지 않거나, 관련 센터의 접근성 문제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황남희 외, 2020a). 또한, 담당기관의 직무상 특화영역이 아닌 노후준비서비스 전반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존재한다(주지영, 2021. 9. 15.). 더군다나 관련 시행계획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발의된 개정 법률안이 총 2건에 불과하다(원시연, 2020, p. 4).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대상이 20대부터 60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이소정, 2016),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노년기 이전에 노후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다. 지역 밀착형 사회관계망 유지, 확대, 회복 방안 마련

사회적 불안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관계망을 유지, 강화,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존의 사업들을 보완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박선미, 2020),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 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해

12) 「노후준비지원법」에 의거하여,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하며, “노후준비서비스”로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원시연, 2020, p. 1).

나가기 위한 조직체이다(강한별, 남영숙, 2018).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 하여, 노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돌봐주며, 필요할 때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발성에 기초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박진희, 박상옥, 2021).

위와 같은 공동체 사업을 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현재 일자리사업은 단지 노인에게 일을 제공할 뿐, 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들과의 관계 형성 및 사회관계망 확대 등에는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장익현, 전미양, 문진영, 2018, p. 62). 다시 말하면, 일자리 사업은 단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노인들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하는 기회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측면에서(장익현, 전미양, 문진영, 2018),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의미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는 독거노인의 손실된 사회적 관계망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1인 가구가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독거노인의 24.4%는 심리적 불안감 및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웃 및 자녀와의 지지도 및 관계 만족도도 기타 가구 유형의 노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부터 이들의 사회관계를 활성화하고자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p. 5). 그리고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지역 내 민간단체 등과 함께 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관련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1). 향후 정책 대상을 일반 1인 노인가구로 확대하되, 이들의 축소된 사회적 연결망을 보완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라.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주요 요인인 정보화 기기 활용의 역기능적 측면을 예방하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노인의 전자기기 활용이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전자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전자기기를 활용하면서 알게 되는 다양한 정보로 인해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혹은 인터넷상에서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동년배를 보며 상향 비교함으로써 열등감이나 우울감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소셜 미디어가 실제로 그 위험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권순일, 2021. 11. 24.). 따라서 정보화기기 활용에 대한 역기능적 측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사회 지역 차원의 문제이기에,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 인터넷상의 가짜뉴스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만연하여, 이를 많이 접한 노인들의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진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65세 이상 노년층이 18~29세보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약 7배나 많이 공유 및 확산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임해원, 2021. 6. 23.). 한국

에서도 최근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가 매개가 되어 노인들이 가짜뉴스나 정치 선동적 글과 영상 등을 공유 및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진, 2019). 또한,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가짜뉴스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해원, 2021. 6. 23.). 따라서 노인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분별하고,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키워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 마. 보편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

노인 관련 정신건강서비스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 정교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소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노인집단에서도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층 노인 혹은 재산이 많은 노인의 불안 수준이 높았고, 저소득층 노인 혹은 재산이 적은 노인도 불안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후자의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이미 주목한 바 있으나, 전자의 결과는 다소 의외였다. 또한, 학력수준에 따른 사회불안의 경험은 다양하였는데, 예를 들어 저학력 노인은 적응/안전 불안이 높고, 고학력 노인은 불평등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집단별 불안의 경험은 다양하고 복잡하였다. 물론, 본 조사에서 고위험군 노인이 다수 참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노인의 경우에도 사회에 대한 불안이 일정 수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사전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충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상은 독거, 취약계층 등 소위 고위험

군으로 한정되어 있다(박영란, 손덕순, 박경순, 2017, p. 27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20. 12. 5.). 따라서 해당 사업을 포함한 관련 사업의 대상을 일반 노인에게 보편적인 관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바. 65~74세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본 연구 결과는 우리가 기존에 노인 하면 떠올리던 이미지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신체 건강 수준은 양호하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도 높았고, 심지어 은퇴 이후에도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전자기기도 활발하게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노쇠하고 고지식하며 가족 부양이 필요한 약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조수현, 정순돌, 2019, p. 132). 이러한 실제와 다른 인식은 노인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고, 노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노인 관련 정책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대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하여 노인의 삶의 질과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본 조사에서 드러난 노인의 모습을 전체 노인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65~74세 집단에 관해 활발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 이들의 모습을 규명함으로써 연령별 그리고 집단별로 노인 대상 정책을 세분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65~74세 집단의 특이성은 노인정책의 전제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 주며, 그에 따라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을 재편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 EBS 감정 시대 제작팀. (2017). 감정 시대-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EBS 미디어.  
파주: 월북.
- 강상경, 전해숙. (2012). 중,고령자 우울증 개선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고령자 패널 1,2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3),  
145-174.
- 강한별, 남영숙. (2018).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학회 학술대회논문집, 57-5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곽윤경. (2021). 청년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9(1), 60-89.
- 권순일. (2021. 11. 24.). 소셜 미디어, 우울증 위험 높인다(연구). 코메디닷컴.  
<https://kormedi.com/1367100/%EC%86%8C%EC%85%9C-%EB%A%B8%EB%94%94%EC%96%B4-%EC%9A%B0%EC%9A%B8%EC%A6%9D-%EC%9C%84%ED%97%98-%EB%86%92%EC%9D%B8%EB%8B%A4%EC%97%B0%EA%B5%AC/>에서 2021. 11. 30. 인출.
- 김경미. (2021. 2. 17.).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한국...노인빈곤율도 OECD 1위.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4291#home>에서  
2021. 9. 6. 인출.
- 김경숙, 문재우, 박재산. (2008).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분석 -경로  
당 및 교회 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0(23), 105-132.
- 김기태, 송진영, 정종화. (2018).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125-153.

- 김미령. (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7-222.
- 김범수, 최은영. (2017). 은퇴가 건강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7.1, 85-107.
- 김신열, 김순규, 서효정. (2011). 배우자 사별노인의 우울과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1(3), 165-196.
- 김영주, 나진경. (2018). 불평등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경험 연구 개관: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3), 313-347.
- 김은진. (2019). 노인들의 SNS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6(4), 188-239.
- 김자영. (2014). 노인빈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4(4), 717-7357.
- 김재희, 김욱. (2015). 노화불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8, 187-216.
- 김진동, 정민영, 김경범, 노진원. (2016). 성인여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불안·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29-38.
- 김진현. (2021).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1(2), 83-100.
- 김혜경. (2006). 노인의 사회참가에 관한 연구. 지성과 창조, 9, 247-271.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2.
- 남궁은하. (2021).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생활의 변화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300, 72-85.
- 네이버 사전. 불안. <https://dict.naver.com/>에서 2021. 8. 10. 인출.
- 박선미. (2020).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 경북 예천군 A마을 사례-. 한국민속학회, 72, 113-147.
- 박수애, 송관재. (2005).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29.

- 박영란, 손덕순, 박경순. (2017). 노인정신건강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입법과 정책*, 9(2), 275-298.
- 박진희, 박상욱(2021). 초고령마을 노인들의 학습과 마을공동체 형성과정. *교육연구*, 36(1), 1-31.
- 박찬형. (2019. 9. 29.). 한국 노인 OECD 최고 자살률...노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92513>에서 2021. 5. 28. 인출.
- 백지은. (2018).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상실경험, 노후불안, 우울감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2), 403-413.
- 변루나, 김영숙, 현택수. (2011).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 참여 지원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1(4), 315-344.
- 보건복지부. (2018).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 [file:///C:/Users/kihasa/Downloads/\[4.27.%EA%B8%88.%ED%9A%8C%EC%9D%98\\_%EC%8B%9C%EC%9E%91\\_%EC%9D%B4%ED%9B%84\]\\_\(%EB%B3%84%EC%B2%A8\\_2\)\\_%EC%A0%9C2%EC%B0%A8\\_%EB%8F%85%EA%B1%B0%EB%85%B8%EC%9D%B8\\_%EC%A2%85%ED%95%A9%EC%A7%80%EC%9B%90%EB%8C%80%EC%B1%85\('18\\_'22%EB%85%84\)%20\(1\).pdf](file:///C:/Users/kihasa/Downloads/[4.27.%EA%B8%88.%ED%9A%8C%EC%9D%98_%EC%8B%9C%EC%9E%91_%EC%9D%B4%ED%9B%84]_(%EB%B3%84%EC%B2%A8_2)_%EC%A0%9C2%EC%B0%A8_%EB%8F%85%EA%B1%B0%EB%85%B8%EC%9D%B8_%EC%A2%85%ED%95%A9%EC%A7%80%EC%9B%90%EB%8C%80%EC%B1%85('18_'22%EB%85%84)%20(1).pdf)에서 2021. 11. 26. 인출.
- 보건복지부. (2021). 노인 - 노인정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4&PAGE=4&topTitle=%B3%EB%C0%CE%B5%B9%BA%BD%B1%E2%BA%BB%BC%AD%BA%F1%BD%BA%BB%E7%BE%F7](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4&PAGE=4&topTitle=%B3%EB%C0%CE%B5%B9%BA%BD%B1%E2%BA%BB%BC%AD%BA%F1%BD%BA%BB%E7%BE%F7)에서 2021. 11. 30. 인출.
- 보건복지부. (2021. 6. 7.).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세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4673&topic=>에서 2021. 9. 29. 인출.
- 성혜연. (2021).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4), 333-356.

-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엄사랑, 김수경, 김지원, 신혜리, 김영선. (2020). 남성노인의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 사회접촉의 매개효과와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40(3), 248-285.
- 여연옥, 유은광. (2010).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노인 환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일상생활수행능력[ADL]간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2(6), 676-686.
- 여유진, 황남희, 어유경, 우선희, 이지완. (2021).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혁신 과제-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시연. (2020).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1745호.
- 원혜진, 송신애. (2019). 배우자와의 사별이 고령층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를 통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의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39(4), 145-172.
- 윤원섭. (2020. 10. 8.). 10년새 60세 이상 정신질환자 81% 증가...노인정신건강 위기.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585>에서 2021. 11. 29. 인출.
- 이금룡, 조은혜. (2013).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간접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1), 162-189.
- 이민숙. (2005). 노인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 임상사회사업 연구, 2(3), 191-212.
- 이상문. (2008). 빈곤계층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2(3), 119-152.
- 이상우. (2017).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관한 중단연구: 패널 로짓 모형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37(3), 191-229.
- 이소정. (2016).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9월호, 70-82.
- 이아영, 고경표. (2018). 중고령층 근로활동(은퇴/재근로)이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 효과 발생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세종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이원진.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관계. 한국사회 복지학, 62(4), 249-274.
- 이정택. (2017). 은퇴가 건강생활습관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KIRI 고령화리뷰, 16, 8-13.
- 이종택, 김범준, 최인철, 박수애. (2008). 한국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 개인 표상과 사회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23-41.
- 이중훈, 박병탁. (1992). 불안 환자에 대한 불안척도의 연구. 영남의대학술지, 9(1), 156-166.
- 이중훈, 박병탁, 정성덕, 강복수, 정종학. (1984). 불안척도에 의한 노인들의 정신 건강. 영남의대학술지, 1(1), 121-128.
- 이현경, 손민성, 최만규. (2012). 우리나라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 분석. 한국 콘첸츠학회논문, 12(12), 672-682.
-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 사회학, 52(3), 119-164.
- 임정숙. (2018). 노인의 노화불안이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와 성별차이. 노인복지연구, 73(1), 417-443.
- 임주영. (2014). 한국 노인의 불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2), 187-203.
- 임해원. (2021. 6. 23.). 실버세대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삶의 질' 높인다. 뉴스로드.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0>에서 2021. 11. 14. 인출.
- 장익현, 전미양, 문진영. (2018). 서울시 여성노인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12. 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에서 2021. 11. 7. 인출.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구,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수현, 정순돌. (2019). 사회위험수준인식과 노인낙인의 관계: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9(2), 131-159.
- 조용하. (2005). 여성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혜정. (2018. 10. 18.). '불평등 고통' 겪는 계층이 되레 "불평등 심하지 않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866446.html#csi-dxf0064a27d173dcc81535e234d8483d2>에서 2021. 12. 1. 인출.
- 조혜정, 염동문, 권혁창. (2020). 청장년층 가구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 연령별 비교. 인문사회 21, 11(2), 2091-2102.
- 주경희. (2010). 사회참여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 성별과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지영. (2021. 9. 15.). 노후준비지원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그런데 열고 보니 알맹이가 없네요. 시니어 신문.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77>에서 2021. 11. 9. 인출.
- 최창용, 이태준. (2017). 정책과정 변화를 통한 정부신뢰 제고 방안. 2017 중장기 전략 정책세미나 자료집.
- 통계청. (2020). 생명표, 국가승인통계 제101035호.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에서 2021. 8. 11. 인출.
- 한경혜, 김주현, 박경숙, Hiroko, A., 이재인. (2011). 도시지역 연소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동기 요인간의 관련성. 한국노년학, 31(4), 1189-1208.
- 한승현, 임다혜, 강민아. (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sness)과 행복. 한국사회정책, 24(2), 87-126.

-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pp.129-160.
-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민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남희, 김경래, 박은자, 주보혜, 임정미, 김혜수, 이소정, 성혜영, 유재연, 김재호, 이금룡. (2020a).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남희, 김혜수, 김경래, 주보혜, 홍석호, 김주현, (2020b).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 Mayer, K. U. (Eds.). (1999). *The Berlin Aging Study: Aging from 70 to 1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rett, P., & Chen, S. (2021). *The Economics of Social Unrest*. <https://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21/08/economic-s-of-social-unrest-imf-barrett-chen.htm>에서 2021.11.30. 인출.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New York and London: The Guilford Press.
- Dave, D., Rashad, I., & Spasojevic, J. (2008). The Effects of Retirement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utcomes. *Southern Economic Journal*, 75(2), 497-523.
- Elman, C., & O'Rand, A. M. (2004). The Race Is to the Swift: Socioeconomic Origins, Adult Education, and Wage Attain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1), 123-160.

- Garfein, A. J., & Herzog, A. R. (1995). Robust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0(2), S77-S87.
- Ginsburg, G. S., La Greca, A. M., & Silverman, W. K. (1998). Social Anxiety in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s: relation with social and emotional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3), 175-185.
- Heisel, M. J., & Flett, G. L. (2006).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Geriatric Suicide Ideation Scale.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4(9), 742-751.
- Jadhav, A., & Weir, D. (2017). Widowhood and Depression i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Europe, Korea, and China.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73(8), e143-e153.
- Jovanović, A. S., Renn, O., & Schröter, R. (2012).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Social Unrest*. OECD.
- Kauffman Foundation. (2017). 2017 Kauffman Index startup activity - national trends.  
[https://www.kauffman.org/wp-content/uploads/2019/09/2017\\_Kauffman\\_Index\\_Startup\\_Activity\\_National\\_Report\\_Final.pdf](https://www.kauffman.org/wp-content/uploads/2019/09/2017_Kauffman_Index_Startup_Activity_National_Report_Final.pdf)에서 2021. 9. 29. 인출.
- Kearney, C. A., & Silverman, W. K. (1990). A preliminary analysis of a functional model of assessment and treatment for school refusal behavior. *Behavior Modification*, 14(3), 340-366.
- Kessler, R. C., McGonagle, K. A., Zhao, S., Nelson, B., Hughes, M., Eshleman, S., Wittchen, H-U., & Kendler, K.S. (1994). Life 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 Lasher, K. P., & Faulkender, P. J.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 Lord, K. M. (2019. 1. 31.). Six Ways to Repair Declining Social Trust.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Retrived from [https://ssir.org/articles/entry/six\\_ways\\_to\\_repair\\_declining\\_social\\_trust](https://ssir.org/articles/entry/six_ways_to_repair_declining_social_trust).
- Lowe, P. A., & Reynolds, C. R. (2000). Exploratory analyses of the latent structure of anxiety among older adul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0(1), 100-116
- Lui, C. K., Chung, P. J., Wallace, S. P., & Aneshensel, C. S. (2014). Social status attain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7), 1134-1150.
- Mandal, B., & Roe, B. (2008). Job loss, retirement and the mental health of older Americans. *The Journal of Mental Health Policy and Economics*, 11(4), 167-176.
- Mauro, F. G. (2020). 2030 축의 전환 (우진하, 역). 서울: 리더스북. (원서출판 2020).
- Mirowsky, J., & Ross, C. E. (1990). Control of Defense? Depression and the Sense of Control over Good and Bad Outcom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31, 71-86.
- Nbcnews. (2014. 2. 25.). Broken Hearts: Strokes, Heart Attacks More Likely After Loss. *Nbcnews*, Retrived from <https://www.nbcnews.com/health/heart-health/broken-hearts-strokes-heart-attacks-more-likely-after-loss-n37641>.

- Neugarten B. L. (1974).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the young-ol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5, 187-198.
- Newman & Newman. (1991).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logical Approach*. 5th ed.. California: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OECD. (2015). *OECD insights income inequalit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 Spielberger, C. D.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form Y)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https://ubir.buffalo.edu/xmlui/handle/10477/1873?show=full>에서 2021. 11. 6. 인출.
- Templer, D. I. (197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2, 165-177.
- Webber, M. (2005). Social capital and mental health. *Developing social models to understand and work with mental distress* (pp. 90-111).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Webber, M., Huxley, P., & Harris, T. (2011). Social capital and the course of depression: six-month prospective cohort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129(1-2), 149-157.
- WHO. (2017).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mental-health-of-older-adults>에서 2021. 8. 12. 인출.
- Williams, K. L., & Galliher, R. V. (2006). Predicting depression and self-esteem from social connectedness, support, and competen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8), 855-874.



##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응답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현재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불안과 그 원인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사회의 불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생명윤리위원회(IRB) 제2021-022호)를 받아 진행되며 응답해 주시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됨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동의서에 작성해주신 귀하의 성함과 연락처는 조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을 위해 활용될 뿐이며, 조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자료의 수집과 보관, 결과 분석 및 해석 등)에서 귀하의 모든 개인적 정보 및 기타 정보는 코드화되어 오직 코드번호로만 식별됩니다.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현황 등의 개인정보는 조사가 종료된 직후 폐기됩니다.

조사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로 답례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윤경 부연구위원
- ◇ 조사기간: 2021년 6월 29일 ~ 7월 23일
- ◇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 ◇ 문의처: ㈜엠브레인퍼블릭 김효재 과장(02-3429-1769)

본인은 위 사항에 따라 조사 사실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으며,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조사참여에 동의합니다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I. 응답자 선정 질문

선문1.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생

선문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선문3. 귀하의 거주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선문4. 귀하의 거주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동    ② 읍    ③ 면

선문5. 지난 3개월(2021.3.1.~2021.5.31.) 동안 귀택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세후소득)은 얼마입니까?

(※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의 총 가구소득임. 즉,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 총 소득 =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재산소득+사적 이진소득+공적 이진소득

※ 공적이진소득은 현금으로 가계에 유입된 소득만 포함하고, 원물 및 바우치 형태의 지원은 제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연금 등 포함)

월평균 

--	--	--	--	--	--	--	--	--	--	--

만원



## II. 우리사회에 대한 인식

문1.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있는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 학교 등 소속된 조직이나 모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범죄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2)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3) 정부의 위험/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것)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문3.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보통이다	믿을 수 있다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4.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삶의 수준, 소득수준, 직업지위 등)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낮다	약간 낮다	약간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문5. 귀하는 일반적으로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삶의 수준, 소득수준, 직업지위 등)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매우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6. 우리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차별이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성별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⑤
(2) 연령으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3) 장애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5) 학력으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6) 교육 기회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7) 취업 기회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8) 승진 기회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9) 소득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10) 자산(부동산 등 재산)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문7. 귀하는 평소 젊은 세대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고집이 세고, 폐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에 잘 적응하고 생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신선한 발상 등으로 배울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Ⅲ. 응답자의 경험**

문8. 귀하는 현재 얼마나 불안을 느끼십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9. 귀하는 지난 20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건강	(1) 돈이 없어서 아프지만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2) 병원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①	②
	(3)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돌봄	(4)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①	②
	(5)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느라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①	②
주거	(6) 돈이 없어서 집세가 밀렸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7) 주거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①	②

문10. 귀하는 지난 20년간 다음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성별에 따른 차별	①	②
(2) 연령으로 인한 차별	①	②
(3) 장애로 인한 차별	①	②
(4) 외모로 인한 차별	①	②
(5) 학력(또는 학벌)으로 인한 차별	①	②
(6) 직업 및 고용상태로 인한 차별	①	②
(7) 소득 및 자산(재산)으로 인한 차별	①	②
(8) 지역(출신지 또는 거주지)에 의한 차별	①	②

문11. 귀하는 아래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 혹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경제·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있다		없다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 등)	
(1) 1998년 외환위기	①	②	③
(2) 2008년 금융위기	①	②	③

20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문12. 귀하는 얼마나 자주 다음의 상황을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요즘 전보다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공연히 두려워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소한 일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신경이 극도로 약해져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만사가 손조로울 것 같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손발이 떨리고 안절부절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혹은 허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쉽게 무기력하고 피곤해진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게 오래앉아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어지러워서 고생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졸도하거나 졸도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무리없이 술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손에 쥐가 나가거나 저려서 고생을 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소화가 안되어 고생을 한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①	②	③	④
(17) 내 손은 평소 심하게 땀이 나지도 않고 처지 않게 유지된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화끈거린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쉽게 잠이 들고 깊이 잔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꿈자리가 사납다.	①	②	③	④

문13. 귀하는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이 모두 먼저 죽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자주 나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돈이 다 떨어질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노년기에 할 일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기억을 잃을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 더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노후 생활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이가 들어도 나 스스로에 대해 좋게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거울을 볼 때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문14.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 3순위까지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그냥 참는다
- ② 약물 복용 등 의료적 도움을 받는다
- ③ 심리상담을 받는다.
- ④ 수면을 취하거나,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 이용을 한다
- ⑤ 흡연이나 음주 등 유희, 과식/폭식/미식 등을 한다
- ⑥ 가족과 교류한다(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 ⑦ 기타 지인과 교류한다(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 ⑧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간다
- ⑨ 취미/문화생활을 하거나, 쇼핑을 한다
- ⑩ 종교활동을 한다
- ⑪ 기타

**문15. 귀하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음의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건강 악화 또는 치료 중단	①	②
(2) 여가·문화·친교·종교활동 감소 및 사회적 고립	①	②
(3) 일자리 불안	①	②
(4) 소득 감소	①	②
(5) 가족 돌봄 및 가사 부담 가중	①	②
(6) 가족 간의 갈등	①	②

**문16. 귀하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 의료 문제 증가
- ② 교육 환경 악화
- ③ 고용 불안 증가
- ④ 소득 불평등 증가
- ⑤ 가족 돌봄 부담 가중
- ⑥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증가
- ⑦ 가족 간 갈등 심화



문22. 귀하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다음의 각 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메신저(카카오톡, 네이버라인 등)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인스타그램 등)를 이용한다.	①	②
(2) 정보 및 뉴스를 검색하거나 미디어콘텐츠(영화, 음악, 유튜브 등)를 본다.	①	②
(3)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예약, 예매를 한다.	①	②
(4)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송금, 공과금 납부, 주식거래 등)를 한다.	①	②
(5)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무인주문기계(키오스크)를 이용한다.	①	②



## V.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문23.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려운 일이 닦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①	②	③	④
(4)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문24.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6. 귀하의 현재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되는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기입해주시시오.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문26-1로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 문26-1로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문26-1로
- ④ 고용주 → 문26-1로
- ⑤ 자영업자(프리랜서, 플랫폼노동, 임대사업자 등 포함) → 문26-1로
- ⑥ 무급가족종사자 → 문26-1로
- ⑦ 실업자(※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 문27로
- ⑧ 비경제활동인구 → 문27로

취업자	1.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이급,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세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4.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5.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6.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실업자	7.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또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 제언태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비경제활동인구	8.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돌봄, 연로, 심신 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역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문26-1. 귀하의 현재 일자리(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6-2. 지난 3개월(2021.3.1.~2021.5.31.) 동안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의 월 평균 소득(세후소득)은 얼마입니까?**

※ 근로소득 = 임금 + 사업소득(자영소득 포함)  
 ※ 사업소득자는 순소득=총소득-경비





**Ⅷ. 응답자 일반 사항**

문33~39. 귀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보기
33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기타 ※ 가구주란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34 교육수준 (졸업 기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 졸업(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 재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 중학교 재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업)
35 혼인상태	①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
36 주관적 건강상태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37 돌봄 필요 유무	귀하는 장애인 질병 등으로 주변의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8 종교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39 주관적 소득계층	① 하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층

문40. 귀하는 현재 다음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기초연금	①	②
(2)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수령 시점과 상관없이 받았던 일시금 총액 기입	연금 월 배 상 일 만원 일시금 월 연 배 상 일 만원	② -
(3) 재정지원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①	②
(4)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①	②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1개라도 받으면 '①'에 기입 ※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 내 1명이라도 받으면 '①'에 기입	①	②

## 간행물 회원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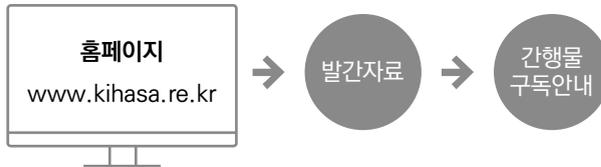
###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 가입방법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